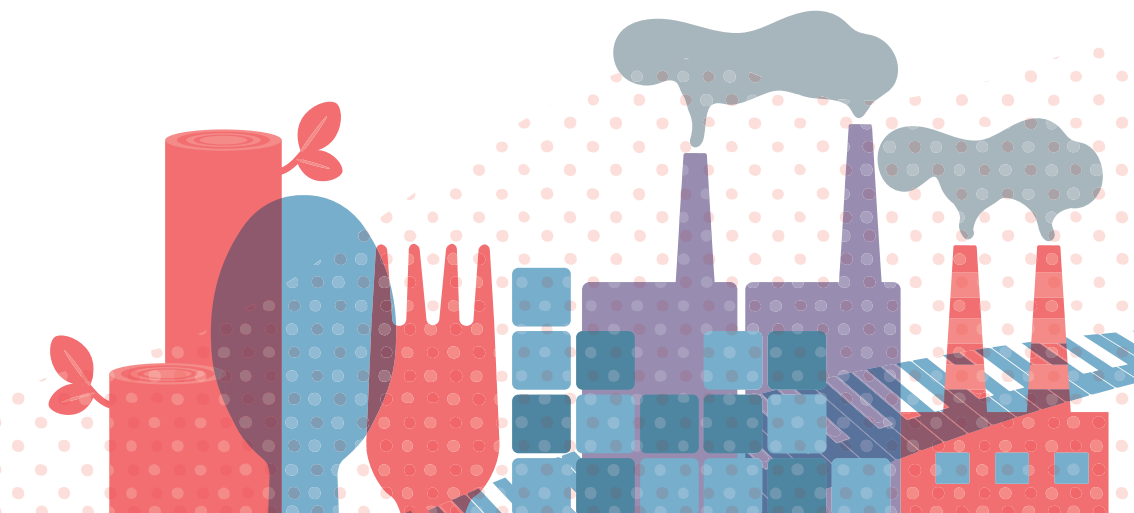


인 천 서 구 의 산 업 2

서구산업의 발전과 성숙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 천 서 구 의 산 업 2

서구산업의 발전과 성숙

발간사



인천서구문화원은 서구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향토지 발간 및 연구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 인천 서구 지역의 설화를 모은 『천마와 아기장수』를 시작으로, 2020년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총 19권의 향토지를 발간 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의 설화, 문화, 민속신앙, 인물 등을 두루 다룬 이 책들은 ‘향토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천 서구 지역의 ‘거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의 옛날과 오늘을 연구하고 기록한 향토지는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시대의 정신과 향기를 붙잡아 서구의 구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정신을 알리고 문화 구민의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인천 서구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도시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옛 모습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타지역민의 이주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전통 역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산업도 4차 산업 위주로 빠른 변모를 보이면서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던 공간과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서구문화원은 3년에 걸쳐 시대별로 서구 산업의 형성과 발달,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지역에 미친 경제 문화 등을 살펴보려 하였고, 올해 발간한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은 그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놓이고 산업화의 기반이 닦인 이후, 인천 서구가 산업도시로 빠르게 발전·성숙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천 서구의 산업 시리즈가 인천 서구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목 차

프롤로그 07

I. 가좌지구 폐염전의 질적 변화 :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

- 1. 서론_22
- 2. 수출공단 유치과정과 부평수출공단 조성_27
- 3. 주안 폐염전의 질적 변화 : 주안공업지구_33
- 4. 수출공단의 강제통합과 주안공업단지의 위기_53
- 5. 결론_65

II. 서구목재산업단지와 동화기업

- 1. 서구목재산업단지_70
- 2. 서구 목재산업, 서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다_79
- 3. 서구 목재산업의 현장 사람들과 애환_83
- 4. 동화기업_95

III.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 영창악기와 인천

- 1. 들어가며_106
 - 2. 영창악기 연혁_109
 - 3. 접착반 이재술_112
 - 4. 도장반 윤지선_122
 - 5. 목공반 이상우_130
 - 6. 나오며_137
-

IV. 경동산업의 어제와 오늘

- 국내 최초의 양식기제조업 '경동산업'에서
노동자자주회사 '키친아트'까지

1. 가좌 1동, 갯벌에서 염전으로 다시 공단으로_142
2. 경동산업, 가좌동에 새로이 터를 잡다_146
3. 경동에서 일하기_147
4. 경동산업과 민주노조운동_158
5. 경동산업, 문을 닫다_165
6. 지역과 더불어, 노동자 자주기업 키친아트_168
7. 아직도 남아있는 경동의 흔적을 찾아서_171

V. 동양 최대의 세라믹 공장을 꿈꾼 극동요업

1.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자리한 극동요업_178
2. 30년간 극동요업과 함께한 소성화 상무_198
3. 글을 맺으며_208

프롤로그

prologue

- 1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
- 2 서구 산업화의 태동
- 3 서구 산업화의 성장

김영덕 (향토문화연구소장 / 문학평론가)

서구 산업의 태동과 성장

산업화(industrialization)란 사전적으로 농업국가가 산업국가로 이행, 발전하는 것이다. 기술적 구성요소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발전을 수반했다. 봉건적, 관습적인 의무에 묶여 있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되자 특정한 사회적 유형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가와 더불어 자유로운 노동력 시장이 창출되었다.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도시와 공장지대로 몰려들었다. 비교적 후기에 산업화 과정을 밟은 나라들은 이러한 요소들의 일부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시키려 했다. 소련과 같은 나라는 주로 강제노동과 기업가의 제거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반면에 일본은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자본가의 역할을 자극하고 뒷받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여명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국토가 강제로 병탄(annexation)되는 비운을 겪었다. 산업화도 제국주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 또한 제한되어 있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근교농업과 시설농업, 상업적 영농이 발달하고 가구당 경지면적도 증가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현된 영농의 기계화와 신개념 플랜테이션 농업을 산업화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서구 산업화의 태동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산업화를 논할 때든, 인천이라는 광역도시의 산업화를 논할 때든, 아니면 우리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서구지역에만 국한하여 그 미시적 지평에서만 산업화의 태동과 성장과정을 논할 때든, 그냥 건너뛰거나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일제강점기다. 공교롭게도 그 특정 시기는 이 땅에서 봉건적 사회질서가 붕괴하고 산업화가 태동하던 때와 맞물리면서 열렸다.

무릇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감추고 싶은 역사도 있다. 인지상정이리라. 그러나 그 지나온 세월에 조금하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발현되면서 때로는 그 논쟁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 가열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것은 시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진실의 순간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시간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운명이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기도 한다. 세월과 함께 모든 게 변한다.

일제강점기를 억지로 미화하려는 시도가 비판받는 것만큼, 그 시대를 거칠게 단순화시켜 식민지 착취와 수탈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황된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대륙침략을 위하여 조선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면서 국가적 자원배분에 심각한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주지하듯이, 그 굴욕의 시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조선왕조의 소멸과 비자발적 개항, 을사늑약이라는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이 땅에 찾아왔다. 사실 인천의 서구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다. 조선의 운명을 암시했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운요호사건은 모두 인천의 서구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사건들을 일으켰던 외국 함대의 은신과 기동, 포격지원은 이곳 경서동 해안에서 이루어졌다. 서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증인이다.

지리적으로 인천의 북서부지역인 서구는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바닷가이면서도 그 중간에 한남정맥이라는 험준한 산줄기가 남북으로 길게 가로막고 있어서 작은 반도와 섬이 많았던 지역이다. 게다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지형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인구가 조밀하지 않았다. 인근에 유의미한 배후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항구나 포구도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천의 서구는 오랫동안 농경위주의 촌락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지역은 수천 년간 인구가 조밀한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갯벌이 발달한 인문지리적 특성에 따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소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생산한 소금은 예성강이나 한강 물줄기를 따라 개령이나 한양 같은 대처, 인구밀집지역에 유통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대만에서 들여온 ‘천일염’ 생산방식이 보편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전통적 방식에 따른 ‘화염’과 ‘전오염’의 생산과 유통이 금지되었다. 재래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땀나뭇가 필요했고 그 화목을 공급하기 위하여 벌어졌던 무분별한 산림의 남벌을 막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1908년경의 일이다.

소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점차 일본인들 위주로 기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금밭을 일구던 서구의 토박이들은 결국 염업에서 밀려나 농사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경서동의 허정 집안이

나, 공촌동의 김기현 집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토착 서구민들 중에는 과거시험에 급제하거나 관리 등용문에 합격하여 관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기존 농경위주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에도 변화를 야기한 산업화의 태동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는 섬유산업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섬유산업은 산업혁명을 이끈 제1의 제조업답게 영국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근대 국가가 근대화 과정에서 육성하고자 했던 산업이었다. 일본도 19세기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나서면서 ‘동양방’, ‘대일본방’, ‘종연방적(가네다후치 방적)’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방적·방직기업들을 세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1917년 ‘미쓰이’가 부산에 ‘조선방직’을 만든 게 방직공장의 효시다. 조선방직은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1969년에 문을 닫았다. 인천에는 동양방 인천공장이 만석동(경기도 인천부 만석정 37-3)에 세워졌다. 1932년 해안 갯벌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건설을 시작했다. 그 이듬해인 1933년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당시 서구지역의 많은 젊은이들도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열리면서 서구는 산업 종사자들의 보충대 역할을 했다.

방직공장은 당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이었다. 직공들은 월급을 모아 동생들 학비에 보태기도 했다. 그래서 ‘동양방’에 다니는 것을 농담조로 ‘동대’에 다닌다고 자못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동대(東大)는 동경제국대학의 약칭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코상’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요코상’은 방직공장에 취직하여 ‘횡직기(橫織機)’

를 다루던 여공들의 별칭이다. 1936년에는 조선인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로 그 회사에서 동맹파업이 전개되기도 했다. 적색그룹사건이다. 미혼시절 그 회사에 다녔던 필자의 종조모는 평생 ‘요코상’이라고 불렸다.

그 회사는 오늘날까지도 동일방직(DI동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선인이 만든 방직회사도 있었는데, 1919년 인천 김성수가 설립한 ‘경성방직’이다. 최초의 조선인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다. 경성방직의 설립은 일제강점기가 지속되면서 근대적 기업 활동에 관심을 갖던 일부 대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19년생으로 서구 공촌동에서 태어나 당시 연희동의 서곶보통학교 4년 과정을 1회로 졸업하고 계산동 소재 부평보통학교에서 5,6학년 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한 (故)이은준은 서곶면사무소에서 서기로 근무하다가 1940년경 영등포로 올라가 경성방직에 취직을 했다. 그는 경성방직에서 공무과장과 공장장을 역임했는데, 해방공간에서 우익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6.25전쟁 중 고향인 서구에 내려왔다가 인민재판에 몰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마을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그는 70년대 중반 정년퇴직할 때까지 줄곧 경성방직에서 근무를 했다. ‘대한방직’과 ‘방림방직(판본방직)’은 해방 후 설립된 기업들이다.

송현동에는 요철을 생산하는 회사인 ‘조선아연금속’이 세워졌다. 1941년의 일이다. 해방이 되자 그 회사는 ‘대한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다시 ‘인천제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8년 이후 ‘현대제철’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잠수함을 만들던 기업도 있었다. ‘조선기계제작소’(1937)라는 회사다. 원래 광산용 기계 생산업체로 설립되었는데, 1940년 육군조병창의 의뢰를 받아 잠수함 4척을 건조해 북태

평양으로 진수시켰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이다. 인근에 ‘이천전기’와 ‘한국유리’도 있었다.

건축자재와 합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대성목재의 전신은 1936년에 설립된 ‘조선목재공업’이다. 전후 복구과정에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던 기업 중 하나다. 이 땅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한편 훗날 서구의 산업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인프라로 1925년 개설된 인천-양촌(김포)간 신작로를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서곶로’의 전신이다. 신작로가 개통되면서 비로소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고 버스 노선도 개설되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가정동과 심곡동을 연결하는 ‘싱아고개’ 구간과 산증턱을 깎아서 길을 만든 서곶면사무소 우회로 공사가 가장 어려운 공구였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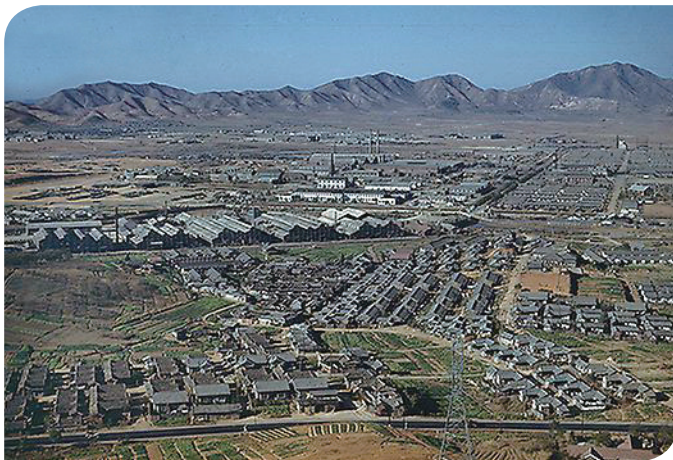
도로는 산업의 대동맥이자 실타래줄이다. 개항 이전 서구의 도로는 수천 년간 우마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었던 호젓한 산길에 불과했다. 19세기 후반까지도 그 길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자주 출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조정은 도로를 넓히려고 하지 않았다. 넓은 도로는 대규모 외적의 침입만 용이하게 할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적이 접근하여 서울 도성을 공격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썼다. 그 대신 곳곳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봉화를 피워 위급함을 릴레이 신호로 재빨리 알려 국왕이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국왕의安危만이 지고지순의 가치였던 시절이었다. 서구 가정동에 ‘봉우재’가 있으며, 백석산에도 봉수대가 있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광기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으면서 군수산업이 호황을 구가하기 시작

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경인선 철도로 연결된 서울 용산과 인천의 개항장 중간에 위치한 주안역과 부평역 주위에 대규모 일본군 병력들이 주둔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평역 인근에 일본 육군 조병창과 미쓰비시같은 군산복합체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만 있으면 조병창이나 철도공작창, 미쓰비시같은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1919년 서구지역에서 태어나 부평보통학교를 졸업한 필자의 당숙인 (故)김광수는 1939년 만석동의 철도공작창에 취업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35년 근무를 하고 1974년도에 55세 정년퇴직을 했다. 한 동네 친구인 (故)이봉주는 일제 말기 부평의 조병창에 들어가 일본육군 보병용 개인화기(99식 소총)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해방직후 미군이 찍은 부평 조병창 전경이다.
멀리 한남정맥 산줄기 너머가 서구지역이다.

일제강점기 후반, 농경사회였던 서구에서는 한 가족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업을 계승하여 농사일에 종사하는 장남 이외에 나머지 형제들은 부평이나 인천의 개항장 인근의 기업에 일자리를 잡지 않은 가정이 드물 정도로 산업화의 영향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8.15해방 이전에 이미 서구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산업화와 사회적 발전에 대한 나름의 꿈과 비전이 생겼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60년대 이후 농경위주의 사회였던 서구의 농민들이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짧은 기간에 산업전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서구 산업의 성장

해방이 되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일제강점기의 질곡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밤중 도둑처럼 들이닥친 해방의 기쁨도 잠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혼란과 이념과잉의 시대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자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일정한 방향으로 굴러갔다.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더 이상 일제강점기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던 산업화의 태동과 진전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어느 정도 개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얼핏 농경위주의 사회였던 서구지역도 겉으로는 변화의 기미를 볼 수 없었고 지극히 평온해 보였지만, 이미 과거의 서곶면이나 검단면이 아니었다.

제1의 물결(The First Wave)

6.25전쟁으로 채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지상과제는 건국이었다. 요컨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 제도를 개혁하고, 균형 잡힌 산업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근대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1946년에는 ‘조선산업건설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민족의 희생과 협조를 통해 조선의 산업을 빠르게 재건하고 통일정권을 수립하자는 강령을 채택했다. 1947년에는 ‘조선산업재건협회’라는 단체가 설립되고 산하에 ‘산업경제연구소’를 두었다. 미군정의 적산 처리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방과 거의 동시에 진주한 ‘점령군’ 미군과의 협업은 물론, 의사의 소통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성대한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이 땅에 주둔했던 미군의 생각을 읽으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이라크와 아프간은 아직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력한 정부수립과 산업화에 성공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였을까? 그 성공의 팔할은 민족공동체 의식과 근대화 열망,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주민들의 산업화 경험이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군인들은 이 땅에 온전히 남아 있던 수십만 명의 패전 일본군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상륙했다.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전까지 ‘군정청’(재

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남한을 통치했다. 군정청은 적산기업의 민간불하, 사회질서의 유지와 독자적인 정부수립 지원을 위하여 인천항을 통해 막대한 구호물자를 반입했다.

당시 미군은 부산항이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인천항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를 수송하기로 결정했다. 미군과 하역 및 수송을 위한 하청계약을 맺고 무장을 한 보안요원을 탑승시켜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미군정 당국의 신뢰를 얻어 큰돈을 번 기업들이 생겨났다. 월미운수와 한진상사 같은 회사들이다. 한진은 이후 베트남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출하여 재벌로 성장했다.

서구의 산업성장 제1의 물결은 미군정청의 적산기업 민간 불하와 재가동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아울러 미군 당국이 반입한 엄청난 양의 미국 구호물자와 함께 밀려왔다.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에 현인이 노래한 대중가요 〈럭키서울〉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땅에 대규모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제2의 물결(The Second Wave)

6.25전쟁이 휴전 협정이라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종식되자, 전선에 나가 젊음을 바쳤던 수많은 이 지역 젊은이들이 귀향을 했다. 군대는 훌륭한 직업학교였다. 이들은 군복무 시절 미군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유엔군과 함께 적군과 싸우며 당시 최첨단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탱크 조작방법은 물론, 불도저 같은 공병의 장비와 통신기기, 수송병과의 차량들을 조작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최첨단(state-of-the-art) 기술력이 집약된 곳이 군사

부문이다. 전쟁의 승패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젊은 인재들에게 양질의 훌륭한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된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천운이었다. 군무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일 자리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6.25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 부지를 인수한 미군은 그 자리에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ASCOM)시티’를 세우면서 부대막사와 각종 시설, 병원 등을 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 건축자재를 주로 공촌천 등 서구의 하천에서 조달했다. 용산의 미 8군기지가 그렇듯이 ‘애스컴 시티’도 미국의 도시 하나를 옮겨다 놓은 것에 가까웠다. 당시 부평지역 가구의 거의 절반은 직간접적으로 미군부대와 관련이 있었다. 미군은 공병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기지를 세우며 부족한 부분은 한국의 기업에 공사 도급을 주었다. 이때 서구와 부평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아나지고개’가 대부분 잘려나가며 도로가 뚫렸다.

서구지역은 미군 군수사령부가 지척에 주둔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장점이 빛을 보던 상황이었다. 대대로 농사만 짓던 집안의 형제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군부대나 이후 생긴 ‘새나라자동차’(한국지엠 전신)같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부평 일대로 몰려들었다. 서구에서도 형제자매들 중 판유리 공장이나, 자동차 회사, 제철소, 직물, 방직 및 염색공장 같은 데 취직하지 않은 집안이 없었다.

그런데 서구는 부평이나 동구의 해안지역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 출퇴근이 가능했다. 농사와 직장 일의 병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구의 수입이 높은 집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군에서 제대를 하고 귀향한 참전 군인들이었는데, 이들 집안은 전후 복구로 어려운 국가 경제상황에서도 해마다 농토를 늘려나갔다. 동네마다 신흥 부자

들이 출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암동 출신 (故)정광근이었다. 그는 부평 미군기지 PX계통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여 거부가 되었다. 검암동에 있던 '고려중학교'를 인수, '인광중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경영을 하기도 했다. 그 학교가 오늘날 '서인천고등학교'다.

제2의 물결은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부대들이 제공한 수많은 일 자리와 전후의 산업복구시대와 함께 밀려왔다.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은 경인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밀려왔다. 구한말 서울과 인천의 개항장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되면서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이른바 '경인공업지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반면, 철도 노선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벗어나 있던 서구지역은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주안염전이 매립되면서 인천의 서구지역도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3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창립되었다. 당시 구로구 구로동의 1개 공업단지(현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와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2개 단지를 시작으로 공단 건설이 추진되었다. 부평의 제4단지는 1965년 착공하여 1969년 완공되었다.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71년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제5단지는 주안의 폐염전지역을 매립하여 조성하였으며, 인근의 제6단지는 1973년 착공하여 1974년에 완공되었다.

제5단지와 제6단지는 과거 '주안갯골'의 양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안국가산업단지'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

60년대 후반까지도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 ‘청기와장례식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안국가산단역’, ‘홈플러스’, 그리고 ‘간석역’을 잇는 구간은 바닷물이 시퍼렇게 드나들던 갯골이었다.

당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입지여건은 경인고속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며 특히 5만 톤급 선박을 포함, 대형 선박 25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천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경인선 전철역 연결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도 어렵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사실 일제강점기 국방도로(1,2)를 활용한 것이다. 안양천을 건너 신월동, 부천 여월동과 까치울(작동)을 거쳐 지금의 부평구와 계양구를 지나던 구간이다. 오늘날 서구와 부평구, 계양구를 나누던, 험준하기로 소문난 ‘아나지개’는 5,60년대부터 부평의 <에스컴시티> 건설에 필요한 전자재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미군 공병대에 의하여 시나브로 잘려나가기 시작하더니 경인고속도로를 만들 때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제4 & 제5의 물결은 『인천 서구의 산업(3)』편에 계속됩니다.)

I

가좌지구 폐염전의 질적 변화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

- 1 서론
- 2 수출공단 유치과정과 부평수출공단 조성
- 3 주안 폐염전의 질적 변화 : 주안공업지구
- 4 수출공단의 강제통합과 주안공업단지의 위기
- 5 결론

박인옥 (경제학 박사 / 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I. 가좌지구 폐염전의 질적 변화 :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

1. 서론

1960년대 한국은 축적된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황, 군사쿠데타 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위기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는 수출주도공업화 정책 전략의 하나로 산업단지 개발을 선택했다. 인천은 부평지구와 주안지구가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6개 산업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었다.¹⁾ 이들 산업단지는 주로 도심 내 산재해 있는 공장을 집단화하여 계열화, 협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이 공업도시로서 급성장하게 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였다.

본 원고는 인천의 성장 축을 이룬 초기 산업단지 중 서구 가좌동 일원에 위치해 있는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제5국가산업단지(일명 주안5공단)의 형성 및 조성 과정을 살피는 데 있다. 산업단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유수면매립이 인천성장의 토대를 이루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초기 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한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역의 토착상공계 등 민간이라는 점, 셋째는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5공단은 각각 별개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60년대 지정된 부평지구와 주안지구에는 부평과 주안수출공단, 3개의 기계공단, 비철금속공단 등 6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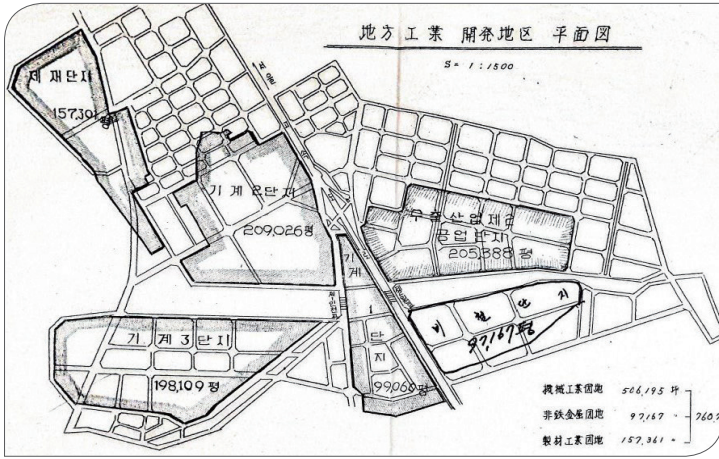
위 세 가지 관점에서 산업단지 조성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한 사회세력들은 누구이고, 산업단지가 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전환되었는지, 국가와 지역 간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등을 추적하고자 한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본래 조성 목적과 관리주체, 공단명칭이 바뀌고, 도시 규모 및 주변환경이 변하면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여 지금은 애폴단지로 취급받고 있지만 인천 성장의 핵심 축을 이룬 공간임은 변하지 않는다.

도시성장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약화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산업단지 형성 및 조성 과정에 대한 연구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인천시는 홈페이지에 산업단지 연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류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최한 부평,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50주년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산업단지에 인천은 없고 국가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가 한다.

우선 개괄적인 인천의 초기 산업단지의 명칭과 입지 위치도 등을 확인해보자. 초기 산업단지의 명칭이 바뀌어 지금과 다르거나 아예 이름이 사라진 공단도 있다. 이런 변화는 산업단지 조성 주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선 가좌동에 입지한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5공단, 인천기계공단의 일부가 포함된 행정구역을 살펴보자. <그림 1>은 1970년 작성된 주안공업지구 위치도이다. 주안제2수출공단(현 주안5공단)과 기계공단(3개), 비철금속공단(현 주안6공단) 위치도와 현 주안공단 위성사진이다. 1969년 제1기계공단 9만 9천여 평, 제2기계공단 20만 9천여 평, 제3기계공단 19만 8천여 평 폐염전 위에 조성되었다. 3개 기계공단 중 제1기계공단을 제외한 제2, 3기계공단 34만 4천여 평이 현재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지칭되어 인천시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1970년 주안공업지구(상)와 2020년 가좌동 공업단지(하)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방공업개발서류철」, 1973 ; 인천광역시지도포탈, 2020

인천지방산업단지는 행정구역 상 동구 송림동을 사이에 두고 서구 가좌동과 미추홀구 도화동에 입지해 있다.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 인천지방산업단지는 1969년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주안염전 약 60여만 평을 대한염업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조성한 민간 산업단지의 일부이다. 일부라 한 것은 처음부터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집단화, 계열화, 협업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조성한 제1기계, 제2기계, 제3기계공단 중 제2, 제3기계공단을 전신으로 한다.

주안공업지구 내 공단조성을 주도한 사회세력들을 살펴보자. 1960년대 국가의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에 따라 재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구로수출공단을 조성하였다. 반면 인천의 산업단지는 토착기업 중심의 인천상공회의소가 주도하여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사)인천비철금속공업공단을 설립 후 조성하였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부평지구와 주안지구에 각각 제1, 2수출공단을 조성하였다.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주안염전을 매립해 3개 기계공단을, (사)인천비철금속공업공단 역시 주안염전을 매립해 비철금속공단을 조성하였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재벌기업과 정부관료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인천은 지역의 토착기업과 지주, 언론, 학계, 정치인 및 행정관료 등 인천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참여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은 긴 시간을 소요하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일교포 기업 유치 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출산업공단과 달리 인천은 도심에 산재한 중소규모업체를 유치,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천의 주체세력들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부지 매입비용 마련도 용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취약성은 국가의 강제 통합 및 일원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는 산업단지 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민간에 의해 조성된 산

업단지를 경영의 합리화와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강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국가는 1971년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한국수출산업공단에 강제 통합하여 부평제1수출공단과 주안제2수출공단을 각각 제4국가수출공단, 제5국가수출공단으로 관리주체는 물론 공단 명칭도 바꾸었다. 1974년 비철금속공단 역시 저조한 공장 유치 실적을 이유로 (사)비철금속공단을 해산하고 제6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였다. 국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좌동에 입지해 있는 제2기계공단을 1973년부터 제7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75년 정부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7번째 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려던 계획은 중단되고, 1976년 제3기계공단을 흡수하여 인천시로 관리 감독권을 이양하면서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재편된다. 3개의 기계공단을 조성한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1978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상공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제1기계공단만을 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1기계공단이 현재 남아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이다.

이상 가좌동과 도화동 일원에 입지해 있는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산업단지 조성과정의 명칭 및 관리주체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산업화 초기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인천의 산업단지 형성과 조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²⁾

2. 수출공단 유치과정과 부평수출공단 조성

1) 수출공단 유치과정

1961년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은 자본축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립경제 달성과 빈곤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재벌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나일론 이원만 회장은 재일교포 전용 수출공단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공업단지를 조성할 기구 설립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재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인협회(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수출산업촉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사)한국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하여 구로지구와 부평지구를 수출공단 예정지로 발표하게 된다. (<그림 2>)



<그림 2> 구로, 부평지구 수출공단 예정지 발표

출처 : 동아일보, 1963.6.24

이 보도는 인천 상공계가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3년 7월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덕근)가 공단 유치를 주요사업으로 결정하고 정부 각 부처에 수출공단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8월에는 경기도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장 강한성은 1963년 8월 수출공단을 부평지구에 유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공장 부지로 사용할 부지의 가격과 경작자 동향 등을 인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는 수출공단 유치 보도 직후인 1963년 5월 28일 발족하여 부평수출공단 유치를 위해 부평진흥회 등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는 부평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평지역 유치들로 구성된 금요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1963.9.13) 그들은 수출공단 유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수출공단 유치에 필요한 동력을 이끌어내고자 그해 11월 명칭을 부평진흥회로 변경하여 수출공단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³⁾

인천상공회의소와 부평지역의 움직임은 정부의 무임소장관실이 작성한 ‘수출산업공업단지 육성을 위한 방안’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무임소장관실 보고서는 공업단지 용지확보와 관련해 구로지구를 제1공업단지로, 인천부평지구를 제2공업단지로 설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1963.8.19)

그러나 인천상공회의소와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경기도지사 등이 정부 주요 부처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 수출공단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건설부(1964.3.5., 건계지 121.2-62)와 상공부(1964.3.6., 상일공 134.2-307), 대통령 비서실(1964.3.10.) 등 정부부처는 구로지역이 수출공단 예정지역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을 뿐 부평지구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부평지구를 수출공단 예정지로 결정하지 못한 배경에는 재원확보 및 조성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로지구는 이원만 한국나일론 회장의 제안을 박정희 의장이 받아들여 적극적인 지원 하에 조성되었다. 반면에 인천의 수출공단 조성은 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조성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이 인천은 유승원, 오학진 등 국회의원,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 등이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공업단지조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평지구를 수출공단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표 1〉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공업단지조성분과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위원	김영배	일신화학공업(주)
위원	심현구	한국피혁공업(주)		김두영	경기교통(주)
	용이식	한국화공(주)		윤종구	송의직물공업
	김중하	대한연공업(주)		김정욱	형제상회
	김경원	경원기업(주)		김용해	도시관광(주)
	홍순항	경기도산업국장		김영길	인천시도시계획위원

인천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과 언론의 지지 및 노력 끝에 1965년 3월 수출산업촉진위원회 공단심의위원회는 부평지구를 공단 후보지로 지정하였다. 그해 5월 인천상공회의소 등은 1965년 6월 2일 인천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성회를 구성, 수출공단 조성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2) 부평공단 부지변경(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과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건설부가 1965년 6월 수출공단 후보지로 효성동, 갈산동, 작전동 일대 21만여 평을 지정 공고하면서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는 그해 10월 사단법인체로서 인천수출산업공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곧 이어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상공부로부터 1965년 11월 승인을 받아 용지매입 및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평지구에 수출공단 유치를 전제로 추진했던 실행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인천시가 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수출공단 부지를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1966년 1월 19일 윤갑노 인천시장의 한국수출공단과 경기도와 물밑 협의를 하여 22일 수출공단 부지를 서곶지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림 3>) 서곶지구는 32만 평 중 약 42% 매립을 완료하여 부평지구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었다. 서곶지구에 수출공단을 조성할 경우 평당 534원의 매입비를 부담하는 반면 부평지구는 2배인 105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이유였다. 수출공단 조성은 애초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어서 부지 매입비 및 조성을 위한 자원 마련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발표에 부평수출공단 유치에 공을 들인 부평진흥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진흥회의 반발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고, 부족한 부지 매입비를 부평진흥회가 모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서곶지구 변경 논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림 3>)



〈그림 3〉 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부지 변경(좌)과 번복

출처 : 인천신문. 1966.1.22 ; 1966.2.11

부평지구에 수출공단을 조성하기로 다시 결정되자 이번에는 서곶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서곶주민들은 1966년 2월 17일 석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결의하였다. 이들은 ‘농토는 농민에게, 공장부지는 공유수면매립지에’를 주장하며 서곶지구에 수출공단을 유치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였다.⁴⁾ 하지만 계획된 집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산되었다.

수출공단 부지선정이 부평지구로 결정되자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66년 2월 경기도청에 두었던 사무실을 인천상공회의소로 옮겼다. 사무실 이전은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단조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용이한 동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평지구의 수출공단 조성은 총 21만여 평 부지에 국고보조 5천만원, 장기차입 1억 원, 자기자본 1천만 원 등 총투자소요액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40여 개 공장 유치 계획을 세웠다. 효성동, 갈산동, 작전동 일대 조성부지는 국유지 1만 5천여 평(7.2%), 도유지 3만 3천여

평(15.7%), 사유지 16만 4천여 평(77.1%)으로 구성되었다. 사유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평지구의 부지 특성에 대해 국회 서상민 의원은(1964.2.25 국무회의) “구로지역이 군용지역인 반면에 부평 지역은 민간용지, 귀속재산으로 구성되어 공단조성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제1후보지”라 하였다. 부평의 향토 사학자인 조기준 전 부평문화원장은 “북구발전의 열망이 토지의 매각 및 보상절차를 순조롭고 신속하게 처리” 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드디어 1966년 4월 8일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인천시민을 비롯해 부평지역 유지, 미8군, 국회의원, 시장, 상공인 등이 참석하는 부평 제1수출공단 기공식을 갖고, 재일교포 기업 유치를 위해 채호 이사장 등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그림 4>)



<그림 4> 부평수출공단 기공식(좌)과 발파순간(우)

출처 : 인천신문, 1966.4.8 ; (사)인천수출산업공단 홍보지(발간 시기 불명)

부지정지작업은 미8군의 장비와 실업자를 동원하였다. 동원된 노동자 임금 미지급,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 재원 확보 어려움 등이 존재하였지만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정된 준공을 1년 연기하여 1969년 준공하기에 이른다.

부평공단은 현재 제4국가산업단지(일명 제4공단)로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인천시 관리권을 벗어난 상태다. 그럼에도 조성된 지 50년이 된 제4공단의 열악한 입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래 <그림 5>는 1971년 한국 수출산업공단에 강제 통합된 직후 1972년과 현재의 모습이다.



<그림 5> 1972년 부평공단(좌)과 현재 공단 모습

출처 : 국가기록원, DET0020668 ; 부평구청 홈페이지

3. 주안 폐업전의 질적 변화 : 주안공업지구

1) 가좌지구 주안제2수출공단

아래 <그림 6>은 2020년 위성으로 촬영한 가좌동 현 주안공업지구이다. 주안공업지구는 행정구역 상 서구 가좌동, 동구 송림동, 미추홀구 도화동과 주안동에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림 6〉 인천시 서구 가좌지역 공업단지 위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면 현재 서구 가좌동에는 인천지방산업단지(구 인천제2기계공단)의 일부, 주안제5국가산업단지(구 주안제2수출공단), 인천기계산업단지(구 인천제1기계공단)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도화동에는 인천기계산업단지 일부(구 인천제1기계공단)와 인천지방산업단지 일부(구 인천제3기계공단), 주안동에는 제6국가산업단지(구 인천비철금속공단)가 입지하여 전체적으로 주안공업지구는 세 개의 행정구역에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초기 조성 당시부터 수도, 전기, 전화, 배수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 및 조성 주체로 구분하면 주안공업지구는 민간산업단지로 출발하였다. 당시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사)인천비철금속공업공단이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지만 지금은 공단의 관리 및 주체가 바뀌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표 2〉)

〈표 2〉 주안공업단지 명칭 변화

기존 명칭	변경된 명칭	행정구역
주안제2수출공업단지	주안제5국가산업단지	가좌동
비철금속공업단지	주안제6국가산업단지	주안동
제2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가좌동
제3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도화동
제1기계공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도화동, 가좌동

‘주안제5국가산업단지’는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조성한 ‘주안제2수출공단’을, ‘주안제6국가산업단지’는 (사)인천비철금속공단이 조성한 비철금속공단을 국가가 흡수하여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조성한 제2기계공단과 제3기계공단을 통합하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다. 제1기계공단만이 유일하게 민간산업단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의 사회세력들이 주도하여 조성한 공업단지가 어떻게 국가에 의해 흡수되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66년 부평제1수출공단 기공식 후 준공도 하기 전 인천시로부터 주안 폐염전을 매입하여 제2수출공단 조성을 제안 받는다. 소금 생산 기능을 상실한 대한염업공사 소유 150여만 평의 폐염전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염업공사는 염수급 실패로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정부가 주안염전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부평지구 유치 및 조성 경험을 살려 폐염전을 매입해 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임해공업지구로서 부평수출공단과 함께 인천의 산업화 핵심 동력으로 완결성을 갖는 것이었다. 주안공업지구는 인천의 토착세력들이 다시 한번 조직을 구성하여 5개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폐염전 매립으로 질적 변화를 맞게 된다.

5개 공업단지는 단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여타 지역의 개발사업과 비교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계획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20여만 평의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 경험도 있지만 지역경제 성장이 곧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지역 내 상공계의 열망과 기대가 그만큼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다.

부평제1수출공단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67년 주안공업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대한염업공사와 주안염전 매각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인천시는 대한염업공사로부터 폐염전을 일괄매수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중소기업도 66여 개 국내외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1967년 2월 기공식부터 열었다. (<그림 7>)



〈그림 7〉 주안수출공단 기공식

출처 : 인천신문, 1967.6.2 ; 매일경제, 1967.6.2

그 사이 인천시장은 윤갑노에서 김해두로 바뀌었다. 주안공업지구 조성에 대해 당시 김해두 인천시장은 입주기업체는 설비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세수입 증대와 공업의 지방 분산,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⁵⁾ 특히 도심에 산재하여 공해 및 소음으로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있는 공장을 집단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인천시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염전 부지 51만 평(86%), 농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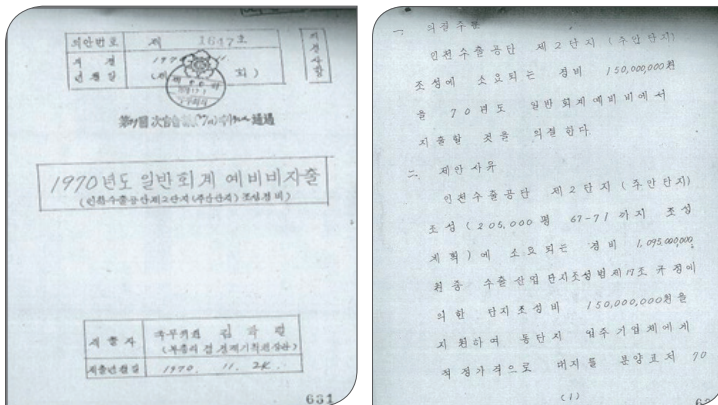
8만 평(12.2%), 수로 1만 평(1.8%) 등 총 60만 평에 용지 매수 1억 8천만 원, 부지조성비 1억 9천8백만 원, 하수도시설 6천만 원, 가로포장 1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경공업지구와 중공업지구로 구분하여 1967년에서 1969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⁶⁾

그러나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주안공업지구 조성사업은 기공식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하였다. 하나는 국가와 지역 내 의제를 다루는 정치적 갈등, 또 다른 하나는 대한염업과의 염전부지 매각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 두 요인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인천이 공업단지 조성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적 이해는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부평제1수출공단과 마찬가지로 주안공업지구는 애초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인천시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출발하였지만 정부는 국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재벌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성된 구로수출공단과 달리 부평수출공단이나 주안수출공단 건설은 애초 민간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인천시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67년 열악한 재정상황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주안공업지구 건설 기공식부터 강행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경제자립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열망과 요구가 지역적 이해를 넘어설 만큼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공업단지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기공식부터 한 것이었다.

이러한 매일수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천시는 공단 조성 계획 집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인천시장의 역할은 단지 인허가 단계의 행정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상공계와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단 조성의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서 1970년 일반회계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 지원이 결정되어 수출공단 조성은 탄력을 받게 된다. (<그림 8>)



〈그림 8〉 정부의 주안공업지구 재정지원 결정

출처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 안건철, BG0000711

두 번째 주안공업지구 개발사업이 기공식 후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대한염업의 염전부지 매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정부가 경영적 자에 허덕이던 대한염업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던 중 인천시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150만 평의 염전부지를 일괄매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대한염업공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일괄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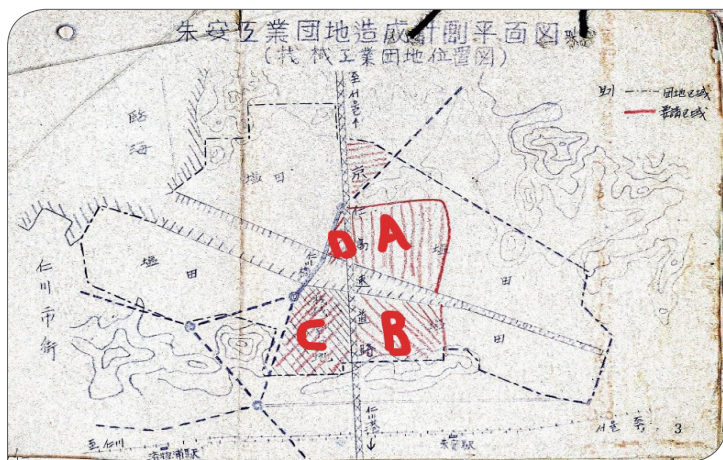
폐염전 일괄매입을 원하는 대한염업공사의 기대와 달리 규모가 큰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은 인천시나 상공계 모두 재정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염생산자 실직문제, 지가 상승, 그리고 지상물 철거 및 보상비 협상의 어려움, 공단조성 부지 내 분묘 18기 이전 문제 등을 해결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일괄매각은 유찰을 거듭했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대한염업과 분할매각하는 방향으로 다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68년 가좌동 일대 주안제2수출공단, 가좌동과 도화동 일대 기계공단 3개, 주안동 일대 비철금속공단 조성 염전부지를 1천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선분양 후개발’로 인천시로서는 외상으로 땅을 사서 민간에 부지매입비를 떠넘기는 셈이었다.

1967년 주안수출공단 기공식 이후 중단된 조성공사는 1968년 폐염전 분할매각 방식이 합의에 이르자 동시다발적으로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인천시의 의뢰로 1968년 11월 (주)진도종합설계가 주안공단 조성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안임해공업지역기본조사 과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1969년 3개년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에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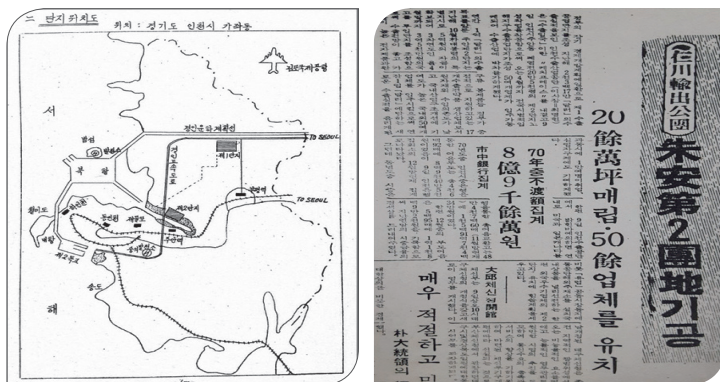
아래 <그림 9>는 1969년 주안 폐염전 60만 평 공장부지(점선)와 우선 요청한 부지 40여만 평(붉은색) 평면도이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천교가 행정경계를 이루고 있다. 가좌동 주안제2수출공단(A), 주안동 비철금속공단(B), 도화동과 가좌동 제1기계공단(C, D) 부지를 분양하고 매립사업에 들어간다.



〈그림 9〉 주안공업단지조성계획 평면도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 1969, 「공업단지관계서류」

A지구 주안제2수출공단은 대한염업이 소유한 19만 3천 평(94%) 외에 사유지 1만 2천 평(6%) 등 총 20만 5천 평으로 1969년부터 40-70개 국내의 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 1970년 2차수정계획이 마련되었고,⁷⁾ 그해 11월 정부가 1억 5천만 원을 일반회계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자 1971년 1월 10일 기공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 (〈그림 10〉)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주안제2수출공단 기공식을 두 번 치른 셈이다.



〈그림 10〉 주안제2수출공단 2차 수정계획 및 공사 재개

출처 : 인천수출산업공단, 1970, 「주안제2단지2차수정개발계획」; 인천상의보, 1971.1.10

2)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설립과 3개의 기계공단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주안공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염전부지를 평당 1천 원에 분할매입하기로 협의하여 20여만 평의 주안제2수출공단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계공단(〈그림 9〉 C, D지구)과 비철금속공단(〈그림 9〉 B지구) 조성 타당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방적 및 섬유공업과 기계금속공업이 인천의 산업을 주도하였다면 1960년대는 식료품, 기계 및 1차 금속, 화학, 제재 및 목재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기계 및 금속 공업은 도심에 혼재되어 공해 및 소음 등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화의 필요성을 크게 하였다. 설비 및 규모 면에서 인천의 기계공업은 소비재 경공업부문에 집중되어 공작기계, 정밀기구 등 생산재 생산부분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난로, 볼트, 너트, 자전거 부품, 라이터, 자물쇠, 제봉기, 철도 부품 등 단순 부품 생산 및 부품의 조립 및 가공산업, 선박수리 공업 등 자본규모가 작은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한중공업, 조선기계제작소, 이천전기, 대한전선 등 자본 규모가 큰 기업과 한국강업, 조선철강, 대동철강, 인천철강 등 4개 공장이 전국 철강생산의 40%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기계금속 및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때문에 도시에 산재한 기계업종을 집단화할 경우 자본규모가 큰 업종과 계열화 및 협업화로 전문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자본규모가 큰 업종과 자본규모가 작은 업종 간 협업화 및 계열화, 그리고 전문화를 위해 집단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인천상공회의소는 공단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1968년 11월 인천상공회의소 김재길 사무국장과 이한삼 진흥과장이 기계공단 조성을 위한 여론 조사를 하고,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대한염업공사 고문 한광수, 총무부장 등과 함께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장만순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길 사무국장이 1969년까지 가좌동과 도화동 폐염전 부지 10만 평을 매입하여 수도 및 전기 공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⁸⁾ 1968년 12월 2일 이들은 공단 발기인을 구성하고 입주 희망자 모집을 합의한 후 12월 5일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단 설립 발기인 회장으로 결정, 12월 10일 인천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가칭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설립 기성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인천기계공단 기성회는 입주 자격을 인천 도시에 산재한 중소기업 공업체로 제한하여 민간 주도의 특화된 공단 조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1969년 1월 17일 4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체 발족을 결의하고, 1969년 2월 8일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창립총회를 개최하

였다. 아래 <표 3>은 기성회에서 사단법인체로 발족하며 선출된 임원 명단이다. 이사회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기계공업 부문의 토착기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1개의 기계공단으로 그치지 않고 도화동과 가좌동에 2개를 추가하여 기계공단 조성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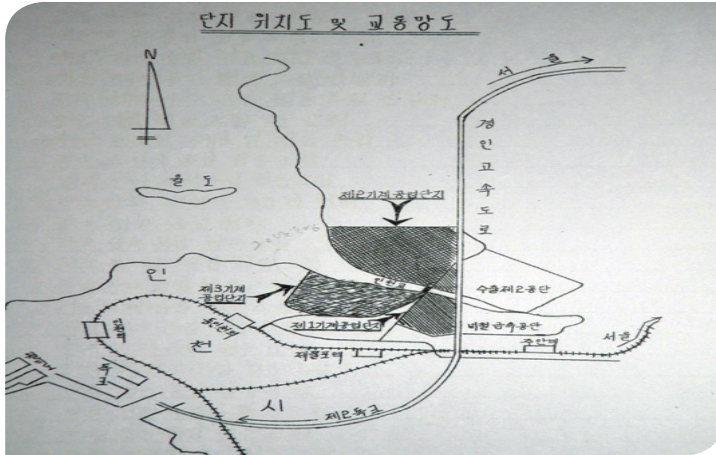
〈표 3〉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임원 (1969.2.8)

구분	이름	소속
고문	유승원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봉진	경기도 지사
	김해두	인천시장
	채 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장	김재길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사	김재순	해안정밀기계공작소
	장만순	인천기계제작소
	임흥업	제일신철합자회사
	홍승기	삼화철공소
	김성성	오르강미싱제조상사
	안희점	재건공업사
	구자호	삼성철물공업사
	김병두	만화주물주식회사
	장범진	인천강업합자회사
	박준근	경인조선철공소
감사	이봉운	제물포철공소
	오대균	인천전기제작소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1969, 「인천기계공업공단 연혁철」

아래 <그림 11>은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 3개 기계공단 위치도이다. 3개의 기계공단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공간이 아니라 인천교를 사이에 두고 북항과 인접한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도화동을 경계로 설계되었다. 주안공업지구는 염전매립지 이긴 하지만 공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처리가 용이하고 육해공 수송이 편리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 기계공단조성을 자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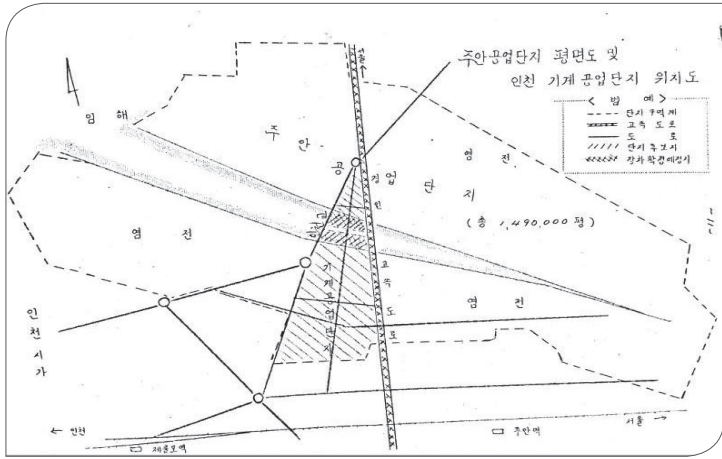
〈그림 11〉 주안공업지구 기계공단 위치도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1969, 「인천기계공단조성계획」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주안공업지구 내 기계공단 부지로 대한염업공사와 염전부지 매입비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1기계공단 10만 평, 제2기계공단 20만 9천여 평, 제3기계공단 19만 8천여 평, 비철금속공단 10만 평 부지를 선정하였다.

(1) 도화지구 제1기계공단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1969년 주안공업지구 내 계획된 3개 기계공단 중 우선 인천교를 사이에 두고 도화동과 가좌동에 제1기계공단 입지를 결정하였다. (〈그림 12〉)



〈그림 12〉 인천제1기계공업단지 위치도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1969, 「인천기계공업단지 조성계획」

제1기계공단은 지역 내 60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입주업체를 모집하였다. 입주대상 자격은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수출 및 수출전환 업체, 공해 업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업체, 시설 확장을 필요로 하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즉 인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계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인천기계공단에 입주예정인 공장 신청서는 받았지만 대한염업공사와 염전 부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수차에 걸친 논란과 협의 끝에 대한염업공사가 제시한 평당 가격 1천5백원에서 평당 1천 원으로 최종 합의를 보게 된다.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1968년 대한염업공사의 일괄매각 방식이 일반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후 분할매각에 합의하여 개별 부지매입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립도 하지 않은 염전부지 매입가격을 1천 원에 합의했으며 선분양을 해야 매립을 하고 공장부지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입주예정업체들이 분양받을 부지는 3천2백 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등 업체 이탈이 발생하였다. 1969년 총 소요자금 3억여 원 중 자기자금 1억 1천여만 원, 융자금 4천여만 원, 보조금 1억 5천여만 원으로 50% 이상을 외부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⁹⁾ 중소 규모공장의 입주는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자금 능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래 <표 4>는 1971년 인천기계공단 입주신청 명단이지만 예정된 공장건설과 입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4〉 인천기계공업공단 제1단지 입주예정 업체명 (1971)

업체명	생산품목	공장건설시기	업체명	생산품목	공장건설시기
건설모형공작소	각종모형	1971.10	선미사	라이트	1971.8
경인조선철공소	선박수리기계	1971.9	세기주철(주)	각종주물	1971.10
경일신철공업(주)	평철, 환철	1970.11	신성공작소	각종철도레우부속	1972.2
공신넛트제작소	철판넛트	1973.4	여흥주물공장	화구부속물	1973.3
금성신철(주)	각종압연	1970.8	영신철공소	탱크 및 화학기구	1971.5
금성공작소	각종제관	1971.10	영진금속공업사	각종주물	1970.2
대창주물공장	각종주물	1971.5	영창금속공업사	압연	1970.4
대동공작소	요업용볼밀	1971.2	오르강미성제조상사	재봉기	1970.9
대륙기공사	각종기계부속	1972.5	용일공작소	각종기계 및 금형	1971.8
대영공작소	각종보도넛트	1971.8	이화철공소	화학공업용기계	1971.10
대인기계제작소	각종기어	1971.6	인일공작소	도량형기계작수리	1971.8
대한열공업사	저압오일바나	1971.5	인천강업합자회사	각종산철	1971.3
대한제침공업(주)	봉침	1970.6	인천기계제작소	무반변속, 각종기계	1970.10
대흥볼트공업사	각종본도넛트	1971.9	인천전기제작소	변압기 모터	1971.8
대흥주물공장	선박주물	1971.3	인천정밀사	재봉기부속	1971.10
동양신철공장	각종주물	1973.5	인천제침공장	봉침	1970.8
동인신철(주)	각종산철	1971.5	일신화학기계제작소	철도기계부속	1971.9
동일공업사	샷수제작	1971.10	제물포조기조성공사	선박엔진수리	1971.3
동일공업사	각종기계바킹	1970.5	제일산철합자회사	각종주물	1971.3
동화기공사	후로아힌지도아체크	1972.4	창덕기공사	각종주물	1970.9
만화주물(주)	각종주물	1969.10	칠복기계제작소	선박기계수리	1974.3
삼성주물공업사	각종주물	1971.3	태흥공업사	볼트, 너트	1971.10
삼양공업사	근로 및 난로부속	1971.8	포항공작소	각종기계부속	1971.10
삼양기계제작소	각종노즐가스켓	1971.7	해안정밀기계제작소	연탄기제작, 윤전기	1970.9
삼우철공소	선박기계수리	1972.3	흥진공업사	각종체인	1974.5
삼정철공소	각종기계수리	1971.8			
삼화제정공장	양침	1975.8	총 52개 업체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1971.2.12 사무인계서

주) 1969년 입주신청업체 중 14개 공장이 입주를 취소하고, 1972년에는 6개 공장이 입주 취소하였다

(2) 가좌지구 제2기계공단, 도화지구 제3기계공단

제1기계공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1970년 가좌동에 20만 9천 평 염전을 매입하여 제2기계공단을, 도화동에 19만 8천여 평의 제3기계공단을 동시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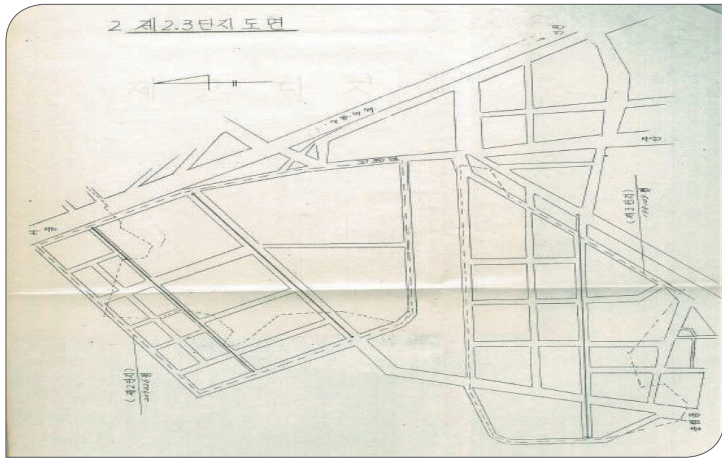
〈그림 13〉 제2기계공단 발주

출처 : 인천상익보, 1970.4.10

제3기계공단 조성계획

출처 : 인천상익보, 1970.5.10

아래 〈그림 14〉는 가좌지구의 제2기계공단과 도화지구의 제3기계공단의 공장 입지 위치도이다. 공단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의 신청 면적 역시 커 1개 기업이 3천 평 이상 분양받았다.



〈그림 14〉 인천제2, 제3기계공단 공장입지 위치도

출처 : 인천시, 주안염전(제2,3단지)공업지구조성계획, 1970

두 개의 기계공단은 1기계공단과 마찬가지로 평당 1천 원에 염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 분양 후 개발’ 방식으로 평당 3천4백 원에 분양을 하였다.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부지 분양 후 입주예정 기업의 정착에 필요한 융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우선 가좌동의 제2기계공단은 1970년에서 1971년까지 인천 및 서울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공업 12개 업체를 집단화하여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제2기계공단 자금 수급 계획을 보면 아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7억 원이 넘어 제1기계공단보다 비용 부담이 큰 편이었다.

〈표 5〉 인천기계공업공단 제2단지 자금수급계획

(단위: 원)

일자	체비지대	토지대	계
1970.6.16	62,707,400	-	62,707,400
1970.7.10	-	161,995,150	161,995,150
1970.9.10	24,456,300	137,538,850	161,995,150
1970.12.10	161,995,150	-	161,995,150
1971.2.28	161,995,150	-	161,995,150
계	411,154,000	299,534,000	710,688,000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단지조성사업관계철」, 1970.7.22 ; 1970.9.12

그럼에도 제2기계공단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자금 규모가 비교적 큰 기계공업체들이 입주 신청을 하였다. 아래 〈표 6〉은 1973년 이사회에 보고된 제2기계공단 입주업체 명단이다. 초기 12개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10개 공장 입주가 결정된다. 일신제강이 가장 큰 부지를 분양받아 7만 4천여 평, 영창악기 2만 4천여 평, 동양석판 1만 5천여 평, 협신볼트와 신한공기, 미아산업이 각각 4천여 평, 이외 다른 공장은 1천 평에서 1천5백 평을 분양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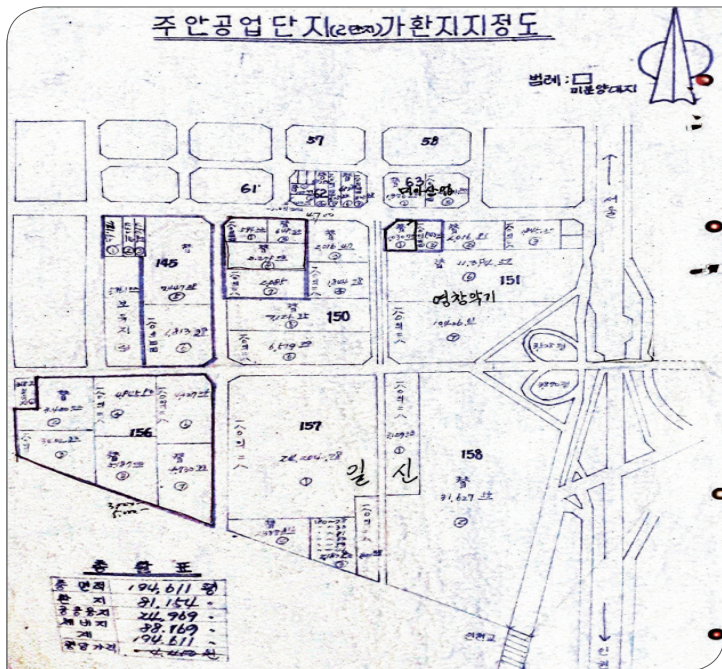
〈표 6〉 인천기계공업공단 제2단지 입주예정 업체명 (1973)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목	주소	공장건설시기
일신산업주식회사	주창균	강괴, 신철	서울	1971.8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김재섭	파아노, 각종악기	서울	1971.9
신한공기주식회사	정경모	수도, 가스미터	서울	-
주식회사협신볼트	이상익	볼트, 너트	서울	-
미아산업주식회사	장수근	직버회로	인천	1971.10
영진실업주식회사	임희순	상수도배관	서울	1971.9
남강공업사	양승철	양정, 효순선	인천	1972.8
대인철공소	정규원	석판, 강판	인천	1973.3
동양석판공업주식회사	손열호	석판, 강판	서울	1971.7
주식회사 아주신철	-	사슈바, 앵글평철	서울	1971.8
총 10개 업체				

출처 :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제2단지관계철, 1973

주) 아주신철이 입주를 취소하여 총 9개 업체가 입주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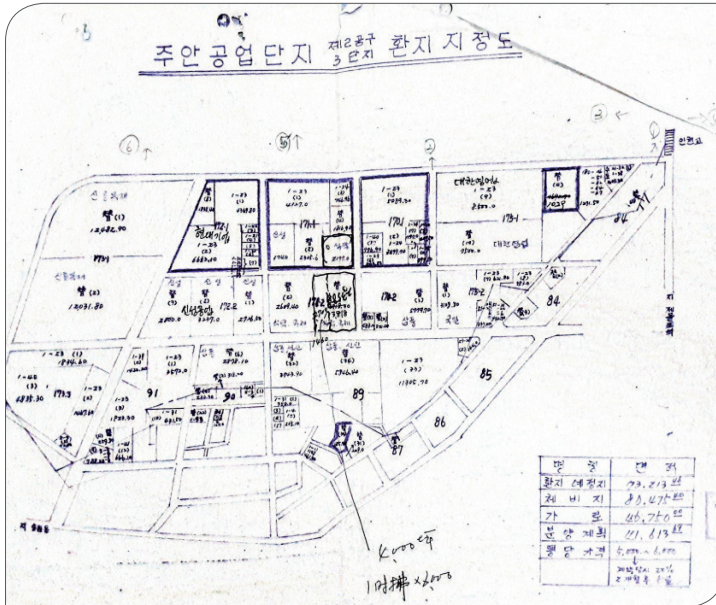
입주 기업이 결정되었지만 기업의 공장 건설은 개별 기업의 자금 사정, 공단 내 전기, 전화, 수도,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대금 및 용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었다. 인천시에 체비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천시,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입주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신, 동양, 협신, 신한, 남강, 대인 등 6개 공장은 어음으로 이미 체비지 대금을 인천시에 완납하여 정식계약이 가능하였다. 어음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갈등 요인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천시는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



〈그림 15〉 인천기계2단지 환지지정도

출처: 인천상공회의소, 「지방공업개발서류철」, 1971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19만여 평의 제3기계단지는 업종과 지역에 제한 없이 입주신청을 받았다. 평당 4천50원으로 40개 업체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은 아래 <그림 16>의 환지지정 위치도 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림 16> 인천기계3단지 환지지정도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방공업개발서류철」, 1971

4. 수출공단의 강제통합과 주안공업단지의 위기

1) 수출공단의 위기

주안제2수출공단의 위기는 부평제1수출공단의 위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1969년 3개의 기계공단과 비철금속공단 조성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평제1수출공단도 준공을 하였다. 부평제1수출공단은 비록 재일교포 입주업체 유치가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1968년 국내외 50개 유치계획 중 29개 업체(교포 6개 포함)가 지정되고 13개 업체가 상공부의 심사를 기다렸다. 1970년 국내 신청기업 59개 중 22개 업체가 입주를 취소하거나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1971년 52개 국내의 업체가 확정된다.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조업단축 및 휴업사태가 속출하며 도산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부평제1수출공단은 수출실적을 차분히 쌓아나갔다. 부평제1수출공단은 1969년 수출목표 500만 달러를 초과하여 703만 달러 실적을 올렸다. 1970년 47개 중 20개 업체 가동에 4만6천 명 노동자 고용 창출, 수출목표 1천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약 2천3백 만 달러를 달성했다. 1970년 부평공단의 수출실적은 그해 인천 전체 수출실적 5천9백60만 달러의 약 40%를 차지하여 1971년 3천만 달러 수출목표를 낙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표 7>)

이처럼 부평제1수출공단은 항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과 값싼 노동력 공급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었다. 주안제2수출공단 조성이 마무리될 경우 협업화, 계열화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1971년 주안제2수출공단 기공식 후 1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였고, 8개 업체 가계약, 반도상사 등 4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신청하는 등 기업의 입주신청이 늘어나고 있었다.

〈표 7〉 인천의 수출실적

(단위 : 천불)

연도	업체수	목표(A)	실적(B)	비율(B/A)	수출	군납
1966	19	12,280	12,320	100.3	12,320	-
1967	23	16,312	17,532	107.5	17,532	-
1968	15	26,368	24,532	91.6	20,203	3,950
1969	48	34,631	33,550	96.9	28,513	5,037
1970	80	44,536	59,643	133.9	54,544	5,099
1971	91	67,640	91,379	135.0	83,997	7,382

자료 : 인천시, 『인천시정백서』, 1971

그러나 부평제1수출공단의 3천만 불 수출실적 목표를 눈앞에 둔 1971년 11월 2일 상공부 이낙성 장관이 부평공단 관리기구인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사장 김인식)과 구로공단 관리기구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최명현)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¹⁰⁾ 상공부의 수출공단 통합 방침은 부실기업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수출공단의 경영합리화와 경비절감을 위해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1971년 11월 16일 해체하고 17일 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 통합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결정하여 11월 4일 수출공단 합병명령을 시달렸다. 상공부는 정부의 승인사항에 대해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의 인수 자산이 등기 이전에 일어난 사안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속히 이행하라는 내용과 함께 통합계약서(안)까지 작성해 놓았다. 그리고 11월 5일 한국수출공단과 인천수출공단의 통합방침을 경제각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였다.¹¹⁾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부의 (사)인천수출산업공단 강제 흡수, 통합은 이미 상공부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짜 놓은 각본을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공부의 공문을 받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방침에 인천 상공계와 함께 거세게 반발하였다. 구로수출공단이 국

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재벌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것과 달리 부평과 주안수출공단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상공계와 언론, 지주, 농민, 학계, 행정 등이 결합하여 민간차원에서 추진한 것임에도 국가가 강제로 통합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원화된 수출공단 조성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였다.¹²⁾ 국가의 경영합리화 및 경비절감은 형식적인 통합 명분일 뿐 군사정권과 재벌기업의 정치적 힘의 지배논리가 작동한 것이었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조성 중에 있던 부평수출공단과 주안수출공단이 한국수출산업공단에 강제로 흡수, 통합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였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11월 16일 올림포스 호텔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인천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강경 대응을 결의하였다.¹³⁾ 그러나 양 수출공단의 통합방침은 이미 정부 각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대책위원회는 6개 항목의 조건부 통합에 따른 해체 안을 의결하고, 24일 통합 총회에 합의하여 설립 7년 만에 해체수순을 밟게 된다.¹⁴⁾

하지만 통합계약은 불공정한 것이었다. 불공정한 통합계약안은 한국수출공단이 전국의 공단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러한 상황은 통합총회가 있는 24일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우선 양 공단의 통합 총회는 정관개정 사항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선임에 관해 7인 전형위원회를 구성, 의안을 위원회에 위임 처리하고 각각 10명의 이사와 감사 1인을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수출공단의 명칭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요구한 '경인수출산업공단'이 아닌 '한국수출산업공단' 명칭을 논란 끝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대신 인천에 출장소를 두기로 합의하면서 통합 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림 17〉 수출공단 강제 통합과 인천수출산업공단 해산

출처 : 『매일경제』, 1971.11.22 ; 『경매일신문』, 1971.11.25

그러나 총회 개최 직후 양 공단이 진행방식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요구한 통합총회가 아닌 제10회 임시총회로 진행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통합총회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의도한 제10회 임시총회로 강행되면서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설립 7년 만에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후 부평제1수출공단은 제4국가수출공단으로, 주안제2수출공단은 제5국가수출공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한국수출산업공단이 관리 주체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경영 합리화를 명분으로 상공부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강제한 양 공단의 통합은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 외견상 적자경영 개선과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통합방침이지만 그 이면에는 박정희 등 쿠데타 세력의 권력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컸다.

수출공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공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적자운영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사회가 송석하 이사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물색했다.¹⁵⁾ 후임으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최명현¹⁶⁾이 1971년 3월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으로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 자리를 옮겼다. 최명현은 전임 채호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

로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최명현의 후임으로 김인식¹⁷⁾이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최명현, 김인식 두 이사장의 상공부 승인 직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군부세력의 정치적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최명현 이사장이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자리를 옮긴지 8개월 만에 상공부가 양 공단의 통합을 결정하고, 김인식 이사장이 이사회사 입주업체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통합 결정에 합의한 행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인천의 토착상공인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체이다. 출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양 공단의 강제 통합 사건은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들이 부평수출공단 유치를 성공시킨 지역의 다양한 이해세력들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군부 엘리트들이 주도한 인천수출산업공단과 한국수출산업공단 통합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는 수출공단 통합을 위해 상공부 산하에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 전국의 수출공단을 일원화하게 된다.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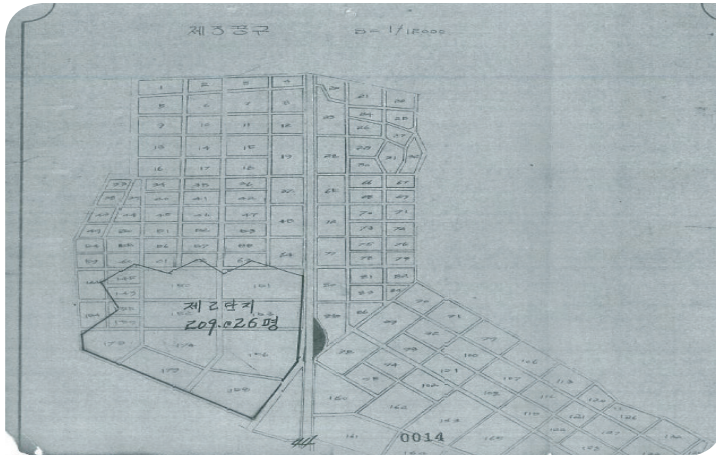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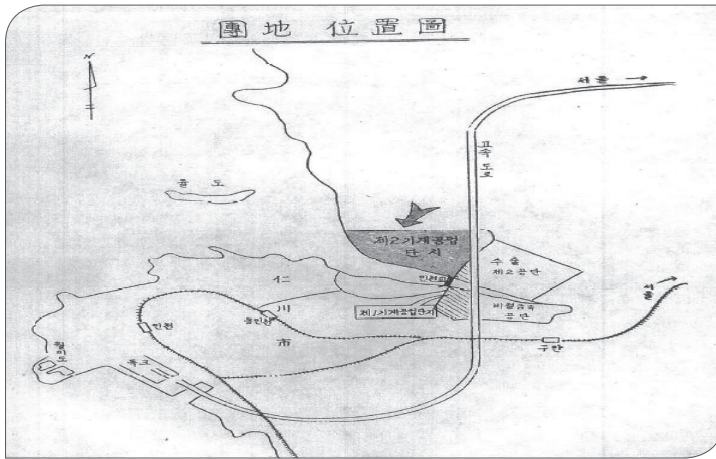


<그림 18> 공단청 신설 검토(좌)와 수출공단 일원화(우)

출처 : 매일경제, 1971.11.22 ; 1972.3.7

2) 제2기계공단의 위기

현 가좌동 폐염전 20만 9천여 평에 조성된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1970년 6월 2개년 계획으로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업체 12개 유치 목표 중 9개 공장을 유치하여 조성한 제2기계공단을 전신으로 한다.



〈그림 19〉 제2기계공단 위치도

출처 : 국가기록원, 체비지매매계약서철, BA0604607

제2기제공단은 제1기제공단에 비해 부지 면적이 2배 이상 넓어 입주 공장의 분양면적도 넓었다. 일신제강은 3만 5천여 평으로 가장 넓은 부지를 분양받았고, 영창약기는 1만 1천여 평, 동양석판이 7천 1백여 평, 신한공기와 협신볼트는 각각 2천여 평 이상을 분양받았다.

분양면적이 넓은 만큼 체비지 매수 가격도 높아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입주예정 공장 모두 용자금을 받아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매립공사가 거의 완료된 1971년 인천시는 (사)인천기계공업공단에 체비지 대금 및 잔여 체비지 매수 완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인천시와 (사)인천기계공업공단, 그리고 제2기제공단 입주 기업 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기업은 영창약기였다. 영창약기의 체비지 대금 미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것이다. 영창약기는 기반시설 미비를 문제 삼아 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와 (사)인천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대금 납부 독촉을 받아왔다.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1972년 2월 인천은행으로부터 2천6백여만 원의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영창약기가 인천시의 전기 및 상수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용자금 중 토지대금 잔액 4백만 원 정산을 거부한 것이다.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오직 원만하게 일을 종결코자 협조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귀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대금불입을 연기할 명분도 없고... 시(市)의 의사대로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4백만 원에 해당하는 토지) 승인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¹⁸⁾라고 공문을 발송하여 영창약기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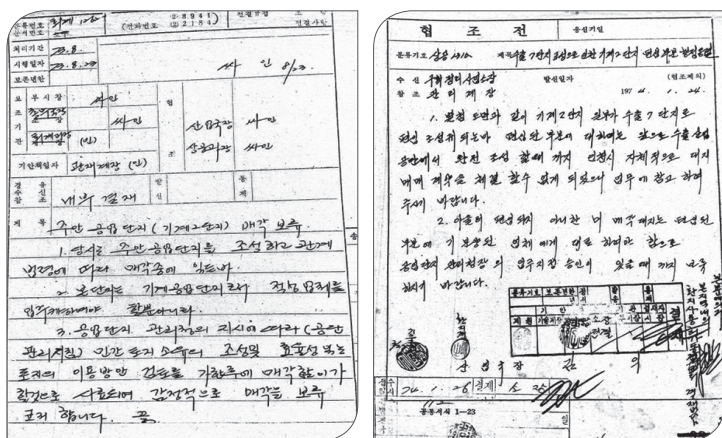
이처럼 입주업체들의 용자금 및 이자 납부와 관련한 어려움은 제2기제공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제1기제공단, 비철금속공단을 포함해 용자금 분할상환 및 이자 연체분 납부독촉을 주 업무로 해

야 할 정도로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안공업지구는 주안제2수출공단을 제외하고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 취득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환지가 개별 등기이전이 아닌 공단 명의로 등기되어 공단 명의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완납 의지에 의존해야만 했다.

영창악기의 부지매입 대금 미정산 등 기계2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기계공단의 본래 조성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1973년 인천시가 기계공단의 부지 분양 및 관리 권한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인천시가 직접 공개경쟁입찰로 부지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인천시의 결정에 반발한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그 해 8월 '민간공업단지 부지 매각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민간단지 성격을 갖는 기계공단의 관리 및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공단관리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¹⁹⁾

제2기계공단은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공장부지 20만 9천여 평을 1970년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의 책임 하에 입주자 선정 및 용자를 대리하고 있었다. 입주희망 업체의 일부가 입주 포기를 하여 5만 2천여 평에 대한 잔금 지불이 지연되던 중 인천시가 공단과 합의 없이 부지 매매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한 것이다. 제2기계공단은 제1, 3기계공단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지의 성격을 갖는다. 공단 측의 주장은 '공단 규정에 의거 입주 승인을 받는다'고 하고, 지방단지로서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단관리청의 입주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반 주택지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가용면적 16만 9천여 평 중 6만여 평의 방대한 면적을 1개 기업이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단일기업체의 지나친 부지 소유로 본래 조성 목적인 다수 기계업종의 입주를 저해하는 것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관리청은 1973년 8월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토지 소유의 조성 및 효율성과 토지의 이용 방안’ 검토 후 매각되어야 할 것으로 매각을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관리청의 이 같은 지침은 1973년 10월 제2기계단지 일부를 국가수출 7단지로 편입시켜 수출산업공단으로 흡수할 예정임을 밝히고,²⁰⁾ 1974년 1월 상공부가 공단관리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매각행위를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자체 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림 20>)



<그림 20> 제2기계단지 매매계약 중지 및 국가수출7단지 전환

출처 : 국가기록원, 수출공업단지관리청, BA0938688

공단관리청과 상공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공단관리청은 1972년 3월 수출공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공부 산하에 신설된 기구이다. 국가는 전국의 수출공단 흡수로 그치지 않고 지방공단을 흡수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당연히 공단의 합리적 경영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 등이 명분이다. 1973년 4

월 상공부는 지방공단 일원화 방침에 관한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11개 지방공단을 관리하는 시장과 민간공단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²¹⁾ 당시 국가의 지방공단 일원화 방침에 대해 지역의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표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표단 회의 개최 후 5월 상공부는 지방공단 일원화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²²⁾

상공부의 지방공단 일원화 방침이 결정된 후 민간단지로 조성된 인천비철금속공단(미추홀구 주안동)이 1974년 제6국가수출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이 통합은 공장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인천비철금속공단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국가수출공단 흡수를 요청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철금속공단이 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공단관리청 관할 하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²³⁾ 결국 (사)인천비철금속공단은 1974년 2월 하선장에서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고 해산되었다.²⁴⁾

제2기계단지를 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기 위한 상공부의 시도는 비철금속공단의 제6국가수출공단 통합 결정을 계기로 국가 관리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민간공단으로 조성된 인천의 공업단지가 모두 국가수출공단으로 강제 통합될 위기에 정부는 제2기계공단 역시 국가수출공단으로 통합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었다. 인천시와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이 제2기계공단의 체비지 매각 대금 미정산으로 잔여 부지 매각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 상공부와 공단관리청은 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제7국가수출공단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이 주안염전을 매립해 조성한 공단의 공장 유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1970년대 기계공단의 공장 입주가 저조한 배경에는 국가와 지역 측면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지역의 입

장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 공단 내 기반시설 미비, 염전매립지의 불안정한 토질 등이 입주 신청을 해 놓고도 공장 건설을 미루거나 입주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장 부지 매입은 용자를 받지 않으면 분양 대금 및 공장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제1기계단지 3천2백 원, 제2단지 3천4백 원, 제3단지 4천50원으로 초기 공단조성계획 때 보다 분양가격이 상승하여 이중고를 감당해야 했다. 결국 재원마련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용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며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상황은 국가의 지방공단 흡수를 정당화 하였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불황에도 불구하고 1973년 제1기제공단은 53개 공장 유치 계획을 100% 달성하였지만 2기제공단은 입주 기업이 늘어나지 않은 채 12개 공장 유치 계획에서 9개 기업이 들어서 75%를 달성하였다. 제3기제공단은 40개 공장 유치계획에서 3개 공장만이 입주하였다. 비철금속공단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51개 공장 유치계획은 전혀 실현되지 못해 0%로 공장 건설조차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다. <표 8>

〈표 8〉 1973년 주안공업지구 공단 현황

구분	위치	면적	분양가	계획 (개)	실적 (개)	비중 (%)
제1기제공단	미추홀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9만 9천여 평	3천2백 원	53	53	100
제2기제공단	서구 가좌동	20만 9천여 평	3천4백 원	12	9	75
제3기제공단	미추홀구 도화동	19만 8천여 평	4천50원	40	3	7.5
비철금속공단	미추홀구 주안동	9만 7천여 평	5천 원	51	0	0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 전국에 너무 많은 공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어 지역 간 치열한 공장유치 경쟁으로 미분

양 공단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공단을 제외한 주안의 기계공단이 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전 비용을 지출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1974년 2월 비철금속공단을 제6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고, 제2기계공단을 제7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하였다. 공단관리청이 수출공단, 지방공단, 민간공단 등을 지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가의 지방공단 흡수를 정당화할 근거가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1974년 2월 공업단지관리법²⁵⁾을 마련하여 1975년 12월 통과시켜 영등포기계공단, 인천기계공단, 제재공단, 포항연관단지 등 4개 민간단지 등 전국의 민간공단을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흡수,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도 정비 과정에서 지방공단 일원화 절차를 보면 비철금속공단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제6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된 셈이다.

1975년 기계공단 등 민간공단을 흡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2기계공단을 국가수출공단에 흡수하는 행정조치는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6년 정부 행정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조직개편을 건의하면서 기계공단의 흡수는 일단 중단된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상공부 소속 공단관리청을 폐지하고 상공부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지방공단 관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⁶⁾ 공단관리청의 해체 배경에는 경제환경의 변화요인도 있지만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 등 부처 간 공단관리 업무가 중복되고, 조직이 비대해져 비효율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제2기계공단의 제7국가수출공단으로 흡

수 논의는 일단 무산되어 공업단지개발법에 따라 (사)인천기계공업 공단에서 인천시로 이관된다. 그리고 제2기계단지는 제3기계공단과 통합되어 1976년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전환됨으로써 기계공업부문의 집단화, 계열화, 협업화라는 초기 조성 목적은 약화되었다. 제1기계공단은 1978년 5월 「공업배치법」²⁷⁾에 근거하여 (사)인천기계공업 공단 설립 10년 만에 상공부로부터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른다.

5. 결론

이상 1960-1970년대 조성된 인천의 산업단지 중 현 서구 가좌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5,6공단)의 탄생 배경 및 조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개의 산업단지 조성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부평국가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1970년대 부평지구와 주안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6개의 산업단지는 인천의 산업화 1세대가 주도하여 조성한 산물이다. 6개 산업단지는 인천의 토착 상공인과 지주들이 사단법인체인 인천 수출산업공단과 인천기계공업공단을 설립하고, 민간재원에 의존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민간산업단지로 출발하였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인천 토착세력들의 기대와 요구가 막연하게 표출된 것이 아니다. 산업단지는 지역 내 구축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얻은 결과물이다.

산업단지 부지매입, 분양 및 공장 유치, 민간산업단지의 국가산업

단지로의 강제 통합, 민간산업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인천의 산업단지 초기 조성 역사는 국가와 지역 단위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간 선택을 하려는 행위들을 반영한다. 국가 단위로는 대통령, 행정관료, 재벌, 군부엘리트, 정치인 등이, 지역 단위로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토착 상공인, 지주, 농민, 언론, 학계, 정치인 등이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갈등하고, 조정하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 단위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행위가 반영되어 나타난 산업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의 강한 리더십과 행정관료의 합리적 판단만이 작용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는 인식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 1) 부평, 주안수출공단, 3개의 기계공단, 비철금속공단, 한국제재공단 등이 부평지구와 주안지구에 조성되었고, 서곶지구에 경인에너지가 조성되었다.
- 2) 본 원고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되 내용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 공업단지를 사용한다.
- 3)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 「연혁(1963-1970)」.
- 4) 인천신문, 1966.2.18.
- 5) 인천시, 『약동하는 도시 인천 주안공업단지조성계획(1967-1969)」, 1967.
- 6) 인천시, 『약동하는 도시 인천 주안공업단지조성계획(1967-1969)」, 1967.
- 7) 인천수출산업공단, 주안제2단지 개발계획(2차 수정) 1970.11.
- 8) 매일경제, 1968.11.30.
- 9)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공업단지 조성계획」, 1969.
- 10) 『경기매일신문』, 1971.11. 2.
- 11) 국가기록원, BA0124363, 1971.
- 12) 국가기록원, BA0124363, 1971.
- 13)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17일자, 대책위원장에 최정환을 선출하고, 이봉운, 김영배, 오준섭, 조명흠, 이상운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 14) 경기매일신문 1971년 11월 20일자, 11월 19일자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마지막 총회나 다음날은 제2차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회는 ① 1:1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 ②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제출 ③ 가칭 '경인수출공단'으로 개칭 ④ 주식지분의 명확한 조치 ⑤ 임원동수 ⑥ 동시 해산 등 인천수출산업공단이 7년 만에 해체되는 수순이었다.
- 15) 송석하의 이사장 경질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직면한 적자재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해진 조치였다. 구로공단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은 구로 3단지를 조성하면서 1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기업 유치실적도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일경제』, 1971년 3월 19일자.) 송석하는 박정희와 사관학교 동기로 한국국방연구원장,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했다.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 1971년 4월 27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16) 최명현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과 김인식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은 쿠데타 세력으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명현은 1963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 1970년 채호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아 후임으로 온 군 출신 박태원이 몇 개월 뒤 국회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는 11대, 12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1988년 잠시 노동부 장관을 지내는 등 오랜 동안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17) 김인식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 청와대경호실 차장을 지내다 최명현 이사장 후임으로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직후 양 공단 통합에 참여했다. 통합된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직을 둘러싸고 최명현과 김인식이 경합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두 사람이 인

간적 친분이 있어 그럴만한 처지가 아니라서 김인식 이사장이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김인식 이사장이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양 공단 통합을 주도한 것은 통합총회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과 이사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을 것이다.

- 18) (사)인천기계공업공단, 「FY72, 제2단지 관계철」인기공 제267호, 1972.12.6.
- 19) 국가기록원, 체비지매매계약서철, BA0604607.
- 20) 매일경제, 1973.10.8.
- 21)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의보』, 축쇄판, 1973.4.25.
- 22) 경향신문, 1973.5.5.
- 23) 매일경제, 1974.2.2.
- 24) 인천상의보, 1974.2.28.
- 25) 공업단지관리법은 공업입지의 지방 분산과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지방공업단지와 민간공업단지가 관리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관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6년 3월2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조성된 수출자유지역의 공업단지, 그리고 그 외의 지방공업단지와 민간공업단지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4개 공업단지로 구분하게 되었다. 24개 공업단지는 인천 지방공업단지와 인천기계공업단지, 영등포기계공업단지를 비롯해 각 시도에 조성된 공업단지다. 정부는 지방정부나 관리공단 등은 공단 내 용지매각 또는 임대 실태, 입주계약 체결과 해지 상황, 입주기업체의 가동 상황, 입주기업체의 생산과 수출입 상황 등을 공단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관리공단이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법 제19조에서 22조까지) 또한 공장 시설물 및 공장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경비, 공해예방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및 근로자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16조) 「공업단지관리법」의 시행으로 공업단지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조성된 수출자유지역의 공업단지, 그리고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의 3개 유형의 공업단지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경제성장의 제반 여건이 변하면서 독립된 공업단지법으로 존립할 의의를 상실하고, 「공업단지관리법」과 중복되어 사문화되었다. 이에 1977년 12월 31일 「공업단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폐지되고, 공업단지 관리기능에 수해방지사설의 의무를 추가 규정하였다.
- 26) 동아일보, 1976.7.2 : 10.1.
- 27) 「공업배치법」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공업입지의 분산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하자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절한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공장의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집중을 방지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고, 197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서구목재산업단지와 동화기업

- 1 서구목재산업단지
- 2 서구 목재산업, 서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다
- 3 서구 목재산업의 현장 사람들과 애환
- 4 동화기업

허우범 (시인 / 인천서구문화원이사)

II. 서구목재산업단지와 동화기업

1. 서구목재산업단지

1) 조성

우리나라에서 동력을 사용해 목재를 제재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제재소에서 시작된다.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목재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관영 제재소를 운영하였는데 주로 목재가 많은 이북지역에 많이 만들었다. 또한 일본 민간인들도 우리나라에 제재소를 많이 만들었는데 배를 이용해 일본으로 수송하기에 편리한 인천, 군산 등에 제재소가 많이 세워졌다.

해방 후 목재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일본으로 수송하는 일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재목을 생산,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후에는 원목을 수입, 제재하여 수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원목은 화물 특성상 배를 이용해 항구로 수입해야 했다. 원목 수입 항구는 목재산업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다. 원목수입 선박의 접안과 하역 그리고 수입한 원목을 쌓아 놓을 원목 저장장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재산업이 발달한 인천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서구 가좌동·석남동 해안가 지역은 서해로부터 내륙까지 갯골이 잘 발달하여 있어 원목이 내륙 공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서구 가좌동에서 경서동 지역에 1964년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이루어져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넓은 간척지가 조성되고 있었다. 1968년 동화

기업은 가좌동 해안가에 간척사업을 시작하여 50여만 평의 간척지를 확보하고 원목을 쌓아 놓을 저목장을 마련해 목재산업이 자리 잡을 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동구 송림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 인천교 쪽으로 길게 형성된 해로는 수입 원목이 인천항에서 서구 목재공장으로 이동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염곡로가 시작되는 송림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좌동 홈플러스 쪽으로 잘 발달된 갯골이 내륙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동화기업은 이 갯골을 활용하여 수입 원목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넓은 갯골 저목장을 만들었다. 이는 이곳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재산업단지가 되는 발판이 되었다. 실로 놀라운 안목이고 결정이었다.



| 수중저목장 및 제재공업단지조성 (1968년)¹⁾



| 수중저목장 건설 관련 신문기사*

서해 다른 항구, 부산이나 군산에도 목재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대체로 지역 수요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크게 산업단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천 서구의 목재 산업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목재 산업 단지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시대적으로는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점인 1970년대 초 수출장려 정책으로 기업들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수출에 매진할 때였다.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덕분에 가발산업과 봉제 산업 그리고 제재산업과 합판산업 등이 당시로서는 좋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여서 목재 산업은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초기 서구 목재 산업은 주로 제재산업이었다. 원목을 규격에 맞춰 제재하고, 제재된 각재나 판재는 건조장으로 옮겨 건조하고, 건조가 끝나면 소비자에게 공급되었다. 주로 건설 현장과 건축 내장재 그리고 가구재로 많이 공급되었다. 이후 목재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 성장하면서 합판, 보드, 가구, 악기 등 공장들이 함께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지역적, 시대적 조건이 서구목재 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전국 목재 산업의 60~70%를 점유하게 된다.

2) 목재산업단지 지정과 성장

산업단지는 공업 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이 대규모로 집적한 곳이다. 산업단지 지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계획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 공업 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 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서구 목재 산업단지는 두 번째 이유로 설립된 산업단지이다.

1968년 동화기업은 현 가좌동 염곡로를 따라 목재공장 15개를 건

설했다. 가좌동 흙플러스 앞쪽에 1호 목재공장을 건설하여 송림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방향으로 2호, 3호~15호까지 목재공장을 건설했다. 대차 두 개에 테이블 3~4개 정도 되는 700~800평 규모의 제재 목재 공장이었다. 동화기업은 이 중 3호, 4호 두 개 공장만 운영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목재 사업자에게 분양하였다. 서울에 산재해 있던 목재 회사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 입주한 목재회사들은 동화기업이 수입한 원목을 갯골 저목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불편 없이 제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 서구 가좌동 갯골을 따라 형성된 목재공장들이 목재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주변에 목재 관련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다.

우리나라의 목재 산업은 1960년대부터 공업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 목재 산업의 산업동향은 주로 원자재인 원목의 확보와 건축 경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재는 이용도가 매우 낮아, 국내에서 필요한 원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안정적인 원목 수급은 목재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조건이었다. 초기 원목은 주로 동남아나 러시아로부터 수입되었다. 동화기업은 196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직접 벌목하는 산판을 확보하여 원목을 수입하였다. 이후 현대종합상사, 삼성 원목사업부, 효성 원목사업부 등 종합상사도 원목을 수입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무역업 허가를 낸 사람은 누구나 원목을 수입할 수 있었다. 벌크선으로 수입된 원목은 인천항에서 하역되어 예인선으로 현 북항 쪽으로 이동하여 간척지 원목 저목장과 동화기업에서 운영하는 갯골 해면 원목 저목장에 쌓였다.



| 수중저목장에 가득한 원목*

동화기업에서 건설한 초기 제재공장들(1호~15호)은 동화기업이 수입한 원목을 손쉽게 구매하여 제재 할 수 있었다. 당시 빠른 산업화로 밀려드는 주문을 기일 내 납품하기 위해 목재공장들은 밤낮으로 생산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가좌동·석남동·원창동에 제재공장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동화기업에 이어 영림목재와 태원목재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한국목재, 한양목재, 원창목재, 대명목재, 가가담목재, 신대림제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제재산업을 이끌었다.



| 수중저목장 및 제재공업단지 항공사진*

제재는 목재 산업의 근간이다. 원목을 일정하고 다양하게 제재하는 것은 나무를 경제생활에 이용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서구 목재 산업은 제재공장들이 안정적으로 목재를 제재할 수 있는 조건과 기술력을 갖추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차 가공인 원목 제재공장에 이어 관련된 목재 산업이 가좌동·석남동 주변에 함께 자리 잡게 되었다. 합판공장과 PB 공장, MDF 공장, 가구공장, 악기공장 등 목재 관련 공장들이 집적하며 서구 목재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게 된다.

원목을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원목의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점점 매력을 잃어갔다. 주택건설 현장과 가구에 많이 쓰이는 합판도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이것을 미리부터 예상한 서구 목재 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보드(board) 산업이다. 보드는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폐자재를 부수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

고 접착제를 섞어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켜서 만든 가공재이다.

처음 만든 것이 파티클 보드다. 보드는 여러 가지 원목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1975년 동화기업은 PB(파티클 보드)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을 시작했다. 원목 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원가를 40~50%까지 줄일 수 있었다. 동화기업은 이후 PB 2공장과 PB 3공장을 준공하여 목재 산업의 기술화를 이루어 나갔다. 또한 환경호르몬을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한 MDF를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재 산업의 새 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서구 목재 산업은 원목을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재업에서 기술을 접목해 소비재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제2의 성장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수출이 증대되고 국가 경제가 안정되면서 개인들의 삶도 풍요로워졌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망으로 많은 가구공장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삼익가구, 동서가구, 보르네오가구, 라자가구 등이 '88서울올림픽' 이후 생산을 늘리며 호황을 누렸다. 또한 영창악기와 삼익악기도 생산을 늘려가며 문화생활에 목마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서구 목재 산업단지는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이끌었다.

3) 현재, 북항목재클러스터단지

88올림픽 이후 세계적으로 한 단계 격상된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서구 지역에 또 다른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곳곳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 교통 혼잡 유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미세먼지 발생, 분진과 소음 등으로 제재공장은 공해유발 공장으로 분류되었다. 가좌동·석남동의

목재공장들은 정책에 따라 남동공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또한 원목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에서 제재된 목재들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제재공장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폐업하는 공장들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이끌던 서구 목재 산업단지도 1990년대 이후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자연 원재료를 사용하여 산업과 생활경제에 공급하는 제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흙을 이용한 항아리도 면화를 이용한 섬유도 원가 경쟁과 품질에서 첨단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 목재 산업도 마찬가지다. 건축자재로 목재가 쓰였던 자리에 플라스틱 첨단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제재산업도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지역에서 목재가 도면대로 제재되어 수입되고 있어 경쟁력을 잃었다. 목재 산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목재의 우수성에 매료된 사람들은 여전히 목재를 찾는다. 인천의 목재 산업은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 서구 가좌동·석남동 주변에 약 500여 개 업체가 명맥을 유지했으나 인근에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각종 민원 때문에 경기도 김포 등지로 흩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중심지였던 서구는 2016년 새롭게 '서구 목재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인천 서구 원창동 한진 3 보세창고 부근에 북항과 인접하여 원목 하역과 보관이 편리한 대단위 목재단지가 만들어졌다. 이곳은 청라 산업단지와 바로 연결되면서 넓게는 제1경인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고, 인천 청라 지구~북항 진입도로가 연결돼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다.

목재 클러스터 단지에는 원목 수입부터 합판과 가구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재 관련 제품이 취급된다. 또 주변에는 6개 도로와 근린공원, 완충녹지, 주차장 등이 각각 들어서 쾌적한 환경 및 편

리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목재 클러스터 단지가 북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목조건물 및 조경 시설을 배치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목재 산업 육성을 위한 목재 개발단지와 한옥을 체험하고 문화공간과 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공장을 한옥과 접목한 기업도 있다. 이 밖에 정부 인가 목공 기능장 업체를 유치하고 수도권 소비자 및 수출을 위한 고급 천연목재가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서구 목재 클러스터’ 단지는 빛을 잃어가던 서구 목재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 말 가좌동 갯골을 따라 목재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이끌었던 서구 목재 산업은 이제 그 자리를 북항 서구 원창동 한진 3 보세창고 부근 서구 목재 클러스터 단지에 넘겨주었다. 서구 목재 클러스터 단지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목재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 북항 목재클러스터 단지

2. 서구 목재산업, 서구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다

사람은 일함으로써 재화(財貨)를 얻고, 이렇게 얻어진 재화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몰려든다. 일자리가 많은 곳은 그 일자리로 인해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다른 일자리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집이 지어지고 마을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도시가 생긴다. 서구가 신흥도시로 발전하는 데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목재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구에 원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제재공장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며 서구 지역경제는 기존의 농어업 중심에서 생산과 유통이라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빠르게 바뀌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정부는 수출을 위한 산업단지를 입지 조건에 맞춰 만들어나갔다. 인천 서구는 원목 수입 항구로부터 가깝고 원목 저목장이 자리 잡기 좋은 넓은 간척지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도권에 수송하기에 좋은 교통망도 갖추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가좌동·석남동을 중심으로 목재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당시만 해도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세였다. 원목을 수입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 목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목재 산업은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산업이다. 목재 산업단지가 조성될 무렵 가좌동·석남동 원주민 들로는 목재 산업의 노동력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력이 외지에서 공급되었다. 서울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서구 목재 산업단지로 옮긴 공장을 따라 이주하였거나, 충청도·전라도를 비롯한 그 밖의 시골 잉여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유입되었다. 유입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자였다. 그들은 이곳에

서 직장을 다니고 이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나갔다. 많은 남자의 유입은 이곳 서구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서 서구지역 경제도 빠르게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식생활을 위한 식품 수요가 늘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차츰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된 농산물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가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도로를 따라 노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시장이 서구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거북시장이다. 이후 거북시장은 식품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 그릇 등 의류와 공산품으로 품목을 늘리며 큰 시장으로 발전하여 서구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목재공장 월급날이면 거북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하여 활기가 넘쳐났다. 이로 인해 서구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목재공장으로 유입된 인구는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동화기업은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 가좌동(건지로 250번길 43)에 사택을 지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목재회사들도 공장 주위에 사택을 지어 안정적으로 노동자들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주거할 집이 부족했다. 건축업자들은 땅을 구입해 주택을 지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짓고 살던 원주민들도 농사짓던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때 농부에서 건축업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갑자기 돈을 벌어 교만과 헛된 욕심에 빠져 패가망신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신흥도시가 형성되면서 겪는 아픔이 이곳 서구에서도 있었다.



| 가좌동 건지로 250번길 43 (2021년 현재, 봉화초등학교/구 동화기업 사택 부지)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 한 채를 지으면 짓기 무섭게 매매가 되었다. 매매가 되지 않은 집은 방마다 임대를 놓았다. 임대가 나갈 것 같지 않던 반지하 방들도 금세 임대가 되었다. 목재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축업자들은 넓은 땅에 똑같은 모양의 단독주택을 10~15채씩 지어 분양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층짜리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다. 가좌동에는 홍기연립과 대명연립 등이 지어졌고, 석남동에는 유성연립과 낙원연립 등이 지어졌다. 그리고 3~4층짜리 빌라가 지어졌다. 이어서 5~6층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가좌동에는 덕산아파트, 삼영아파트 등이 지어졌고, 석남동에는 새인천아파트, 효정아파트 등이 지어졌다. 이렇게 지어진 서민주택은 많은 목재공장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때 지어진 주택과 연립, 빌라, 아파트는 재건축이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남아 있다.



| 석남동 낙원연립 (2021년 10월 현재)



| 가좌동 대명연립 (2021년 10월 현재)



| 가좌동 홍기연립 (2021년 10월 현재)



목재 산업의 호황이 건축 경기의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주위에 시멘트 벽돌과 블록 공장들이 호황을 누렸고, 합판과 목재 대리점이 생겨 호황을 누렸다. 보일러 시공 업자도 호황, 창틀 새시 시공업자도 호황, 도배업자도 호황 그야말로 건축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또 그에 따른 다른 업종들이 다 호황을 누리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목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입되었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바로 서구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구는 해안가 황량한 농어촌지역에서 활기 넘치는 첨단도시로 바뀌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많은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가까이 항만과 공항, 고속도로와 전철 등을 갖추고 인천을 대표하는 첨단도시로 발전하는 데 서구 목재 산업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

3. 서구 목재산업의 현장 사람들과 애환

1) 동화기업 사원번호 2번, 진창화

1969년에 동화기업에 입사한 진창화(1938~)는 사원 번호 2번이다. 동화기업 첫 번째 사원²⁾도 남다른 의미가 있지만 동화기업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33년을 근무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동화기업의 산증인이다. 경기도 양주가 고향인 진창화는 경인고속도로 공사 인부로 일하다 경인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갈 무렵 동화개발 상무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아 동화개발에 입사했다. 동화개발이 간척사업과 목재공장 조성사업이 끝나고 동화기업으로 바뀌면서 이후 동화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입사 초기 회사 주변은 환경이 열악했다. 비가 오는 날은 개흙으로 진창이 된 길을 푹푹 빠져가며 힘겹게 걸어서 출퇴근했다. 겨울에는 바닷가 세찬 바람이 여민 옷 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뽕뽕 어는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해야 했다. 회사에서는 영선업무를 담당했다. 영선업무는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소소한 일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이다. 한 해 한 해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일이 많아졌지만, 회사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어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족처럼 지내, 남자들에게는 말형처럼 든든하고, 여자들에게는 큰오빠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한결같았다.



| 진창화 (동화기업 근무 당시. 1970년대)

진창화는 동화 사택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 동화기업은 직원들의 불안정한 주거를 위해 단독주택 40동을 지었다. 한 동은 18평이고, 9평씩 나누어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하였다. 각 가구에는 방 두 개에 마루와 부엌이 있어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몇 가구는 직접 사택을 사서 살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임대로 살다가 퇴사하게 되면 반납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집 없이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이 사택에서 진창화는 통장 일을 보며 회사 사람들과 지역 관공서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높은 직책으로 회사에 공헌할 수도 있지만, 진창화는 낮은 자리에서 회사에 핵심이 되었다. 회사에서나 회사 밖에서나 늘 회사와 연결되어 살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희생, 봉사하였다.

그는 1960년대 말 동화기업이 인천 서구에 목재 산업단지를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의 한 명이다. 1980년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던 시절이 제일 가슴 아팠다고 한다. 혹시라도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걱정보다 정든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 아팠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화기업은 종로에 알토란 같은 빌딩을 팔아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급했다고 한다.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준 동화기업은 늘 그의 가슴속에 우뚝하다고 한다. 지금은 강화에서 한가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제재 노동자, 김명옥

김명옥(1951~)은 1978년 서산에서 올라와 인천에서 제재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목재를 제재하려면 두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한 사람은 테이블 톱에서 밀어주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건너에서 잡아당기는 일을 한다. 밀어주는 사람이 제재 전문 기술자이고 잡아당기는 사람은 제재 보조 노동자다. 김명옥은 제재 보조 노동자, 일명 히빠리³⁾다.



| 김명옥

김명옥은 가좌동 ‘효성 물산’에서 5년, ‘대한 특수목재’에서 8년을 근무하였고 이후 그가 전전한 목재소는 20여 군데가 넘는다. 첨단 제재 기계가 수입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제재 노동자들은 소규모 제재소로 밀려났다. 그 역시 제재소 최하위 노동자로 소규모 제재소를 전전하고 있다. 그가 처음 목재회사에 입사한 1978년도에 월급으로 8만 원을 받았다. 목재 산업이 호황이었던 80년도 말 잔업을 하면서

받은 월급이 200여만 원이었고, 최근에는 일당 9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달 20일 일하면 180여만 원을 받는다. 시대별 돈의 가치는 다르지만, 목재 산업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 느껴진다. 또한 제재산업의 지난 여정과 현재의 모습도 그려진다. 제재산업 초창기 목재 공장은 저임금의 육체노동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목재 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옮겨졌다. 국내 제재업은 소규모로 남아 있는 수요에 갈음하고 있다.



| 원목을 밀어서 재단하는 장면

김명옥은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제재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쉬고 싶지만, 제재공장에서 애타게 부른다. 지금 제재공장에는 제재 기술자가 없다. 젊은 사람은 없고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사람들만이 남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일이 많지 않다.

무거운 원목을 몸으로 이겨내며 작업을 하는 제재 노동자들은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늘 고생이다. 김명옥도 수시로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 아픈 몸을 치료받으며 아직은 제재소로 출근한다. 배운 일이 나무 켜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나무 켜는 일

다. 김명옥은 오늘도 오전 7시 경성 빌라에서 나와 봉고차에 몸을 싣는다. 텅텅 자리에 앉으며 허리와 무릎의 통증에 질끈 눈을 감는다. 그러나 제재일이 시작되면 통증이 사라진다.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해야 몸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톱을 지나온 각재를 종류대로 크기대로 받아 쌓다 보면 몸에 통증은 사라지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익숙한 작업환경에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작업복을 벗고 퇴근을 준비하면 다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밀려온다. 그래도 주말에 출가한 딸과 직장 다니는 딸이 온다고 하니 내일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3) 영업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 박종규

고향이 충북 영동인 박종규(1960~)는 1984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한국 목재(주)’에 입사했다. 20대 중반의 청년 박종규는 이후 34년을 오직 목재 영업일을 하며 서구 목재산업과 함께 했다. 주로 원목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일과 제재목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



| 박종규

매사에 긍정적이고 쾌활한 그는 원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원목저목장을 오가면서 원목을 사고, 팔며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

아 쉽게 원목 영업에 적응했다. 1980년대 초 원목 유통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원목 매입과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의 능력에 따라 회사 수익에 큰 차이가 있었다.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때였다.

그는 체계가 잡히지 않는 시절 원칙과 신용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하여 많은 사람에게 빨리 인정을 받았다.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현장에서 원목의 품질을 여러 차례 확인 점검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였다. 그로 인해 원목과 제재목 판매량이 나날이 늘어나 회사는 제재목 생산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혔다. 많은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영업의 기본은 신뢰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품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그가 한창 영업을 할 때는 연 100억 원 가까이 원목과 목재를 판매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광주 본사 전체 판매량보다도 많았다고 한다.



| 북항 목재클러스터 단지

박종규가 지금도 무용담처럼 말하는 것이 있다. 서구 목재 산업은 전국 목재 산업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서구는 목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각자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곳이었다.

영업에 전설적인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기꾼들도 몰려들었다. 목재 영업의 피 튀는 현장에서 그는 늘 긴장 속에 살았다고 한다. 당시 목재 영업은 90% 이상이 어음거래였다. 어음은 특성상 부도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어음이 부도나면 손해가 엄청났다. 그는 영업하면서 받은 어음의 부도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엄청난 행운아라고 하면서 껄껄 웃는다.

그도 두 번의 외환위기 때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에 어둠이 짙어진다. 외환위기 당시 작은 목재회사들은 어음 연쇄 부도로 큰 타격을 받았고, 원목을 수입하던 회사들은 환율 급등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했다고 한다. 700~800원 하던 환율이 1800~1900원까지 오르자 건널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목재회사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제품을 생산해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박종규는 타고난 영업능력과 신용을 재산으로 1996년 석남동에서 ‘영동 목재’를 설립하고 직접 목재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탄탄한 신용과 영업능력으로 직원 2명과 연 20억 원 넘게 목재를 판매하며 알차게 회사를 운영했다. 목재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서구 목재 산업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건축산업에 신소재들의 개발 공급으로 목재 경기가 쇠퇴하면서 2017년 사업을 접었다. 지금은 고향 영동에서 통나무 집 사업을 구상 중이다.

4) 서구 목재산업 나이트에 새겨진 삶의 애환

1970년대 초 서구에 조성된 목재 산업은 비록 대기환경이 미흡하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했지

만 가진 것 없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룰 기회이기도 했다. 제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원목이나 제재목을 자르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켜진 목재를 제재소에 보관하는 일을 한다. 때로는 원목의 췌조각, 돌, 썩은 곳, 쪼개진 곳 등을 검사하여 표시하거나 원목 제재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쇠갈고리나 손으로 제재할 목재를 켜기에 용이하도록 회전 시켜 위치를 잡아 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을 하다 제재 기술자가 되어 제재공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시절 제재소 노동자들은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출근했다. 점심때 먹을 도시락을 어깨에 메고 작은 언덕을 넘어 좁은 농로를 지나 공장에 도착하면 힘이 쭉 빠졌다. 가뜩이나 장마철이면 길이 물젖은 개흙으로 진창이 되었다. 신발이 푹푹 빠지고 개흙이 덕지덕지 붙은 신발에서 발이 쑥 빠져나와 곤죽이 된 땅에 박히곤 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목재공장 노동자는 지각하는 일 없이 결근하는 날 없이 묵묵히 공장을 오갔다. 잔업을 하고 일요일은 특근했다. 명절 때도 고향에 가지 않고 원목 경비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어쩌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동료나 이웃들과 공장 앞 갯골에 떠 있는 원목에 올라가 망둥이 낚시를 했다. 살 오른 가을 망둥이를 초고추장에 찍어 소주를 마시면 그간의 고단함은 사라지고 가슴속으로 행복이 밀려들었다. 거나하게 취하면 동료들과 장난치다 원목에서 떨어져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다. 가끔 사장의 특별 배려로 제재소 옆 공터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 잔칫날이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버려진 슬레이트 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었다. 주위에 빙 둘러서서 입김을 후후 불어가며 기름이 푹푹 떨어지는 삼겹살을 입 안 가득 집어넣었다. 삼겹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목구멍에 끼어 있던 톱밥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최고의 대접을 받은 듯 뿌듯했고 삼겹살 파티가 있고 나면 더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다. 서구에서 목재공장 다니던 대부분의 총각은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 몇 년을 오로지 일에 매달려 돈을 모으고 부엌 딸린 방 한 칸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았다.

목재공장에는 제재하는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재할 원목이나 제재한 목재를 옮기는 지게차 기사가 있고, 제재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있고, 제품을 파는 영업사원이 있으며 사무실 직원들이 있다. 원목을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가 있고, 큰 회사에는 예비군 중대장도 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목재공장과 연결되어 먹고 살았다. 이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며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나갔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거북시장 가마솥에서 튀긴 통닭과 과일, 음료를 준비해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고, 서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아이들을 응원했다. 일요일에 교회나, 성당에 가면 또 거기서 회사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구민 체육대회 때는 동료들이 각 동 대표로 경기에 참여해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사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몇몇 아이들은 서울로 대학교에 다녔다.

그 아이들은 이곳이 고향이다.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고 그리운 곳이다. 외롭고 힘들 때 생각만 해도 위안이 되는 곳이 고향이다. 1970년대 초 낫설고 물신 서구 목재 산업단지에 뿌리내린 1세대들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서구 목재단지 2세대들도 고향인 서구를 떠나 서울, 부산 또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외롭고 힘들 때 고향 생각을 하며 이겨 내고 있을 것이다. 도

시락을 자전거에 싣고 출근하는 아버지의 모습, 산더미처럼 쌓인 원목, 원목을 가득 싣고 위태롭게 달리던 트레일러의 모습, 동네 작은 제재소에서 나무를 켄 때 나뉜 날카로운 톱날 소리, 퇴근한 아버지가 작업복을 탁탁 털 때 햇살 속 먼지처럼 날리던 톱밥의 모습 등이 고향의 향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도 살면서 힘들 때 빈곤하고 척박하였지만, 마음 깊이 간직한 서구 목재 산업단지의 추억과 향수에 젖어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것이다.



| 북항 목재산업단지

그러나 목재공장에서 일하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많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원목은 잠시 잠깐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졌다. 지게차로 원목을 옮기거나 트레일러에 원목을 실을 때 쌓아 놓은 원목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서 주위에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다. 원목이 몸을 덮쳐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또한, 목재를 제재할 때 제거하지 못한 췌조각 때문에 톱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재하던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다. 이러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꿈을 안고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사고로 병원에서 몇 번을 수술하고 치료받았지만, 불구의 몸이 되어 쓸쓸히 귀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살림을 막 시작하고 사고가 난 남편을 아내는 지극 정성으로 간호

하여 일으켜 세웠지만 다친 남편은 다시 목재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었다. 합판 공장에서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일이 많았다. 사고는 대개 일을 시작하고 10분 안에, 일이 끝나기 10분 전에 많이 일어났다. 긴장하지 않거나 긴장이 풀리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다. 가장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쓰러지면 온 가족이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산재도 없던 시절 그 당시 목재 산업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서구 목재 산업은 그들의 땀과 피를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웠다.

서구 목재 산업이 싹을 틔운 지 50여 년이 지났다. 서구 목재 산업이라는 나무에는 50여 개의 나이테가 있다. 그 나이테에는 서구 목재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서구 사람들의 애환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무는 개체 안에 세대를 축적한다. 지나간 세대는 동심원의 안쪽으로 모이고 젊은 세대가 몸의 바깥쪽을 둘러싼다. 나무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히 살아 있는 세대이다. 이 젊은 세대가 뿌리의 몸을 우듬지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운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점차 기능이 둔화되고 마침내 정지되어 동심원의 안쪽으로 숨어들고, 나무껍질 밑에는 다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젊음은 바깥쪽을 둘러싸고 늙음은 안쪽으로 고인다.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 밑동에서 살아 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은 대부분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동심원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이 중심부는 무위와 적막의 나라인데 이 무위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한 수직

으로 버티어준다.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다. 무위는 존재의 뼈대이다. 하나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과 전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이다.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 완성은 적막한 무위이며 단단한 응축인 것인데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나무의 향일성은 이 중심의 무위에 기대고 있다. 무위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의 젊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중심부는 존재의 고요한 기둥이고 바깥쪽은 생성의 바쁜 현장인데, 새로운 세대의 표층이 태어나면 생성과 존재가 사명을 교대하면서 나이테는 하나씩 늘어간다. 동심원에서 늙음과 젊음, 전위와 후방이 순탄한 질서를 이루어 나무는 곧게 서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잎을 떨군다. 나이테의 동심원 속에서는 후방이 전위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하다.” (김훈, 『자전거 여행 1』에서)

서구 목재 산업도 나무다. 서구 목재 산업은 삶의 중심을 향해 선다. 풍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삶의 중심을 향해 꺾이지 않는다. 서구 목재산업 초기 세대들은 이제 나이테 동심원 안쪽으로 모이고 다음 세대가 바깥쪽을 둘러싼다. 바깥을 둘러싼 젊은 세대는 서구 목재단지를 활발한 생명력으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삶의 뿌리를 우듬지까지 끌어올려 모든 생산을 빛나게 하고 서구 목재 산업의 몸통을 키운다. 나이테 동심원 안쪽으로 들어간 초기 세대는 생명의 기능은 소멸했지만, 무위와 적막으로 서구 목재 산업을 삶 속에 수직으로 서게 한다.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서구 목재 산업은 죽는다. 서구 목재 산업도 나무처럼 지나간 세대는 안쪽으로 모이고 젊은 세대가 서구 목재 산업의 바깥쪽을 둘러싸야 한다. 젊은 세대는 늘 새롭고 활기차야 하고 지나간 세대는 나이테 동심원 안쪽으로 모

여 서구 목재 산업을 삶 속에 수직으로 세우는 뼈대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서구 목재 산업은 우람하고 튼튼하게 우리들 삶의 한가운데 우뚝 서야 한다.



| 원창동 목재야적장 (2021년 10월 현재)

4. 동화기업

1) 창업과 창업주

동화기업의 모체는 1948년 4월 서울 왕십리에서 작은 제재소로 출발한 동화토건이다. 창립 당시만 해도 제재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목재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대의 젊은 승상배는 패기와 열정으로 목재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만의 두둑한 벚심으로 목재 사업을 이끌었다. 동화토건은 1953년 1월 동화흥업으로 바뀌었다가 그해 7월 동화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창업주 승상배는 ‘동쪽의 평화’라는 의미로 동화기업(東和企業)을 직접 작명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승상배는 1921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유년기와 청년기

를 만주에서 보냈다. 온 가족이 새로운 삶을 찾아 만주로 떠났지만 새로운 삶은 배고픔과 이국에서의 불안과 외로움으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온 가족은 만주의 거친 흙바람을 맞아가며 황무지를 일궈 명명했다. 그러나 승상배는 가난 속에도 기죽지 않고 부지런히 세상과 함께 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십 대에 사업에 눈을 뜬 그는 만주에서 굴지의 정미소를 경영했다. 정미소를 경영하여 어느 정도 돈을 모아 해방되기 몇 개월 전 고향 정주로 20여 년 만에 온 가족이 되돌아왔다.

1945년 일제의 무조건 항복 이후, 미군과 소련군 진주로 국토가 양분될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과 공산당은 승상배 가족이 만주에서 정미소 할 때 악덕 기업인이었다고 몰아세워 처벌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더이상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1946년 5월 아내와 세 아들 장남 은호(1942년생), 차남 응호(1944년생), 삼남 창호(1946년생)를 데리고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월남해 서울 마포에 도착했다.

서울에 정착하고 무역업, 양조장 등을 했지만 실패했다. 승상배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스물여덟에 동화기업을 설립하여 목재를 제재했다. 제재목은 6.25 전쟁 이후 파괴된 시설 복구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한 미군에 목재를 건설 군납하게 되면서 사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제재소를 증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다.

목재 산업에서 희망을 본 승상배는 1968년 인천 서구 가좌동에 119만㎡ 규모의 대규모 저목 단지를 조성해 목재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이후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승상배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나라 잃은 설움과 가난,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 기업인으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그는 2009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8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2) 원목과 제재 공장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는 공업화를 통한 수출을 근간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자본은 물론 부전 자원과 축적된 기술이 빈약한 나라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원, 기술, 자본 등 세 가지 요소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1960년대의 분위기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하기 위한 원목의 대량 수입이 필수였다. 동화기업은 196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현지인 한 명과 한국인 한 명으로 된 주재원을 두고 원목 벌목 산판을 조성해나갔다. 이후 승상배 회장이 자주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정글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원목을 확보하여 수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한 원목을 인천항에서 육지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원목을 인천항에 하역하면 높은 조수에 밀려 많은 원목이 유실되었다. 파도가 심할 때는 하룻밤 사이에 원목 한 배 정도가 송두리째 없어지곤 했다. 이때 생각한 것이 서구 가좌동 앞 갯가에 독을 막아 저목장을 만들고, 여기에도 인양기를 제작, 설치하여 바다에 떠 있는 원목을 갯골 저목장으로 끌어넣는 계획이었다.

갯골 저목장은 바닷물이 간조와 만조를 따라 들락날락하는 갯벌의 좁은 목을 막아서 17만 평 규모로 조성했다.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에 시멘트 콘크리트 독을 쌓고 그 안에 항상 수십 삼미터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채워 놓았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원목을 인양해 갯골 저목장으로 옮길 육양기를 만들었다. 원목은 물에 뜨는 나왕을 주로 수입하여 육양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쉽고 편리했다. 이렇게 하여 원목의 수입과 관리, 선목, 운반, 가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다른 회사보다 월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

화기업은 일약 목재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 육양기⁴⁾*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점점 사업 규모가 확장되자 동화기업은 인천에 목재 산업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목재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럭에 원목을 싣고 서울 거리를 달리면 먼지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길가에 원목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업상으로 항구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원목을 운반하기가 용이하고 제재도 편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인천 서구 가좌동·석남동 지역이었다.

이곳은 다른 목재회사들도 탐내는 좋은 곳이었다. 동화기업은 서울에 산재한 목재회사들을 이곳으로 옮겨 목재 산업단지를 만들 생각을 했다. 먼저 목재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 한매립공사에 착수하여 바다를 메웠다. 해안선을 따라 독을 쌓아 놓고 흙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다. 모두 미친 짓이라고 하였지만 심한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해냈다. 그 결과 50만 평에 가까운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립공사가 끝나고 서울에 산재

해 있던 목재공장들을 인천 서구 가좌동으로 유치했다. 모두 15개 공장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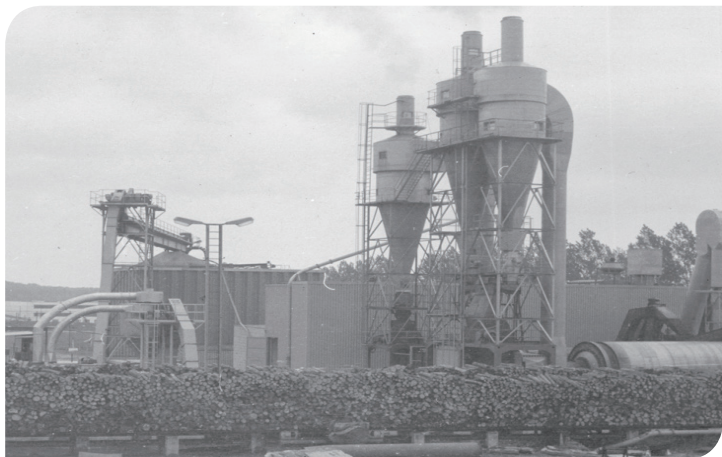
| 1974년 가구공장 준공식*

이렇게 열다섯 개 공장이 완성되고 목재회사가 입주하면서 1970년 10월, 한국 최초 목재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동화기업은 원목을 수입하고 목재를 제재하는 사업에서 직접 판재를 이용해 가구를 만드는 목재 제조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974년 동화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목재 생산 역량을 활용해 가구 사업에 진출했다. 동화기업은 1973년 3월, 건물 면적 1만 9,835㎡ 규모의 공장 건설 공사에 착수하여 1년 4개월 만인 1974년 6월 5일 가구공장이 완공되었다. 공장 내부에는 목재 가구 제조 기계를 비롯한 조립 제조 기계 300여 대를 갖추었고 100% 조립식 생산체계로 가동하도록 설계했다. 당시 동화기업 가구 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후 동화기업은 폐목재를 활용해 파티클 보드(PB)와 MDF를 생산하면서 목재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 기술산업으로 성장시켰

다. 현재 동화기업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율, 협업, 변혁, 윤리, 안전을 핵심가치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 1975년 PB1공장 준공*



| 1985년 MDF공장 건설 광경*

3) 동화기업, 서구와 서구민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키다

옛 서구는 바닷가를 따라 길게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었다. 주민들은 바다와 인근 농지에서 소규모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왔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서구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선봉에 동화기업이 있었다. 동화기업이 서구에 자리를 잡으며 황량한 갯벌과 빈곤한 바다는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동화기업을 특별히 이 지면에 거론하는 것은 조그만 제재소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목재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주나 기업을 소개하려는 것보다 동화기업이 서구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서구와 서구민의 삶에 끼친 영향과 경제적 변화를 짚어 보려는 것이다. 한 지역이나 한 시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끝낸 정부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이었다. 이 시대 동화기업이 서구에 자리 잡으면서 서구와 서구민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로 서구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동화기업이 있었다. 동화기업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음 농번기가 올 때까지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던 서구 사람들에게 농지가 없어도 계절에 상관없이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였다. 많은 사람이 멀고 먼 가좌동 동화기업까지 비가 오면 폭폭 빠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했다. 근면 성실한 서구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화기업은 서구가 놓여

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경제 규모가 큰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필요한 물건을 제조하는 2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있었다.

두 번째로 동화기업은 서구의 지연, 혈연 중심의 폐쇄적 농어업 지역에서 경제 중심의 개방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다. 동화기업은 홀로 기업 행위를 하지 않았다. 목재 산업의 기본인 원목 수입과 공급을 다른 목재 기업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목재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합판, 가구, 악기 등 많은 목재 산업이 서구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타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었다. 1968년 동화기업은 몇십 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직원이 1,500명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가좌동과 석남동, 원창동에 수많은 목재 기업들이 생겨나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서구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서구는 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뀌었다. 자연적으로 서구민들의 의식도 바뀌었다. 개방된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서구는 새로운 산업도 지역 주민과 충돌 없이 뿌리내리고 함께 번창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동화기업이 서구에 자리 잡음으로써 서구민의 삶이 변화된 것은 많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경제발전을 하며 어느 곳이나 일어났던 변화일 뿐이다. 다만 우리 서구에서는 그 역할을 동화기업이 한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은 어리석다. 몸 비비고 함께한 상대나 함께한 세월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이다. 동화기업은 서구의 2차 산업을 이끌었고, 앞으로 4차 산업의 발판이 될 것이다.



| M PARK 단지^{B)}*

동화기업은 50여 년을 서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기업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동화기업과 목재 산업이 서구에서 50년, 100년을 함께 하며 지역의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 1) 동화기업과 관련한 사진 일부는 동화기업 홈페이지 동화그룹 디지털 역사관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https://www.dongwha.com/historyhall/index.html>
이후로 동화기업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에는 *를 하도록 한다.
 - 2) 동화기업 사원번호 1번은 승상배 회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진창화는 사원으로서는 첫 번째인 셈이다.
 - 3) ひっぱり[引(っ)張り] :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뜻하는 일본어.
 - 4) 승상배가 고안한 장비로 바다에 하역된 원목을 예인선으로 끌어오면 자동으로 저목호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식 컨베이어 벨트.
 - 5) 엠파크는 목재산업으로 성장한 동화기업이 향후 새로운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제안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다. 가좌동 목재공장 자리에 만들어졌다.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영창악기와 인천

- 1 들어가며
- 2 영창악기 연혁
- 3 접착반 이재술
- 4 도장반 윤지선
- 5 목공반 이상우
- 6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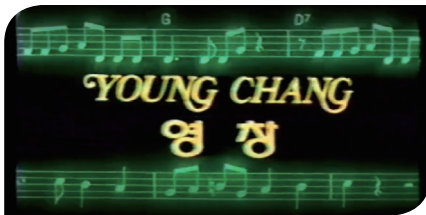
김경은 (소설가)

Ⅲ.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 영창악기와 인천

1. 들어가며

가좌동에 소재한 영창악기는 단일 회사로는 서구 일대에서 최대 규모였다. 사원 수가 최고 5천 명에 달했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서구의 경제와 문화에서 영창악기를 제외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영창피아노, 맑은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이라는 가사와 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전파를 타며 많은 사람의 기억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1990년대를 산 사람이라면 아마 이 CM송을 대부분 알 것이다. 같은 노래로 여러 버전의 영창피아노 광고가 있으며 90년대 이전 광고도 확인된다. 이 노래가 히트하고 피아노 광고를 대표하게 된 것을 보면 성공한 광고였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주력 업종으로 피아노 판매에 그만큼 힘을 쏟았다는 사실도 말해준다.



| 영창피아노 광고

출처: <https://blog.naver.com/hipard>

피아노는 교양을 드러내는 취미생활로 오랫동안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근대식민지기에 수입된 이 서양악기는 일찍이 소설가들 눈에도 포착되어 작품에 종종 등장했다.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에는 방학에 귀향한 옥점이가 피아노를 ‘뚱뚱뚱뚱’ 치는 장면이 나온다. 지주인 아버지는 무남독녀 옥점이가 그 비싼 악기를 사내라고 조르자 신여성의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 딸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준다. 현진건의 작품 『피아노』(1922)에서는 신접살림 차린 부부가 다들 줄도 모르는 피아노를 들여놓고 마냥 흐뭇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식민지의 어려운 상황을 그리면서도 풍자와 해학을 잃지 않던 현진건은 피아노라는 장식물로 교양을 시위하는 세태를 한 편의 콩트에서 꼬집은 것이다.

의식 수준이 물질적 수준을 미처 따라잡지 못해 흥내만 내는 이러한 속물성을 보여주는 물건으로는 집집마다 장식장에 꽂혀 있던 명작 전집류를 들 수 있다. ‘전집류 장식’은 차츰 한국사회에서 사라졌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피아노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1990년대 들어서도 현진건이 말한 ‘피아노 세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녀들은 집과 학원을 오가면서 피아노를 연습하지만 바이엘이나 체르니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일찍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꾸리는 데 전혀 ‘불필요한’ 취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피아노를 지속적 취미로 삼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다. 때문에 컴퓨터라는 다른 대체 오락물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이 ‘귀족적 취미’를 버리게 된다. 컴퓨터의 등장 외에도 여러 상황이 겹치며 1990년대 후반 들어 피아노를 생산하던 영창악기와 삼익악기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다. 1980년대 후반 생산량의 최고점을 찍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동안 호황을 누리던 영창악기는 문을 닫아, 근무하던 많은 사람이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운명을 맞이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말할 때 구조 중심으로 바라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을 따지게 되고 그 속에서 노동하고 일상을 영위하던 사람은 놓치기 십상이다. 마치 마이클 조던이 나와서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덩크슛을 날리고 'JUST DO IT'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나이키 광고에서 한땀 한땀 박음질하며 신발에 피땀을 쏟아부은 노동자들의 노고는 가려지듯이 말이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전략에서 이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앞서 말한 영창악기 광고에서도 맑고 고운 이미지와 소리를 강조할 뿐 생산자들의 노력은 드러내지 않는다.

흔히 제조생산업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심폐기관에 비유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이른 아침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기계를 돌리고 노동하던 사람들은 지역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구조가 바뀌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서구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서구 일대의 거주민이기도 했던 이들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호된 진통을 경험한다. 현재 영창악기는 남아 있지만 상품생산 위주의 예전 제조업과는 다른 성격의 회사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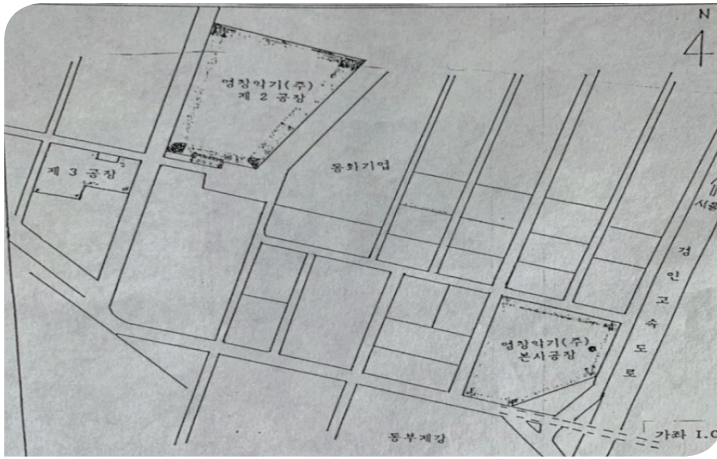
영창악기 직원이 5천 명에 달하던 시절을 얘기해 보자. 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서구는 숨 쉬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재 서구 지역의 변화 속도는 아찔할 정도로 빠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예전을 기억하는 장소는 사라지고 있다. 회사와 집을 왕복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이들의 구체적 생활을 듣고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때 영창악기는 어떤 회사였고 영창악기에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거주 지역에서 형성한 문화는 어떠했고, 퇴사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은 1980년에 입사해 가공조 접착반 일을 하면서 27년 근무한 이재술, 1985년에 입사해 목공반에서 20년 근무한 이상우, 1986년에 입사해 도장반에서 2년을 근무한 윤지선, 3인이다.

2. 영창악기 연혁

‘영창악기’로 널리 알려진 ‘영창악기제조공장’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6’이다. 1956년 11월 3일 영창악기의 전신 ‘신향피아노’가 설립되었고 1961년 브랜드 ‘영창(YOUNGCHANG)’으로 홍콩에 국내 최초로 피아노 수출을 시작한다.¹⁾ 법인을 설립하여 1962년 9월 11일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로 출발하며 1968년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목공 부문 금메달 획득, 1972년 국내 최초로 4500대의 피아노 일본 수출, 1973년 독일 뮌헨 국제기능올림픽 목공 부문 은메달 획득 등, 업적을 쌓아 입지를 다진다. 명동 태흥빌딩에 무역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악기제조공장을 건설한 시기는 1971년 9월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8년 인천 가좌동에 악기제조 종합공장을 건립하였으며 전문 목공기계 생산을 시작한다. 인터뷰이 이재술에 따르면, 원래 악기제조 공장이 서울 대림동에 있었는데 화재로 시설이 소실되는 바람에 화재보험금을 타서 생산공장을 인천으로 옮겼다.

당시 인천은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부평과 주안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었다. 1963년 구로와 부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발표가 구로로 축소 변경되자 상공인들이 나선 것이다. 이로써 명칭도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로 하였으나 나중에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로 흡수된다.²⁾ 영창악기는 이렇게 조성된 기계공단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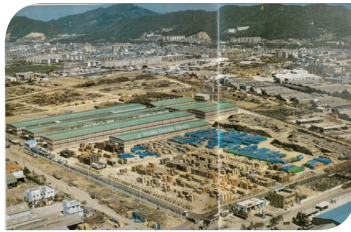
| 영창악기 위치

출처 :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



| 영창악기 제1공장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



| 영창악기 제2공장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

피아노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제조 생산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후발 산업국가에서 유치해온 업종이었다. 제작일 1979년 12월 15일자 <대한뉴스>는 ‘영창악기 인천공장 준공’으로 ‘자동 작동시설과 일관된 작업체제를 보유’하고 ‘매달 1만 5천 대의 각종 악기를 생산해 유럽과 미주 등 세계 18개 지역에 수출’하는 영창악기 소식을 내보낸다. 뉴스는 악기가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전략 품목이었음을 알려준다.



| 대한뉴스 : 영창악기 공장 내부



| 대한뉴스 : 영창악기 준공 플래카드

우리나라 악기산업은 팽창하고 영창과 삼익 피아노가 국내 과점시장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는 1987년 제2공장을 완공하면서 연간 12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1991년에는 제3공장(건평 4500평)을 세우고 디지털 악기나 신디사이저 같은 전자악기 생산라인을 본사에서 제3공장으로 옮긴다. 이에 앞서 영창악기는 1990년 디지털악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커즈와일(Kurzweil) 연구소를 인수한다.³⁾

그러나 지나친 사세 확장⁴⁾ 컴퓨터의 보급, 피아노 국내 보급률의 한계치 도달, IMF 위기 등의 악재가 겹쳐 1998년 9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다. 이후 1999년 제2공장을 매각하고 연이어 제3공장까지 매각하면서 대량 감원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2004년 사측은 부도를 낸다. 이에 앞서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아노 시장 독점을 우려해, 1년 내로 제3자에 매각할 것을 삼익악기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06년 현대산업개발 그룹이 영창악기를 인수하고 2012년 (주)영창뮤직으로 회사명을 바꿨으며 2018년 HDC영창(주)로 다시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 영남약기 전경⁵⁾

3. 정착반 이재술

1) 성장기, 창원에서 부산, 인천으로

이재술은 1959년 경상남도 창원군 북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낙동강에서 불과 사오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어린 시절 강에 가서 미역잡고 놀던 기억이 있다. 형제는 1녀 5남이며 맨 위로 누나가 있고 그는 아들 다섯 가운데 넷째였다. 집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앓아누운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약값으로 얼마 되지 않는 논과 밭도 팔아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재술은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떼쓰며 울었다. 마을에는 포레 친구가 열 명쯤 있었는데 친구들은 모두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혼자만 못 가게 되자 그렇게 서러울 수 없었다. 울면서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집안 사정을 뻔히 알아 포기도 빨랐다. 이후 이웃 동네 한약방에 가서 잔심부름하며 었혀살았다. 그의 집은 북면에 있고 한약방은 동면에 있었으며 그 사이를 낙동강 배후습지인 주남저수

지가 가로막아 한약방에서 먹고 잘 수밖에 없었다.

2년이 흐르고 이왕이면 넓은 곳으로 나가야겠다 싶어 그는 부산으로 간다. 부산에는 큰아버지 댁이 있어 오래 기거하며 신세를 졌다.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취직한 작은 공장에서도 한약방에서처럼 심부름만 시켜 조바심이 일었다.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선반을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는다.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인천으로 상경한다. 당시 인천 석남동에 살던 외삼촌이 누이인 어머니를 곁에 와 살자고 부른 것이다. 외할머니도 인천에 함께 계셔서 가족들은 연고가 있는 인천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터울이 많이 나는 누나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출가했고 그도 부산에 남는다.

그는 15세에 살기 시작한 부산을 19세에 정리하고 선반을 배우겠다고 마산으로 간다. 그렇게 가족과 더 멀어져 새로운 일자리에서 자취를 시작한다. 그러나 기술은 마음먹은 대로 익힐 수 없었다. 그에게는 심부름이나 단순 일만 시켰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어렵사리 뭔가 배울 수 있게 되자 군에 갈 나이가 되었다. 그럭저럭 흐른 세월이 어느덧 1년이었고 그는 신체검사를 받으러 인천에 올라온다. 가족이 이사하면서 온 가족의 본적을 인천으로 옮겨온 터라 올라와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1979년이었고 영장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는 다시 마산으로 내려갔다가 1980년 초 다시 상경했다. 당시는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어 그는 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16개월 방위 판정이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바로 영장 통보를 받지 못한다. 문의해서야 검단으로 배치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원래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데다 지역의 생활 빈곤자여서 방위 판정이 났다는 것이다. 베이비붐(Baby

Boom)세대라고 해서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출생자들이 군대 갈 무렵에는 입영 대상자도 증가해 방위 판정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가 맡은 일은 예비군 무기를 청소하고 훈련 소집 시 나눠주고 수거하는 등의 보관관리 업무였다.

“차라리 현역으로 갔으면 싶었어요. 그 당시는 3년 짝 채운 36개월 군생활 마지막 세대라서 복무기간이 길긴 해도 그게 나았어요.”

당국은 배려한 판정이었지만 교통도 불편하던 시대에 석남동에서 검단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이 그는 오히려 불편했다.

2) 영창악기 입사, 무늬목접착반 작업

이재술은 20세 때 영창악기에 입사한다. 1980년 9월, 1년 4개월의 방위생활을 마친 뒤 3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다. 1980년 12월 8일 날짜도 기억한다. 집에도 마냥 손 별릴 수 없어서 그냥 용돈이나 벌자 생각하고 면접을 봤다. 영창악기 공장은 석남동에 살면서 버스 타고 오가는 길에 봤었다. 그날도 지나가는 길에 사원모집 공고가 붙은 것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특별한 조건은 필요 없었고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 물어보기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부산 큰집 살 적의 가구 공장 경력을 얘기했다.

“그래서인지 어쨌서인지 무늬목 접착반에 배치해주더라고요.”

무늬목 접착반은 합판에 무늬 입히는 일을 하는 부서였다. 원목을 대패로 밀 듯이 얇게 종이처럼 밀고 재단해서 풀칠하고 붙이는 일을 했다.

“작업 공간은 10평 남짓?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영창악기에서 만드는 피아노는 크게 그랜드피아노와 업라이트피아노(upright piano)가 있었다.

“그랜드피아노는 거의 수출용이었어요. 업라이트는 국내에도 팔았고 수출도 했죠. 유럽도 가지만 주로 미국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출했어요.”

그는 그랜드피아노의 무늬목을 담당했다.

“그랜드피아노는 굴곡이 많고 크기도 해서 일일이 수작업했어요. 가정용, 연습용인 업라이트피아노는 자동화시스템도 점점 업그레이드됐지만 그랜드는 그럴 수 없었죠. 무늬목 색상은 아이보리, 붉은색, 갈색, 그런 색상이 있는데 도장 과정을 거쳐 색깔을 냈어요. 처음에는 하루 석 대 분량을 만들었는데 생산량이 늘면서 다섯 대까지 늘어났죠.”

입사 초기에는 일일 2천 원에 월 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주문량이 많던 시절이라 잔업과 휴일 특근에 철야까지 하면 150시간이 넘었다. 임금은 낮았지만 시간 외 근무가 정규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10만 원 넘게 월급을 탔다. 당시로선 큰돈이었다.

“한 달이면 하루이를 쉬었나 그래요. 힘들어서 쉬는 날은 잠자기 바쁘고 개인 시간 같은 건 상상도 못 할 때였어요.”

3) 낙엽 밟는 소리를 가려내라

무늬목 접착의 관건은 원목과 무늬목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아교 바른 원목에 무늬목을 매끄럽게 붙여야 했다. 만약 공기가 들어가서 어디 한 군데라도 떠버리면 그 부분을 칼로 긁어내서 다시 붙이든가 하는 방법으로 수리했다. 작업이 익숙해지자 소리만 들어도 어느 자리가 뚫는지 알았다.

“풀이 없으면 뜬 자리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요. 안 뜬 자리와 다르게 저 뭐냐…… 삭삭 낙엽 밟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는 뜬 자리의 소리를 ‘낙엽 밟는 소리’라고 표현했다. 손가락을 튕겨보면 뜬 데는 소리가 둔탁하고, 틈 없이 밀착되어 잘 붙은 곳은 청명한 소리가 났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시범을 보여줬다. 여러 군데를 튕겨보더니

“이 자리는 떼구만. 공기가 들어간 곳은 울림이 다르거든요. 거기를 떠 보면 여지없이 풀이 없죠. 손톱 반만큼만 떠도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풀이 안 발리면 공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무체가 골고루 실리지 않아 합판 사이에서도 소리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상한 곳을 눈으로 포착하여 소리 내보고, 칼로 오려보면 안 붙은 곳은 짝 벌어지고, 잘 붙은 곳은 칼이 안 들어간다. 가정용 엠파이트피아노는 목재를 갈아 써서 딱처럼 붙였고 그랜드피아노는 합판 조각을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두께에 따라 12장 내외로 붙였다.

“10년 차면 그런 걸 다 귀신같이 구분하지만 그래도 10년 차와 20년 차는 또 완전 다르죠.”

실력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저야 뭐 빨리 익혔죠. 풀칠도 잘하고 합판 붙일 때도 잘하고…… 경험 덕분에 빨리 익힌 것도 있고.”

부산에서 큰집에 있을 때 가구점 있으면서 어깨 너머 배운 게 있어 처음에 입사해서도 맡은 일이 신기하다는 생각은 없었던단다.

4) 동네 하나쯤 먹여 살린 영창악기

그가 다닐 당시 영창악기는 시간 외 근무가 거의 일상이어서 퇴근 후 술자리는 가볍게 끝날 때가 많았다. 그래도 술집이란 술집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자주 가는 사람은 주 서너 번 마시기도 했다. 그와

동료들은 막걸리 한잔하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서둘러 귀가했다. 때로는 2차까지 이어졌는데 밤 9시에 나와 1차를 시작하다 보니 2차를 마치면 12시였다. 회사 앞에 늘어선 포장마차나 구멍가게, 선술집 같은 데서 마실 때도 있었고 집과 가까운 석남동으로 나올 때도 있었다. 석남동으로 나오면 시장통 쪽으로 지하 족발집에 많이 갔고 목로주점도 단골이었다. 거북시장 목로주점은 보쌈만 하던 집이었으며 지금도 그 간판을 달고 그 자리에서 보쌈 외에 파전이나 골뱅이무침 따위 안주를 늘려 영업을 하는데 항상 자리는 만석이다. 가좌동 홈플러스s 방면으로 나아가면 아파트가 나오고 그쪽 식당으로도 많이들 갔다.

당시 영창악기 근무자들은 서구는 물론 동인천과 송림동 등지에 사는 사람도 많았다. 동료들과 어울려 술집을 찾다보면 자연히 그쪽까지 진출했다. 송림동과 동인천에도 실비집이 곳곳에 있었다. 지금도 영업을 하는 송림로터리 현대극장 근처의 알탕집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당시 5천 원이면 커다란 냄비에 알을 딱 채운 찌개가 나와 고된 노동에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다. 2천 원 하는 찌개도 많았고 돼지껍데기 안주도 자주 테이블에 올라왔다. 고등어를 갈비처럼 구워준다 해서 고갈비, 삼치구이도 만만하고 푸짐한 안주였다.

동인천 인하집, 신포동 넘어가는 길 아치탑 지나서 애관극장 뒤쪽으로 이모네, 고모네 같은 선술집은 당시 노동자들뿐 아니라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소문난 뒤풀이 장소였다. 어쩌다 일찍 퇴근하는 날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술집을 순회했다. 주말에는 좀 멀리 있는 부평까지도 나갔다.

“서구에는 영창악기 외에 큰 공장이 달리 없었어요. 영창악기 사원이 최대 5천 명일 때 4인 가족만 잡아도 벌써 2만 명이잖아요. 대우가 부평을 먹여 살렸다면 영창이 거의 동네 하나는 먹여 살린 셈이죠.”

세 집 건너 한 집에 영창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며 적어도 예닐곱 집

가운데 한 곳에는 영창 직원이 살았다고 봐야 한다. 세를 놓은 집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좌동과 석남동 상권은 영창악기에 달려 있었다.

그는 말이 나온 김에 영창악기 일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목재단지 하면 인천교 쪽에 삼익가구, 한양목재, 송림동 동서가구가 있죠. 북항 울도 쪽 매립지에 영창 제2공장을 건설했다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SK, 옛날 경인에너지가 있었는데 경인에너지는 월급이 세서 회식 한 번 나오면 통이 컸어요. 영창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거기는 부가세가 세니까. 거기 경인에너지, 두산인프라코아,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이런 데는 오륙천 원이었다고. 어쩌다 같이 술 마시고 지갑을 꺼내면 저리 치우래. 영창 두 배나 되게 받으니 계산할 때 술 값은 자기네들이 쓴다는 거지.”

울도 입구 쪽으로는 지금도 선술집이 많다. SK 들어가는 데까지 좌우 도로 사이로 식당이 늘어서 있다.

“도로 생기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술 마시려면 이쪽으로 나왔어요. 벚꽃 축제 때면 개방했는데 지금은 개방을 잘 안 하더라고요. 봉수대 로까지 벚꽃이 참 좋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좋아요.”

5) 사내 동아리와 산악회 활동

영창악기에는 동아리로 배구부, 축구부가 있었고 낚시회, 산악회도 여러 개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동아리를 중심으로 배구나 축구, 족구 같은 운동을 함께 하기도 했으며 동아리 모임은 퇴근 후에 가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헬스시설이 마련되어 짧은 점심시간보다는 퇴근 후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어로빅 교실이 유치돼 강습도 이뤄졌다. 그 당시 취미라고는 술 마시는 일 외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 때였다. 그나마 이런 여가활동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

이 활발해진 후였다.

“노조가 아무래도 사원들 복지를 신경 쓰죠.”

야유회는 부서 단위로 움직였으며 그가 속해 있던 접착반은 열댓 명 정도가 강화의 전등사나 함허동천, 동막해수욕장을 주로 다녀왔다.

그는 산악회 활동을 했다. 산악회는 남성 중심의 동아리였고 남녀 비율은 6:4 정도였다.

“사원 비율과 비슷했죠.”

산악회 인원은 버스 전세 낼 경우를 고려해 70명 정원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여기 들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산악회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산악회는 여러 개로 늘어났다. 그는 동아리 산악회 내의 뜻 맞는 사람들과는 등산을 특별히 더 자주 다녔다. 그러던 참에 신인천관광의 상무로 있던 친구에게 관광사업만 하지 말고 산악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차 한 대 규모인 30명 정도만 모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산을 좋아하는 그들 멤버 8인이 인솔하는 대신 경비를 무료로 하는 조건이었다. 대체로 사오십 명을 모아 회비를 받고 산행 안내를 했다. 이때 가이드를 할 당시(1993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연애 끝에 결혼했다.

멤버들은 이후에 해외여행을 등산코스로 잡아 다녀오기도 했다. 1990년에는 대만 옥산(玉山, 3952m)을 10명이 추석 끼고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1992년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일본 북알프스의 다테야마(館山)를 여행했다. 말레이시아도 다녀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올라봤다.

종교로는 주로 기독교도들의 활동이 눈에 띄었고 그중 산에서 모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우회라는 동아리가 있었다.



| 영창악기 산악회. 1997년 완도



| 다테야마(3100m) 정상



| 초여름 일요일 도담봉 앞에서

6) 퇴사와 새로운 일자리

영창악기가 현대계열사로 합병인수 되고 그는 2008년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영창악기가 잘나가던 시절은 IMF 2년 전인 95년까지 십 년이었어요. 93년 컴퓨터 나오면서, 286이죠. 그거 나오고 3년 후에 386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매출은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는 업종 전환을 회사 측에 제안도 해보았다고 한다. 결과는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을 잘난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OEM도 동남아로 다 넘어간다. 디지털피아노 같은 것도 안 된다. 그건 업소용이라 판매량도 한계가 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런 걸 생산해야 한다. 너희가 생산이나 하지 뭘 안다고 건의냐? 그러곤 안 받아들였죠.”

그가 처음 인천에 올라올 때만 해도 석남동 일대에 아파트는 없었다. 각처에서 상경해 판잣집을 하나둘 지으며 마을을 형성할 때였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가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생활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독립해 자취하다가 결혼을 했다.

“영창에는 기숙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니 삼익악기도 기숙사가 없었어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기숙사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나와 자취를 한다.

“여성이 많은 회사에는 기숙사가 있었죠. 아남전자나 성우전자 같은 데. 혼자서는 방세를 감당하기가 벅찼기 때문이에요. 80년대 후반에는 보증금 200에 월 이삼만 원? 그 정도 했어요. 87년에 방 하나짜리 반지하 월세도 많았죠. 빌라에도 반지하 많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단독주택들은 80년대 이후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 이란다.

“삼사십 년 된 단독주택들은 주인집과 셋집을 함께 들였어요. 그런 집을 개조한 집들이 석남동, 가좌동에 많이 남아 있죠.”

현재 이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거북시장 일대 쪽 큰길 건너 뒤에 보면 중국, 동남아, 이슬람 식료품 가게들이 많아요.”

그는 현재도 석남동에 산다. 처음 인천에 올라와 살 때부터 지금까지 석남동을 떠나본 적이 없다. 오며가며 예전 직장이던 영창악기를 지나갈 때가 많다.

“지금 영창은 공장에 전시실이 있고, 생산라인은 없죠. AS 점검과 반조립을 하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 점검하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브랜드만 붙여가지고 팔고 있어요. 피아노도 그랜드 말고 캐주얼 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OEM 방식으로 다 모집해서 완성하는 거죠.”

십대 때 기술을 배우겠다고 고향을 떠난 그는 27년간 다닌 영창악기 재직 기간에 피아노 분야의 고도기술이라 할 조율사 자격증을 딴

다. 조울사 역시 접착반에서 합판 사이 뜯 자리를 알아볼 때 이용하던 청각에 의지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 숙련도 높은 무늬목 접착일도 아니고 피아노 조율과도 관련 없는 주물회사(대영공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기능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4. 도장반 윤지선

1) 장사를 모르던 어머니

윤지선은 1962년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서강대 뒤쪽 대흥동에 태어난 집이 있었다. 맨 위에 오빠, 그 아래로 윤지선을 포함해 세 자매가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어린 시절까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식품점 정도여서 동네에 슈퍼마켓을 차린다. 가게를 차린 지 얼마 안 돼 집을 처분하고 강북에서 영등포로 이사한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1층에 점포 3개를 마련하여 두 곳은 세우고 나머지 한 곳에 식품점을 차렸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게는 얼마 안 가 문을 닫고 만다. 이유는

“당신은 결혼 전 혼수로 미용도 배우고 이거저저 해본 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관념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린 내가 봐도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는 외상으로 받아 가고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옆집 가더라는 것이다.

“아니 근데도 오면 항상 말 들어주고 또 외상 주고…… 세상 너무

고생을 안 하고 남들 어렵게 살 때 잘 먹고 잘살던 분이라 물정을 물랐던 거죠.”

그 뒤로도 어머니는 업종을 바꿔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가 세를 놓기도 하며 4남매를 키운다. 그사이 여전히 어머니의 가게 운영 능력은 제자리였다.

2) 백 불짜리 ‘크리스마스 피아노’

윤지선은 1986년 봄 영창악기에 입사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집에 머물다가 인천에 온 뒤 이곳저곳 회사를 전전하던 중이었다. 면접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시대라 신원 조치가 엄격했다. 입사 당시 전체 직원은 5천 명 정도로 영창악기 사원 수가 최고일 때였다. 그때는 넘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거의 매일 사원을 뽑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1987년에는 새로 개발한 목재단지 안에 제2공장을 세우게 된다.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

“영창은 3교대 아니고, 2교대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길었어요. 2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10시까지 연장근무 할 때도 많고 휴일 특근도 허구헌날 했으니까. 월급이 20만 원 넘을 때도 있었으니 근무시간이 얼마나 길었게요.”

87년 입사 당시 영창악기의 고졸 초임은 4,200원이었다.

“82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0만 원 미만을 없애라는 노동부 지침이 있었대요. 그래서 3,300원으로 일급이 맞춰졌는데 영창은 대기업이라 더 준 거죠. 그때 고졸이 많았고 중졸은 더러 있었어요. 전에 다니던 봉제공장은 보조 일당이 2,500원, 2,800원 선이었으니 어쨌든 많이 오른 거죠. 봉제공장은 학력이 국졸, 중졸이 대부분이었거든

요.”

그녀가 입사했을 때 영창악기에서는 백 불짜리 피아노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업라이트피아노보다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적당해서 미국에서 주문량이 쏟아졌다. 피아노는 부서가 총 5부까지 있었는데 4부까지는 일반용 작은 피아노를 생산했고 5부만 그랜드피아노를 생산했다. 그랜드피아노는 거의 다 OEM이었으며 생산량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에 전력하던 때예요. 피아노 수출에서 세계 1위를 하던 시기였으니까. 주로 주문자표시 방식이었죠. 우리 회사 말고 삼익악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악기란 악기는 모두 생산해서 생산량이 영창을 앞섰던 거예요.”

3) 살찐 사람 없던 도장반

윤지선은 도장반에서 피아노 뚜껑에 마크 붙이는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사포를 치거나 칠을 뿌리거나 하는데 이 일은 자리에 앉아서 마크를 붙이고 전기인두로 눌러주면 됐다. 금형이 딱 떨어져 있어서 그것만 제자리에 붙이면 되고 하루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다. 작업지시서에 가로×세로 치수 몇 센티, 나라, 위치, 브랜드 같은 것이 적시되어 오면 거기에 맞춰 작업했다. 위치를 잘못 잡으면 뜯어서 칠을 다시 하고 마크 붙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규정에 맞추는 일이라 단순한 일들 속에서도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일이었다. 마크를 붙이는 사람은 세 명이었다.

회사에 출근하면 우선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타서 마신다. 커피는 믹스커피였다. 작업을 시작하고 12시에 오전 일이 끝나는 종이가 울리면 점심시간이었다. 그녀가 영창악기에 다닐 때만 해도 점심값은 월

급에서 삭감했다.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 밥을 삼으로 찼다. 특히라면 김
치국이나 콩나물국이라 매일 먹으려니 질릴 대로 질렸다. 형편없는
음식을 돈 내고 먹는 게 아깝고 밥 먹기도 고역이라 주부들은 도시락
을 싸왔다. 항상 피곤에 절어 점심시간이면 잠자기 바빴다.

“그야말로 먹어 치우는 거죠. 점심 중 땀 올리면 10분 안에 먹었어
요. 뭐 운동하며 노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남자들은 주로 족구를
했고, 도장반 구석에서도 자고 아줌마들은 목재를 깔고 잤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가씨들보다는 기혼이 많을 때였거든요.
적당한 자리들을 다 물색해 놓고 쉬는 거예요.”

구내식당에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들의 밥 먹는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에 사람들은 불만이 컸다.

“커튼을 쳐 놓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감성적인 일에 더 예민하잖
아요.”

당연히 반찬도 차별했을 것이란 사실을 오며가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커튼도 걷어버린 것은
1988년 들어서였다.

휴일 특근은 주 2회 정도 했지만 4회 꼬박할 때도 많았고 철야도 특
하면 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해 보며 퇴근한 날이 거의 없었다. 2시간
잔업 하는 날은 5시에 우유와 빵을 하나씩 줬고 10시까지 하면 밥을
제공했다. 돈 버는 맛에 잔업에 야간, 철야까지 기꺼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다.

윤지선이 입사할 당시엔 여성 사원은 기혼이 많았으나 증원율이 높
아지면서 기혼보다 미혼 숫자가 많아졌다.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영창이 한창 팽창할 때라 사람을 엄청
나게 뽑았거든요. 검단 쪽에서 다니는 주부들도 많았어요. 집에서 농
사를 지으니까 도농복합체였던 거죠.”

도장반은 1급 위험지역이었다. 목공부에서 형태를 재단하고 만들어서 물건이 오면 라카를 뿌려 색깔을 입혔고 광택을 내서 조립반으로 내보냈다. 작업 현장은 통으로 뚫려 있는 곳에 여러 부서가 함께 있었지만 도장반만은 사방을 막아뒀다.

“온도 맞춰야죠, 습도도 맞춰야죠.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도 따뜻했어요.”

호흡기관이 나빠져서 도장반에 오래 다닌 근무자들은 빠짝 마르고 뚱뚱한 사람이 없었던단다. 환풍기만으로는 공기를 정화하기에 한참 모자랐다.

도장반의 작업대는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여기에 피아노 뚜껑을 올려서 돌렸다.

“도장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청소를 했거든요.”

가장 힘든 청소 구역은 행어가 있는 곳이었다.

“뚜껑을 걸쳐놓고 칠을 할 수 있게 행어를 설치했거든요. 거기 칠이 엄청나게 붙어서 쌓였어요. 일주일 동안 라카를 뿌려대니까 두껍게 더께가 앉는 거죠. 그나마 뚜껑만 하는 데는 덜 힘들었는데 피아노 몸통을 하는 데는 죽어났겠죠. 거긴 제가 있던 부서와 다른 부서였어요.”

4) ‘아줌마’ ‘아저씨’ 들의 사는 재미

영창악기에 다니던 시절 미혼이던 윤지선은 주부 근무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났었다.

“아줌마들이 일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번 돈을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가서 쓰는 거예요. 철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영화 보고 취미생활이라도 좀 하지. 아니, 힘들게 벌어서 그런 데 가서 써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 아줌마들

보면 일찍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가 20대 초반에 결혼하던 때라 살다 보니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데 가서 이상형 남자 만나서 손도 한 번 잡아보고 돌아오면 마음 잡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기능이 있구나 생각하며 아직은 다른 세계에 속한 ‘아줌마’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의 남편은 대부분 일용직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버스기사였고 남편들 역시 세상이 그들 편이 아니었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과음하고 때로는 아내한테 폭력을 쓰는 가정으로부터 숨통 틈을 문화공간이 당시로선 극히 제한돼 있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중고등학교 보낸 애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돈을 벌어야 했다. 나이트클럽에 다닌다지만 일찍 결혼해서 집과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들이라 요즘에 비할 바 아니게 순박했다.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싸 오면 함께 나눠 먹고…… 우리야 호빵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어머 고마워요, 하죠. 요즘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뭐 호의라도 베풀라치면, 다른 뜻은 없고 이거 내가 우리 집에 많아서 가져왔으니 하나 먹을래요? 주는 쪽에서 더 조심스럽죠.”

기혼남들은 기혼남들대로 힘들었다.

“결혼한 아저씨, 너무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인데 월급날 없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나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며칠 지나면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보니.”

그런가 하면 월급 타면 며칠 안 보이는 독신남들도 꽤 있었다.

“술 마시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나오는 거죠. 근데 기술은 좋아서 잘리지는 않아요.”

월급 타고 이틀 정도 안 나온 사람들은 꽤 많았다. 사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 달이면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생활에 탈출구가 없는 것이다.

결혼은 사내 결혼이 많았다. 미혼 입사율이 높아진 이후로 사내 커피는 더 늘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다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녀는 어쩌다 생기는 시간이면 또래의 동료들과 주로 동인천으로 놀러 갔다. 긴 지하상가를 오가며 옷 구경도 하고 신포시장에 들렀다.

“신포닭강정 밑에 분식센터 좌악 있고 거기 알록달록한 거 많았어요. 함께 이것저것 맛있는 거 시키고 계산은 더치페이로 하는 거죠.”

그 시절, 여자들은 여럿이 모여 컷돈을 부었다.

“그 시간에 은행 가기도 힘들고, 목돈 만들기 위해 했죠. 보통 10만원? 한 달 월급 정도. 친한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돌아가며 돈 태우고 잘 되는 게 못 들어가면 따로 만들어서 하고.”

노동조합(당시는 한국노총 소속)에서 소비조합을 운영해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자주 이용했다. 비누나 치약 같은 생필품은 시중보다 저렴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던 품목은 믹스커피였다.

5) 자취 풍경

석남동 일대에 그 당시 지은 집들은 양옥집이었다. 방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부엌은 시멘트 부뚜막이었고 연탄보일러였다. 자취생들은 ‘곤로’로 알려진 석유풜로를 취사에 이용하다가 ‘부르스타’로 더 많이 알려진 가스버너가 나오면서 이를 이용했다. 석유 넣는 게 귀찮기도 하고 연기도 나거니와 세끼를 거의 회사에서 때우다 보니 많이 이용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방안에서도 라면을 끓이기가 편했다. 자취생의 방안 풍경에서 빠질 수 없는 가전제품은 텔레비전과 냉장고였다. 어쩌다 휴일이면 덩굴며 텔레비전 보는 게 낙이었다. 빨래는 손빨래를 하더라도 선풍기, 카세트플레이어를 장착한 라디오,

드라이기 같은 걸 갖추고 살았다.

동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활고를 덜 겪은 윤지선이 경제관념을 체감한 생생한 경험은 이랬다. 청천동에서 봉제공장에 다닐 때였다. 미싱사 언니가 물건 사는 데 함께 가자고 청해서 따라간 날이었다.

“이불 하나와 곤로 하나를 사는데 할부로 외상을 끊는 거예요.”

알고 보니 평소에 터놓은 안면을 신용으로 동네가게에서 그렇게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용카드가 없던 시대의 인간미 살아 있는 신용거래였다. 1985년 겨울이라 그녀의 월급은 10만 원이 안 될 때였지만 그 언니는 미싱사라 10만 원을 넘게 받았다는 것이다. 방값 내고 이삼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때였다. 또한 시골집에 다달이 돈을 부치고 남는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리는 사람도 많았다. 1986년 효성동에서 세 들어 살 때는 10만 원 보증금에 4만 원 월세 방을 두 사람이 룸메이트가 되어 함께 얻어야 했다. 야근을 해야 겨우 10만 원을 받아 방세를 지불하다보니, 임금이 낮은 봉제회사에서 사원을 유지하려면 기숙사 운영이 거의 필수조건이었다.

석남동과 가좌동이 생활권으로서 커지기 전에는 동인천이나 송림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았다.



| '갈매기의 꿈'에서 이야기하는 윤지선



| 10년 넘게 운영해온 갈매기의 꿈

6) 갈매기의 꿈

윤지선은 현재 구월동에서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한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주점 골목으로 가면 우측 안쪽으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가게 이름에도 항구도시 인천을 연상케 하는 ‘갈매기’를 따왔다. 소주, 맥주, 청주 같은 주종이 있지만 막걸리가 특화된 집이다. 홍어, 민어, 아구, 문어 등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가 있고 직접 빻은 두부로 만든 다양한 요리는 별미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윤지선은 말한다.

“가게를 오래 하다 보면 껌들이 있어요. 우리 가게를 속속들이 알고 주인하고 친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문 닫을 시간이 돼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10시면 딱딱 가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늦게 결혼해서 낳은 딸 하나는 아직 어려서 뒷바라지하려면 70살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건강하라는 의미로 아이에게 술 조금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운영에 큰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해도 한 자리에서 오래 영업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가게 운영 능력’을 물려받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란다.

5. 목공반 이상우



| 영창악기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상우

1) 상고 졸업과 영창악기 입사

이상우는 경기도 양평 출신이다. 1966년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운 형편에 공부 욕심이 없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졸업 후 수원의 삼성전자 하청 회사에 학교 추천으로 취업하지만 2교대인 회사를 육칠 개월 다니다가 퇴사한다.

5개월 정도 쉬던 중 인천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영창악기 모집공고를 본다. 갈산역 근방이었다. 실직 상태로 지내던 중이라 가방에 이력서를 넣고 다니던 때였다.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그를 포함해 30명 정도의 인원이 면접을 봤고 육칠 명이 채용되었다. 사원은 매일 뽑고 있었다. 군입대를 앞뒤 안 될 줄 알았는데 합격해서 1985년 10월인가 11월 가을부터 출근했다.

2) 자유로운 작업 분위기

영창악기를 다니면서 초기에는 삼성과 영창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하청 업체였지만 삼성의 규율을 따르던 곳이라 분위기가 삼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머리는 무조건 귀가 보이게 잘라야 했다. 당시엔 장발이 유행이라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반발심을 갖게 하는 지침이었다. 뿐만 아니라 퇴근 시 몸수색을 했고 회사 담은 높았으며 CCTV가 설치돼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압적이고 위화감을 일으켰다.

그렇게 숨 막히는 곳에 있다가 영창악기에 오니 환경은 지저분해도, 아니 그것마저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해서 좋았다. 게다가 오후 출근이 가능하고 오전에 지각하거나 사정이 생겨 점심시간 지나고 출근해도 불이익이 없었다. 아프면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미리 얘기한 뒤

병원에 들렀다 오후에 출근할 수 있었다. 잔업할 때는 술을 마시며 일을 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지나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작업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장시간 노동에 그런 것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 눈감아 주는 게 아닌가 했다.

그는 목재 쪽에서 제재를 1차 가공하는 일을 했다. 현을 건드려 소리를 내게 하는 향판 작업이었다. 초임을 삼성보다 더 많이 받아 ‘삼성 별거 아니네’ 했던 기억이 있다. 삼성에 다니는 형들이 있어 거기 사정을 알고 있던 터였다. 형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삼성은 시급제로 400원이어서 8시간 일하면 3,200원이었다. 그는 초임을 3,700원 받다가 군대 가기 전 4,100원까지 올랐다.

잔업은 보통 밤 9시까지 4시간을 했다. 점심시간까지 더해 하루 9시간, 거기에 잔업을 합하면 13시간, 출퇴근을 30분씩만 잡아도 회사에 들이는 시간이 14시간은 됐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했다. 그리고 월 두세 번 쉬거나 두세 번 특근을 했다. 일 욕심 있는 사람은 꼭 채워서 특근을 했다. 사실 삼성 계열에 있을 때는 주야 교대하며 철야를 하느라 일을 더 많이 했었다. 그러다 보니 컨베이어벨트에서 줄면서 작업할 때가 많았다.

3) 입대와 제대, 재입사

영창악기를 다닌 지 일 년도 안 돼서 이상우는 군에 입대한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받아 일등군인으로 인정받고는 청와대 앞으로 선발 파견된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이며 산책로에 마사토를 깔고 비 오면 덮으면서 5분 대기조로 복역했다. 병장 말년에 계속 군에 남아줄 것을 권유받지만 엄격한 규율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던 그는 88년 말 제대한다. 제대할 무렵 영창악기 복직을 마음먹은 터였다.

입대 전 그는 회사로부터 복직하면 군 30개월을 경력으로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 일단 사직서를 미뤄두고 퇴직금도 보류한 채 입대하고 전역하자마자 다시 입사한다. 그러나 재입사 때만 해도 영창악기에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다. 좀 더 좋은 직장 생기면 이직할 마음으로 대헌공업전문학교 야간에 입학해 야근을 빠진다. 그런데 막상 다니면서 보니 대학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학교를 나가지 않자 그를 눈여겨봤던 교수가 집까지 찾아와 졸업장만 따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결심이 확고했던 그는 그대로 자퇴한다.

월급을 타면 전액 어머니께 송금했다. 동생들이 그보다 공부를 잘 해서 기꺼이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생활은 2개월마다 나오는 상여금으로 꾸려나가며 자취 생활을 했다. 영창악기의 임금은 대우그룹보다 낮고 3공단이나 5공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그가 근무할 당시 1공장에만 2,500~3,000명이 근무했다. 그 인원이 출퇴근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4) 출근길 대이동

이상우는 한동안 서울에서 출퇴근했다. 외할머니가 밥하고 빨래는 해줄 테니 집에 와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 그런 거 제대로 못 할 거 아니냐. 내가 해줄 테니 힘들어도 서울에서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 가기 전후 4년여를 회기역에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했다. 부평역에서 내리면 12번을 타고, 동암에서 내리면 7번, 줄다가 동암역을 지나치면 제물포에서 11번을, 더 줄아 하인천까지 가면 택시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제물포역에서 5번을 타고 인천교를 지나 경동산업에서 내리는 사

람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동부제강 방면에서 경동산업으로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하차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출근길에 볼 수 있었죠. 전부 이삼천 명 됐어요. 그 건너편으론 영창악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창 정문하고 서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12번, 41번, 7번에서 내리고, 석남동하고 가좌동 골목에서도 걸어오면 일대가 출근하려고 줄지은 사람으로 장관이었다니까요.”

성민병원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영창악기에서 내리면 훨씬 더 실감났다. 고속도로와 영창악기 사이에 놓여 있던 좁은 도로 옆 더 비좁은 인도로 물 쏟아지듯 내려오다가, 반대쪽에서 같은 장관을 연출하며 올라오는 행렬과 만나 출렁이며 정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정동에서, 신흥동에서, 효성동에서, 서구청 넘어 심곡동에서, 가좌동 방면에서, 반대편으로 송림동, 도화동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대이동이었다. 게다가 이들 시내버스는 ‘도봉산’으로 불리던 학교(향도, 운봉, 운산)와 박문여고, 인천여고, 인일여고, 제물포고 등 구도심권에 몰려 있던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인천 전 지역에서 이용하느라 항상 만원버스 ‘콩나물시루’였다.

한편 고속도로 옆에 있으면서 대로에 위치한 영창 제1공장은 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공장은 차를 타고 다시 십 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늦으면 택시를 탔다. 제3공장은 규모가 작았고 제2공장보다는 덜 들어간 곳에 있었으나 역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5) 피아노산업의 쇠퇴와 목재산업의 사양화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 영창악기의 사정에 대해 깊이 알고 있던 이상우가 들려준 피아노산업과 목재산업의 쇠퇴는 이렇다.

목재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수입한 목재를 건조해서 절단하고 표면을 밀어 사포질을 해야 도장을 잘 받는다. 이 과정이 엄청난 공정이다. 여기 투입된 사람은 많지만 실제 1인당 매출액은 적었다. 대우자동차에 의자 시트를 납품하는 동흥전기나 아남인스트루먼트(Aname Instrument)의 제품 부가가치가 더 높아서 매출액도 더 컸다.

그 많은 사원의 지역구성을 보면 충청도가 45%, 호남이 25%였고 세 번째로 경인지역 출신이 20% 정도였다.⁹⁾ 그러나 예전부터도 뱃길로 인천을 왕래하던 충청도 출신들은 대개 인천사람이 다 돼 있었다. 또한 부모님 고향이 어디이든 인천에서 학교 다니며 인천 출신이 된 사람도 많았다.



| 영창 피아노



| 현대 포니자동차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피아노는 현대자동차 포니⁷⁾가 나올 당시엔 자동차 가격과 맞먹었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미국 피아노 저가시장을 장악했고 냉전기가 지나자 짧은 기간에 저가시장은 중국이 장악했다. 한편 일본의 브랜드 야마하는 중가시장을 장악한다. 1990년대 초중반 컴퓨터가 엄

청난 속도로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여기 빠져들자 영창악기와 삼익악기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피아노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목재산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1990년 초반에서 1996년 하반기까지 목재산업 쪽 회사들은 폐업의 길을 걸었다. 인천교에 있던 삼익가구, 한양목재도 그 시기에 문을 닫았다. 바르크가구도 축소되다가 문을 닫았다.

사실 피아노 산업의 쇠퇴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도 보급률 15%가 넘어가면서 악기 분야는 사양산업이 되었다.⁸⁾ 당시 우리나라도 보급률이 7%가 넘어가고 있어 생산량은 필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1988년이 영창악기의 고용 규모나 생산량,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제일 높았고 그 시기는 노동조합 활동도 가장 활발하던 시기였다.



| 영창악기 노동조합회보

6) 영창악기 퇴사 후

그는 2004년 영창악기를 나오며 20년 다닌 회사를 정리한다. 퇴사 후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취직하는 데 불리했다.

“영창악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큰 재능이랄 게 없어요. 스켈레톤, 조립은 경력을 인정 못 받고 그나마 목재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작

은 목재공장 가서 인정받는 정도죠.”

생산공정은 자동이라 98%까지는 기계로 조율되어 조금만 조이고 풀면 100% 맞춰지기 때문에 기능이 필요 없는 분야였다. 기능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퇴사 후 조율사를 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현재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이따금 영창악기 사람들 모임에 나간다. 모임은 잘 되는 편이다.

“모이면 옛날얘기, 사는 얘기 하죠.”

6. 나오며

창업자 김재섭 회장이 1956년 열세 명의 직원과 함께 외제 부품을 수입해 피아노를 조립하며 시작된 영창악기의 직원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5천 명을 넘긴다. 영창악기의 ‘인천시대’는 1978년 서구 가좌동에 제1공장을 세우고 악기를 생산하면서 시작되고 승승장구하여 제2공장에 이어 제3공장까지 세우면 절정에 이른다. ‘석남동과 가좌동 일대의 상권은 영창악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창악기가 가진 생산력과 그에 따른 영향력도 막강했다. 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영창악기는 1998년 삼익악기와 더불어 과점시장을 형성하며 99%의 국내시장 점유로 국내 1, 2위를 다룬다.

목재류가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영창악기의 악기 생산, 그 가운데서도 피아노 생산은 국내외 악기 보급률이 한계치에 이를 때까지 서구의 목재단지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위치해왔다. 이를 입증하듯이 바다를 끼고 있던 제3공장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가 떠 있었다. 악기재로 사용하는 나무는 하드메이플(단풍나무), 스프루스(가

문비나무), 애쉬(물푸레나무), 엘더(오리나무) 등이다.⁹⁾ 때가 되면 이를 잘라서 눈비 맞혀가며 말리기를 이삼 년 반복하고 찌는 지난한 세월을 흘려보낸다. 이것은 피아노의 건반, 향판, 다리, 보면대, 페달목, 몸판 등에 쓰였다. 일대의 갯벌을 매립한 청라지구에는 한동안 산더미처럼 목재가 적재돼 있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목재단지가 있는 서구에서는 흔히 벌어지던 광경이다. 삼익가구의 목재는 인천교가 있는 앞바다에 둥둥 떠 있었고 가구회사 선퍼니처, 바르크, 우아미도 그렇게 목재를 바다에 띄워놓았다.

이렇게 서구 지역을 지배하던 거대한 풍경은 영창악기를 비롯해 목재단지 노동자들이 다루던 재료였다. 영창악기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을 일하면서, 때로는 밤샘 철야까지 해가며 나무를 그릴듯한 악기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은 하루 24시간의 절반을 넘겨 회사에서 일하며 도시가 숨 쉬고 살아갈 영양분을 만들었다. 퇴근 후면 가좌동과 석남동 일대를 누볐고 때로는 송림동, 동인천, 신포동, 부평까지 진출하면서 혈류처럼 흘러 은성한 서구를 만들었다.

- 1) 초대 회장 김재섭은 평양의 정미소 집에서 4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난다. 진남포상공학교를 졸업하고 송본 피아노제작소, 화신백화점 악기부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고 창사 초기 13명의 직원과 외제 부품을 수입해 피아노를 조립했다. 65년에는 일본 야마하와 기술 제휴하여 영창 브랜드의 발판으로 삼는다. 영창은 그의 형들(재영·재창) 이름에서 따온다(김종윤, 중앙일보, 2002.08.19.).
- 2) 서민철, 『인천 초기 국가산업단지의 형성 과정과 산업집적지의 특성』, 『기전문화연구』 37, 2016. 117-118쪽.
- 3) 1982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전자악기 전문기업으로 스티비 워더, 빌리 조엘, 저스틴 비버 같은 뮤지션들이 커즈와일의 악기를 애용해왔다(김정범, 매일경제, 2015.11.10.).
- 4) 영창악기가 98년 9월 28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7년 해외법인 설립 등에 무리하게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화근이었다(이병문, 매일경제, 2002.06.17.).
- 5) 안정윤 외,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인천광역시 민속조사보고서, 2018. 344쪽.
- 6) 지역구성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990년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해 지역구성 명단을 뽑았을 때 충청도가 1/3을 차지하고 호남과 영남의 인원이 어슬비슬하면서 호남이 조금 앞서는 정도였다고 한다.
- 7) 1976년 현대자동차에서 시판한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로 가격은 2,289,200원 선이었다(현대자동차 홈페이지와 위키백과 참고).
- 8) 영창악기 제공자료에 따르면 1995년 업라이트피아노 시장은 미주가 17.2%, 유럽 21.7%, 아시아 58.2%, 기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1989년에 악기의 한계 보급률 25%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있다(이영주, 『주요 피아노업체의 경영전략 비교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8, 22-23쪽.).
- 9) 이들은 특수목이라고 하는데, 특수목은 소나무류의 침엽수 계열 목재와 구별하기 위해 목재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가격이 비싼' 활엽수 계열 목재를 지칭하던 말이 상품명이 된 경우다(서법석, 나무신문, 2020.06.23.).

IV

경동산업의 어제와 오늘

국내 최초의 양식기제조업 '경동산업'에서 노동자자주회사 '키친아트'까지

- 1 가좌 1동, 갯벌에서 염전으로 다시 공단으로
- 2 경동산업, 가좌동에 새로이 터를 잡다
- 3 경동에서 일하기
- 4 경동산업과 민주노조운동
- 5 경동산업, 문을 닫다
- 6 지역과 더불어, 노동자 자주기업 키친아트
- 7 아직도 남아있는 경동의 흔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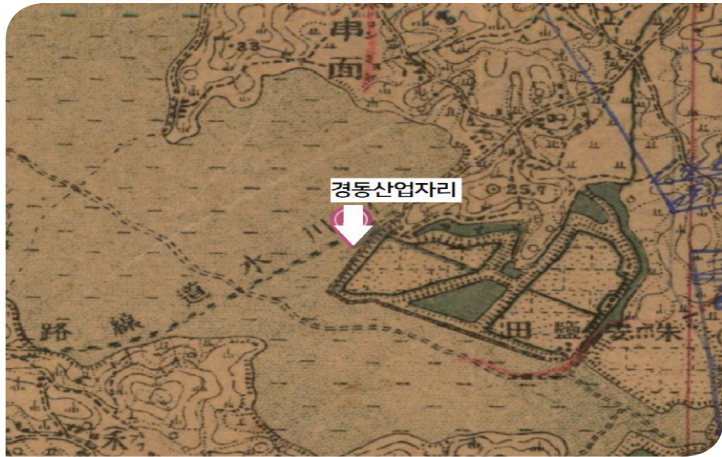
김희주 (인천역사교육연구소장)

IV. 경동산업의 어제와 오늘

- 국내 최초의 양식기제조업 ‘경동산업’에서
노동자자주회사 ‘키친아트’까지

1. 가좌1동, 갯벌에서 염전으로 다시 공단으로

가좌동은 옛 부평부 석곶면 소속의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가좌리라 이름했다. 가좌리에는 본마을인 가재울과 건지골, 감중절리,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하지만 경동산업이 있던 지역은 어떤 마을에도 속하지 않는다. 100여년 전만 해도 그 자리는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이었다. 가좌동 사람들이 개진너마일에 가려면 만조 때는 수도나루의 나룻배를 이용하고 간조 때는 돌다리를 이용하였다. 갯골 양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인 주안염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1907년 십정동 일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여 그 가능성이 확인되자 주안 갯골을 사이에 두고 1914년까지 제1구에서 제5구까지 99정보의 염전이 조성되었다. 이후 1918년에 염전을 확대하면서 제6구, 제7구, 제8구의 염전이 조성된다. 이때 갯벌이 매립되면서 경동산업이 자리하게 될 지역에 주안염전 제7구가 들어서게 되었다.



| 1920년대 가좌동 일대와 경동산업 자리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구지도)에 재도안



| 가좌동과 도화동을 오가는 나룻배

출처 :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인천서구문화원



주안관할염전도(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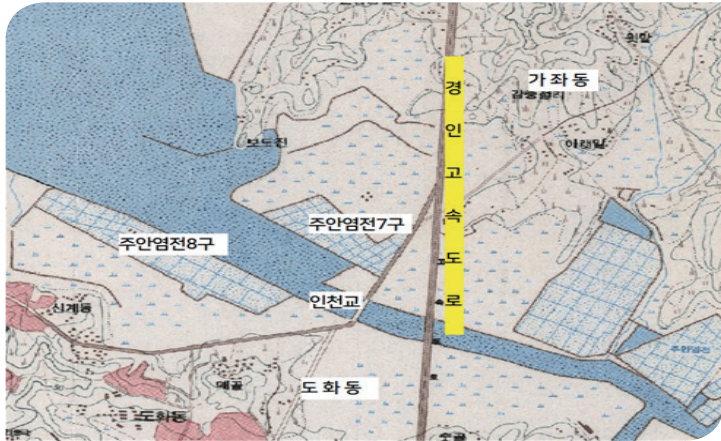
출처 : 『인천향토지』, 인천교육회 편

인천사람의 별명을 ‘인천짬물’로 만들 만큼 한때 전국 수요의 절반 이상의 소금을 생산하던 주안염전은 점차 다른 지역에 염전이 확대되면서 쇠퇴를 거듭하다 1969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가좌동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부터이다. 1963년 영등포구 구로동에 처음으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었다. 인천에도 1965년 부평에 4공단 착공을 시작으로 1969년 주안의 폐염전을 매립한 5공단에 이어 1973년 6공단이 착공되어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공단과 달리 1969년에서 1972년까지 인천 공업인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니 곧 인천기계산업단지이다. 인천기계산업단지는 도심권에 산재해있던 중소기업형 기계공장을 이주시켜 집산화하고 도시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구가좌동과 미추홀구 도화동의 염전 매립지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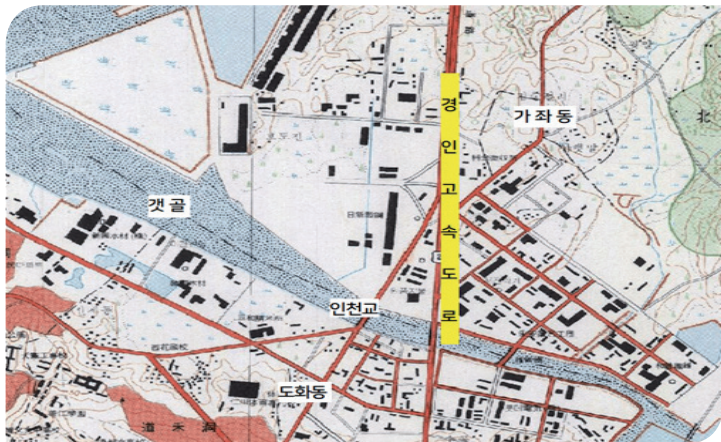
공단조성 계획과 더불어 서울과 인천 사이 수송 수요 급증에 대비

하여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1967년 3월 24일 경인고속도로를 착공하여 이듬해인 1968년 12월 21일 영등포에서 서구 가좌동에 이르는 구간이 개통되었고 이어 같은 해 7월 20일에는 가좌동에서 신흥동 인천항입구까지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8분으로 단축시켜 경인 지역을 광역 공업권으로 묶는 데 공헌하였다.¹⁾



1960년대 공단 조성 전의 가좌동

출처 : 인천광역시지도포털(imap.incheon.go.kr)에 재도안



1970년대 공단 조성 이후의 가좌동²⁾

출처 : 인천광역시지도포털(imap.incheon.go.kr)에 재도안

2. 경동산업, 가좌동에 새로이 터를 잡다

경동산업은 1960년 6월 27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에서 자본금 2,500만원으로 창립한 국내 최초의 양식기 제조업으로 스테인레스 텀 주방용품 등 양식기류를 생산하였다. 모기업은 1946년에 설립된 삼환기업공사였다. 삼환기업공사는 경동산업의 최경환 사장의 형인 최명환, 최영환과 동생 최종환 삼형제가 세운 회사이다. 삼환기업은 1960년대 각종 건설사업에 뛰어들어 급성장하였고 경동산업 역시 설립 이후 양식기제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였다. 1964년 3월에는 국내 양식기 제조업 최초로 대미 수출을 시작하여 뉴욕과 뉴저지 등 2곳에 지점망을 구축하는 등 경동산업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었다.³⁾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1967년 ‘스테인레스 양식기 수출협의회 창립 총회’에서 경동산업의 최경환 사장이 협회의 회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경동산업은 1977년에는 같은 업종인 미경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세가 급성장하였다. 1983년에는 전자용 지기(紙器)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1회용 종이컵과 종이접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 주식 상장을 했는데 당시 회사의 자본규모는 25억 원에 달하였다.

영등포에서 시작한 경동산업이 인천에 발을 디게 된 것은 1976년 인천기계공단의 8천 평 부지에 제2공장(인천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이다.⁴⁾ 인천에 자리잡은 경동산업은 대림통상주식회사(가좌동, 부평동), 풍산금속주식회사(효성동),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부평동)와 함께 인천의 비철금속공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1978년에 이르러 경동산업 인천공장의 주요제품의 연간생산능력은 스텐레스강철 약 450만 doz이고 원재료의 연간 소비량은 스텐레스 강철 약 3,000톤, 인천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약 650명에 달했다.⁵⁾

1987년 6월 영등포 문래동 공장을 처분하며 경동산업의 생산의 중심은 인천공장이 되었다. 이후 경동산업의 사세는 더욱 확장되었다. 1988년에는 양식기 업종 해외수출의 30%를 점유했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에 스텐레스 양식기 공장을 착공하기 시작했다.

3. 경동에서 일하기



본관1층 - 종이컵 생산
B공장 - 양식기 생산
C공장 - 양식기 생산
D공장 - 기물 생산

| 경동산업의 구조 (1990년대 지도에 작성)

1) 입사

경동산업에 입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먼 집을 보고 바로 현장에 배치되는 사람도 있었다.

“경동에는 서른에 왔나? 송림동 살았는데 연년생 아이들을 집에 놔

두고 회사엘 다녔어요. 1977년 그때는 문래동에서 이사왔는데 시설도 별로 없고 지붕도 잘 없어. 처음에는 일당이 33원인가 했어요. 돈이 안 되서 그만 두고 나중에 재입사했어요. 일도 힘들고 돈도 안 되는데 사고도 자주 나니까 하루에 천명 나가고 천명 들어온다고 했어요.” (정정예)

2) 임금

87년 당시, 경동산업의 남자초임은 3,550원, 여자초임은 3,150원,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여성의 일당은 4,300원이었다.⁶⁾

3) 근무조건

1985년 경동산업 취업규칙 중 근무와 관련한 조항

제2절 근무 및 휴게시간

제19조 (근무시간)

1. 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업무 형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다.
2.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사전에 혹은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20조 (휴게시간)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이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한다.

제21조 (교대근무)

사원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주야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무시간 외 적용 제외)

감시적, 단속적, 근로 및 법령상 허용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출·퇴근, 결근, 일·숙직**제23조 (출,퇴근)**

사원은 출,퇴근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작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한 준비를 하여둘 것
2. 출근부의 날인 또는 출근카드의 체크는 출,퇴근 시작에 본인이 직접 행할 것
3. 퇴근시에는 서류, 공구 등을 점검한 후 소정 장소에 보관할 것

… 중략 …

제4절 정문출입**제32조 (물품의 반출입)**

1. 물품을 회사 내부로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코저 할시에는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경비원 기타 지정하는 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중략 …

제5절 휴일**제35조 (정기휴일)**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 가. 신정 : 1월 1일
 - 나. 민속의 날 : (음력) 1월 1일
 - 다. 근로자의 날 : 3월 10일
 - 라. 창립기념일 : 6월 27일
 - 마. 중추절 : (음력) 8월 15일
2. 전항의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 임금으로 한다.
3.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
4. 회사 업무상 필요시에는 모든 부서,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작업자는 전1항 및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4) 경동의 하루

8시 30분, 작업 시작

“집에서 7시 반에는 나와야 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3개 싸놓고 밥 주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8시 전에 회사 도착해서 카드 찍고 옷 갈아입고 현장에 가서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지.” (정정예)

작업장 안에는 여러 기계가 섞여 있어 복잡했다.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내는 굉음이 작업장을 채우고 사람들은 바쁘게 손을 놀렸다.

“C공장에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C공장에는 1연마, 2연마, 3연마, 5연마, 멜라민연마, 멜라민수지 같은 부서가 있었는데 1연마는 수저 같은 것을 광내고 3연마는 나이프 광을 치는 곳이었고 2연마는 수저와 젓가락 광내는 곳이었어요. 내가 일했던 곳이 멜라민 연마였어요. 기계들의 크기는 비슷한데 다루는 것만 달랐어요. 멜라민은 조금만 세게 압을 주면 닳아버리고 압을 살살 주면 연기가 많이 나서 괴로웠어요. 금속은 불 먹어도 다시 광을 내면 잡혔지만 멜라민은 한번 불을 먹으면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멜라민이 숙련도를 더 필요로 했지요.” (이종하)

경동의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함마간 - 기계실 - 전해실 - 용접실 - 연마실 - 포장실의 과정을 거친다. 실질적인 생산의 마지막 공정이 연마였기 때문에 연마실은 생산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였다. 연마실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30% 정도 되었다. 대부분 주부

들이었고 60이 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여성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여자하는 일은 쓰바⁷⁾ 대고, 나라시⁸⁾ 놓고 힘 안쓰는 일을 주로 했지. 제품을 들어서 깔아놓으면 남자들이 집어서 기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도 쇠박스 드는 일은 힘들었어. 하지만 민주화 되고 인건비 비싸지니깐 사람을 줄여서 여자일 남자일 따로 없이 여자도 기계 잡고 했어. 기계 앞에 앉으면 한 달 내내 거기서 일하는 거야. 맞교대할 때는 다른 이가 일 하니까 잔업은 딴 데로 가서 했지.” (정정예)



| 평탄작업을 하는 모습

“그땐 일이 너무 많았어. 약속한 날짜에 개수를 맞춰서 컨테이너가 떠야 하니까. 컨테이너가 3~4대 와 있으면 나가야 하니까 우리도 잔업, 철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못했어. 일주일에 3~4일은 철야 했어. 힘들니까 화장실에서 졸고 그랬어. 그래도 채워서 컨테이너 나가면 뿌듯했지.” (심순재)

10시 30분, 오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쉬었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한 대 피우고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이다. 자판기 커피는 없었고 봉지 커피를 타서 먹었다.

10시 40분, 다시 작업 시작

12시 30분, 점심시간

식당은 6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는 컸지만 B공장, C공장, D공장 뿐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도 모두 한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식당 출입문에서 배식구까지 50M가 넘는데도 바깥 계단까지 줄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눈치껏 먼저 쉬다가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어. 줄 서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쉴 시간 없이 다시 일해야 했어. 그러다 나중에 민주화해서 1시간으로 늘어난 것이지.” (정정예)

“주방에는 영양사가 따로 있고 이거저거 나르는 남자도 하나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반찬은 일식 삼찬에 국이 따로 나왔고… 밥은 먹을 만했어요.” (이중화)

1시 30분, 오후 작업시간

기계를 마주하고 대화를 하다보니 청력이 약해진 사람도 많았다.

“현장에서 기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악
써가며 했다. 그래서 솔직히 조용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엄
마는 왜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 크냐고 하고. 전화하면 안 들려 안 들
려? 해요. 건강검진 받을 때 청력 검사하면 잘 안 들려요.” (정정예)



| 연마기 돌리는 모습

5시 30분, 끝나는 시간

5시 30분, 8시간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다. 하지만 퇴근하려면 더
있어야 한다. 80년대 경동산업에서는 800명씩 1,600여 명이 주야 맞
교대로 일했다. 따라서 10시까지 잔업은 필수였다. 주간교대의 경우
한 달 잔업시간이 많으면 200시간에 육박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세 명의 여성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기도 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철야를 23번이나 했다고 한다.⁹⁾

“커다란 주전자에 커피를 타서 물처럼 마시고 어떤 때는 타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졸리면 봉지를 뜯어서 입에 털어넣기도 했죠. 잠안오는 약 타이밍도 먹었어. 판피린, 박카스를 달고 살았지. 박카스 하나 먹어야 힘이 났지. 나는 지금도 박카스 안 먹어요. 지겨워서.” (정정예)

“철야하려면 5시 반에 밥 먹고 6시부터 일해요. 새벽 3시 반까지. 중간에 10시 한번 쉬고… 그렇게 살았어요. 철야를 못해도 일주일에 세 번 했죠. 그래도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 안됐어요. 영창약기, 삼익약기가 여자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경동이 제일 적었어.” (정정예)

“한 폰이라도 더 번다고 주야간 철야를 다 했어요. 집에서 잠자는 날은 한 달에 5일 정도밖에 안됐어요. 철야를 3일 동안 하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 눈을 떴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옆에 조장이 와서 보더니 뭐하냐고 쿡 찢더라고. 그제야 정신차렸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는데 남편이 직장에 안 다녀서 애를 봐줬어요.” (심순재)

10시 혹은 새벽 3시 30분, 퇴근

작업시간이 끝나면 연마실 사람들은 씻기부터 해야 했다. 하루종일 연마실에서 일하다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가루가 까맣게 뒤덮었다. 씻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동시에 작업이 끝나면 서로 수도간을 차지하려고 악다구니가 나기도 했다. 샤워는 엄두도 못내고 얼굴하고 손만 대강 씻고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새벽,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야를 해도 회사버스는 운행하지 않았다. 이미 버스도 다 끊긴 시간 그나마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 돌아갔다. 새벽 신문차가 다니면 얻어타기도 했다. 그런 행운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좁은 조수 자리에 동료 둘이 포개 앉아가는 불편함은 일도 아니었다. 겨울에는 막 세수를 하고 난 직후라 젖은 머리가 얼어붙어 인천교를 건널 때는 추위가 더 매서웠다.

“야근하고 인천교 건널 때 슬펐어. 물때가 돼서 물은 찰랑찰랑한데 머리는 열고. 친구랑 으악새 노래 많이 했네. 그때는 물이 맑았어. 통나무가 떠 당기고. 무당들이 굿해서 버린 음식들도 떠 당기고.” (정정예)



| 인천교¹⁰⁾

출처 : 인천서구문화원

인천교를 넘어 송림동 언덕길에는 하꼬방이라 했던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5) 깜박잠이라도 잤던 ‘빠우간’

집이 먼 사람들은 차편도 없고 아침 8시 30분까지 다시 출근해야 하니까 집에 가는 대신 회사에서 잠을 잤다. 기숙사에 여유는 없었고 그래서 자주 애용하는 곳이 일명 ‘빠우간(칸)’이다. 빠우란 금속에 광을 내는 작업 buff의 일본식 용어이다. 빠우간에는 연마한 제품을 말리기 위해 건조기가 돌아갔다.

“건조기가 열이 엄청 쉘요. 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하니까… 바닥은 항상 뜨끈뜨끈하고 위에는 온풍기 돌고… 연마 분진가루가 날리는 데서 잤으니 지금 생각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지금 같으면 마스크 쓰고서도 못 잘 것 같은데… 따뜻함 때문에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했죠.”

가정주부들이라고 몸을 사려 일하지 않았다. 잔업과 철야를 밥먹듯 하다 보니 아이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땐데 야간근무하고 집에 가다 보면 중간에서 애들 만나. 잔업 때 나온 빵 안 먹고 챙긴 거 애들 들려 보내고 집에 가서 한잠 자고 나서 반찬 해놓고 빨래하고 나서 다시 야간 들어가고… 자는 모습만 보고 애들 크는 거를 제대로 못봤어. 그래서 똑같이 아이 셋 키우는 막내 딸이 그래. ‘엄마, 어떻게 살았어? 우리 데리고? 그 험한 일 하면서 우리들 도시락 다 싸주고…’ 지금에야 알겠대요. 지금은 그나마 도시락은 안 싸잖아.” (정정예)

6) 노동의 피로를 달래주던 인천교 술집

철야가 없는 날 남자들은 10시 반 작업을 마치면 삼삼오오 인천교의 술집에 들러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술로 달랬다. 주변 사업장들이 주야 맞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보니 인천교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술집들이 많았다. 24시간이 아니라도 적어도 새벽 3시까지의 영업을 했다.

“인천교식당, 품미식당, 충남식당이 유명했지요. 식당이라고 하지만 삼겹살에 술도 팔았어요. 단골 술집이라면 장부 만들어놓고 술먹고 했지요.” (이종화)

“월급날이 되면 술집에서 외상받으려고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못주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내뺄기도 했지. 여자들은 그런데 어디 가나? 1년에 한 번 망년회 한다고 하면 밥만 한 술 하고 갔지.” (정정예)

4. 경동산업과 민주노조운동

80년대 많은 사업장에서 각종 노동법 위반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경동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동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¹¹⁾

항 목	내 용
월차휴가,수당	월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결근을 하게 되면 그 별로 3일치(당일, 주차, 월차) 일당을 제함.
연차휴가	한번도 시행하지 않음.
임금	자의적으로 임금을 책정함. 반장의 소개로 들어오거나 주임을 아는 사람들은 최고 일당을 받음. ¹²⁾ 현장관리자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기도 함. ¹³⁾
잔업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당임금 × 제수당(시간급) × 150%인데 제수당을 빼고 수당을 지급함.
법정공휴일	무급으로 쉬거나 일을 함.
야간근로수당	야간조의 경우 밤 10시 이후의 작업시 야간수당(200%)를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은 기본수당(100%)를 그 외 시간은 잔업수당(150%)를 지급함.

1) 산재

경동산업은 주변 사업장에 비해 산재가 많기로 유명했다.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에 실린 ‘손무덤’이 경동을 모델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올 어린이날만은
 انسان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대공원이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중략)
 내 품속의 정형 손은 싸늘히 식어 푸르멩멩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들고
 양지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

산재가 일어나도 공상¹⁴⁾으로 처리해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연마실은 B, C, D 공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큰 부서이면서 기계실 다음으로 많은 사고를 기록하는 곳이다. 이곳의 산재사고는 연마기에 팔이 팔려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연마기에 물린 제품이 튀어나와 다치기도 한다. 연마기에 팔이 팔려 들어간 경우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팔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때 팔의 노출면에 심한 흉터가 남는다. 회사는 지정병원(복음병원)에 진찰 및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기간을 공상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산재처리하는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공상으로 처리하지요. 싸우에 끌려들어가서 갈려서 화상을 입은 자국이 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따갑고 아파도 산재를 모르니까 공상처리를 하고 말았어요. 기계실에서 손가락 잘린 사람들은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했어요. 기계실 사람들은 열에 다섯은 악수를 하다보면 잡히는 게 살짝 다르죠. 일이 원체 힘들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하루에 5,60명씩 들어왔

다 나갔다 했지요. 송림동 8번지 그쪽 사람들은 경동 다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종화)

“입사한 다음 날 무릎을 갈아서 여덟바늘을 꿰맸어. 앉지를 못하니 까 후앙(fan)통 쪽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더라. 싸우가루가 후앙통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서 다리 쪽 번고 앉아서 일을 했지. 그때는 마스크가 어디있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새카매져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 아는 언니가 나를 보더니 썩을 새끼들, 지들 돈 주는것도 아닌데 거기 쳐박았다고 욕을 하더라. 일주일 동안 실밥도 안 뿜은 상태에서 다리를 절면서 3연마를 갔더니 아직 다리가 덜 나았으니까 나라시 손가락을 놓으라는 거야. 짓궂은 남자들이 장난을 치다가 집게를 던졌는데 엄지 발가락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렸어. 조퇴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안 시켜주더라고. 신발을 벗어서 피가 쏟아지는 걸 보여줘도 안 시켜줘. 퇴근시간 40분 남겨놓고 가라고 하더라고.” (심순재)

2) 몸수색

경동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손잡이에 장미나 난을 그린 손가락처럼 만들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 많았다. 개중 손가락, 젓가락, 포크 등 작은 제품을 몸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 회사에서는 정문의 경비를 시켜 퇴근하는 사람 몸수색을 했다. 여자들은 여자 경비가 몸수색을 했다. 몸수색을 해서 제품이 나오면 해고되었다. 하지만 몸수색은 현장 노동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것이라 이후 민주노조운동과정에서 문제로 삼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구내매점을 통해 제품을 싸게 팔았다. 이때는 경동사람이 데리고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누구나 물건을 살

수 있었다. 매점에는 샘플만 전시해놓고 사람들이 주문하면 공장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주었다.

3) 민주노조운동

1984년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강제로 사직당하면서 경동산업의 민주노조운동은 표면으로 올라왔다. 민주노조결성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측의 주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고된 일에 비하여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경동산업의 이직률은 인천에서도 가장 높았다. 늘 사람을 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학생출신 혹은 현장출신 활동가들이 수없이 들락날락거렸다.

제주시사 원희봉도 1985년 7개월간 경동에 위장취업하면서 겪었던 강도 높은 노동과 산재를 겪을뻔했던 아찔한 순간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순가락을 물러 사이로 집어넣어 압연하는 일을 했어요. 며칠간 철야를 한 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양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오후 작업 시작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졸도를 했던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큰 병을 얻거나 죽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파고들더군요.”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겼다. “작업반장이 중간 조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작업을 잠깐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스위치를 눌러서 기계를 세우면 3~4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른 수건을 프레스에 끼워 넣고 마찰시켜 바로 세우곤 했죠. 힘으로 버텨야 하는 건데 그날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지 수건이 쑥 빨려들어 가는 거예요. 팔러가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봉 뜨는가 싶더니 정신을 잃었죠. 깨어보니 현장 간부

들이 하얗게 질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망 사고 났구나’ 싶
었대요. 기계에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고 손가락이 잘리고…. 사고
가 잦을 때였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싶은
아찔한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귀밑 목 부위에 그때 입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경향신문. 2014. 11. 14)

1987년 봄 경동산업의 활동가들이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다 해고
또는 구속되었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앞에서 유인물을 돌리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호소했고 87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노동자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경동산업
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민주노조 임시집행부가 결성되었다.

“무서웠지. 밥 못먹고 살 줄 알고 무서웠지.” (정정예)

“나는 데모가 뭔지도 몰랐어. 회사에서 수군수군 데모한다고 해. 한
쪽에서는 데모하면 쫓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서는 데모해야 한다고 하고. 나는 일만 했지. 어느 하루는 진짜 다 같
이 데모를 하는 거야. 회사 바깥으로 나가서 길을 막고 어깨동무하고
…여럿이 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였어. 데
모하고 나니까 배포가 생기더라고.” (심순재)



| 인터뷰이 (왼쪽부터 정정예, 심순재, 이종화) | 공장의 위치와 작업방식에 대한 설명

14일간의 파업농성은 1987년 8월 30일 임금인상 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상여금 400%, 퇴직금누진제 실시, 어용노조 해산, 민주노조 건설,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한 합의서가 작성되며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선거 하루 전날 구사대가 임시노조 집행부 사무실을 공격하고 경찰에 의해 위원장 후보인 이진택 외 다수의 핵심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 이진택이 빠진 선거에서 임시집행부에서 이탈한 김치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9년 5월 경동해고자와 현장노동자들이 함께 풍물패 ‘디딤돌’을 만들었다.

“저는 노동운동하고 데모하는 놈들 싫어했어요. 방위를 받았는데 훈련받는 게 데모집합훈련이어서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했지. 그러다가 경동에 들어왔어요. 내 옆부터 3연마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함께 뭇 좀 해보지 않을래… 노조를 해보자… 뭐러 그걸 하려고 해… 그런데 친구 설득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지고 난 뒤 나는데 끝나고 민주노조 집행부 다 쫓겨나고 3월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키가 작은데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하면 바뀔 것도 같더라고. 그 말에 민주노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종화)

회사에서는 디딤돌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고 결국 디딤돌 집행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디딤돌회원 15명이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간부 일부와 현장노동자들이 농성에 합류하고 회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현장의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농성을 이끌었던 디딤돌 간부 강현중, 김종하와 회사측 강익신 노무이사

가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구속되었던 박선태, 최성춘, 이종화가 형기를 마친 후 복직에 성공하고 박선태, 최성춘은 96년 노조위원장선거와 99년 노조위원장 선거에 차례로 당선되었다.

민주노조운동과정에서 작업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

“하루 일상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한 시간으로 늘어나고 탈의실 생기고, 샤워실 생기고, 보너스 생기고(김장 보너스까지 600%), 일당도 오르고. 그전에 탄 거는 삼십 얼마였는데 나중에는 최하가 철야, 잔업하고 나면 6십, 7십 넘더라고.” (정정예)

“잔업수당, 주휴수당도 나오고 무엇보다 사람 대해주는 게 달라졌지.” (심순재)

5. 경동산업, 문을 닫다

양식기 산업은 3D 업종으로 꼽히면서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특히 1종 양식기(수저류)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동남아국가에 경쟁력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태였다. 경동산업 역시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자 자동화설비 등 700억 규모의 과다투자로 인해 부채가 늘면서 기업이 크게 흔들렸다. 결국 1993년 11월 20일, 경동산업은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국내 최대 양식기업체인 경동산업(대표 최용재)이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키친아트 브랜드로 내수판매에 나선 경동은 지난 91년 포크류, 냄비류, 동양식기만으로 총 8백억여 원의 매출을 올려 양식기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점유율을 기록한 대표적인 양식기전문업체.

이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최근 2~3년간 중소기업체들의 내수시장 참여확대로 내수시장이 극심한 덩핑경쟁에 시달려온 데다 노사분규마저 겹쳐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부채가 1천억 원이 넘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91년 말 국내 최대양식기 수출업체인 남일금속이 부도 이후 인천지법에 제출했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인천지법에 제출했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대형 양식기업체로서는 두 번째다. (매일경제 1993.11.30)

11월 30일 1차 부도가 났고 12월 1일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노동조합 주최로 경동산업 구사(救社) 결의대회가 열렸다. 경동산업과 관계사 직원 1천1백 명이 인천공장

에 모여 회사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서울본사를 인천공장으로 통합 이전시키고 조직개편을 통해 자구노력에 전력했다.

1994년 8월 서울민사지법은 경동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동산업이 도산할 경우, 많은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데다 임직원이 8백여 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를 재건시킬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¹⁵⁾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채무가 동결되자 지급이자가 줄어 1996년에 이르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매출액 상승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6년 3월에는 1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정수기 시판에 나섰다. 4월에는 기존의 3중바닥 프라이팬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열선-스테인레스로 바닥을 4중처리하여 눌러붙지 않고 뚜껑손잡이에 자석을 장착하여 자장효과로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건강냄비와 같은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비를 자동화하고 공장합리화 등을 통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직, 생산직 사원을 절반으로 줄여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였다. 1997년 2월 당시 경동산업의 종업원은 인도네시아 공장 4,000명, 인천공장 370명, 대구공장 78명이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97년 7월 경동산업의 정상화계획이 인가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2000년 4월 25일 법원은 경동산업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 법정관리에서 조기 퇴출하기로 결정하면서 40년 경동산업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우리 보너스, 잔업수당을 반납하자. 월급만 받아먹고도 살 수 있지 않냐. 1년만 하면 회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말이 나왔

어. 우리는 회사를 살리고 싶었지.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우리 마음은 그랬어. 회사 망할 때는 가슴 아팠어. 애 셋을 여기서 다 키웠는데... 너무 억울했어.” (정정예)

파산 1년 전부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동산업은 임금체불업체 전국 2위로 체불액은 440명분 76억 5천2백만 원에 달했다. 1위는 대우자동차로 6,000명분 262억 3천7백만 원이었다.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은 비대위(위원장 최성춘 노조위원장)를 결성하였다.

비대위는 조합원 315명의 체불된 임금, 미수 퇴직금 및 위로금 76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고자산(기계설비, 상품재고, 미수채권 등)과 ‘키친아트’ 브랜드를 양도받았다. 최성춘 노조위원장과 최용재 대표이사가 양수양도계약서에 서명했다.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모아 주주가 되어 불과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주)키친아트가 설립되었다. 대표이사는 최성춘 노조위원장이, 상무이사는 박선태 전 위원장이 맡았다.

2001년 6월 23일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열린 (주)키친아트 창립기념식에는 경동산업의 최경환 회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6. 지역과 더불어, 노동자 자주기업 키친아트



| ㈜ 키친아트

옛 경동산업의 야적장 자리에 들어선 ㈜키친아트는 노동자가 주인인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자주기업이다. 회사 건물에는 커다랗게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책임’이라는 회사의 사훈을 새겨 놓았다. 회사의 주식은 N분의 1로 나누었다. 노동자 자주회사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은 가족 이외의 외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한 명이 3명분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도 없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주식을 사려면 입사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노동자자주회사란 회사의 성격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모두가 사장이고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옛 경동산업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만든 회사임에도 ㈜키친아트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 키친아트 매장

창립 첫 해에 흑자를 냈다. 하청업체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생소한 마케팅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하지만 또 다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키친아트 정상화 과정

2005년 6월 9일 주주 전창협 외 5명이 대표이사 최성춘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출범 당시 주주들은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최성춘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주식 지분의 51%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최성춘은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상납받다가 하면 임의로 회사 자금에 손을 대었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주주들은 8월 키친아트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였다. 비대위는 지역의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인천시민연대 대표자회의에서 공동대표 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2005년 12월 최성춘은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키친아트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성춘 및 이사, 감

사 해임을 결의하고 새로이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였다. 2007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익배당의 10%를 공익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2007년 11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금의 10%인 1천7백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을 운용하기 위해 11월 28일 ‘㈜키친아트 공익사업회’가 구성되었다.

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녀 학자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금, 노동복지 지원금과 시민단체와 경동추모사업회 지원, 투쟁사업장 지원, 투병 중이거나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등에 배분하여 전달하고 있다.



| ㈜키친아트 공익기금 전달식 (사진제공 : 공익사업회)

2021년 현재 ‘㈜키친아트 공익사업회’는 위원장에 김일희 신부 외에 시민연대 소속 개인 3명, 경동추모사업회 1인, ㈜키친아트 1인 모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친아트가 공익사업회에 후원한 금액

(자료제공: (주)키친아트공익사업회)

2008년	17,000,000원
2009년	14,000,000원
2010년	19,000,000원
2013년	20,000,000만 원
2014년	20,000,000만 원
2015년	20,250,000만 원
2016년	16,500,000만 원
2017년	20,000,0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냄비세트 150개 포함)
2018년	20,000,0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냄비세트 150개 포함)
2019년	25,000,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냄비세트 300개 포함)
2020년	25,000,0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물품후원, 냄비세트 150개 포함)
총	2억 1천6백7십만 원 (물품 후원 2,500만 원 포함)

7. 아직도 남아 있는 경동의 흔적을 찾아서



경동산업 정문이 있던 자리
사진 정중앙 '풍전' 간판이 있는 곳



경동산업 본관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건물

법정관리 퇴출 후 경동산업은 법원에 의해 분할매각되어 퇴직금 일부와 채권 일부를 정리했다. 현재는 옛 건물을 부수고 새로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 경동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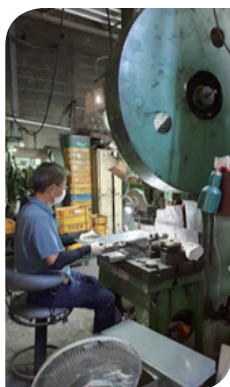
(주)키친아트가 자리 잡은 곳은 경동산업 끝자락에 스크랩을 쌓아두던 곳이다. 정문이 있던 자리는 도로가 되었고 커다란 덩어리로 자리했던 B공장, C공장, D공장은 허물어져 작은 사업장들이 들어서 있다. 다만 본관 사무실만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일하게 옛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경동 현장의 뒤편 공장 끝자락 모퉁이에 옛 건물 그대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쪼개서 소규모 업체가 임대해 들어와 있는데 간판을 단 대인산업이 건물주이다. 대인산업은 키친아트에 납품을 하는 여러 협력업체 중 하나이다. 원판 성형과 프레스 작업부터 평탄작업, 연마, 광내기, 포장까지 옛 경동산업 시절 그대로 전 공정을 하고 있으니 경동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작업장 안에는 여러 대의 기계가 있는데 몇몇은 멈추어져 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보니 1인 3역은 기본이라 다른 공정을 할 때는 일하던 기계를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장 포함 6명이 일하고 있는데 모두 경동산업 출신이다. 임대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동 출신이다.

“일이 힘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기계를 놓게 되면 이것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중화)



| 대인산업 작업현장 1



| 대인산업 작업현장 2



| 대인산업 앞 이종화

옛 경동산업의 흔적을 안내하던 이종화는 이제 경동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음을 그리고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갯벌이었던 땅에 염전이 생기고 다시 공단이 생기고 경동산업이 들어왔다. 경동산업은 이곳에서 양식기제조업 수출 1,2위를 다투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기업으로 또, 장시간 노동과 악명높은 산재의 기록으로 영욕의 40년의 역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로부터 벌써 21년이 지났다. 현재 인터넷에서 경동산업을 검색하면 타지역, 다른 업종의 업체가 나올 뿐이고 옛 경동산업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동산업은 아직도 이곳에 뿌리내리며 살고 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자식을 키우면서 밥 벌어 먹고살게 해준 고마운 직장으로, 누군가에게는 전쟁 같던 현장으로 남아 있다. 경동산업은 '키친아트'라는 이름을 통해 그리고 이러한 기록화 작업을 통해 지역의 한 부분으로 계속 기억될 것이다.

-
- 1)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 2) 1960년대 사진을 보면 염전과 임야 주변에 논밭이 있고 주택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970년대 사진에는 염전 자리에 공장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매일경제 1984년 9월 20일 기사.
 - 4) 2007년 발행된 <경동산업 노동자 투쟁사 자료집>에는 인천공장 가동시기를 1983년으로 기록하였지만 매일경제의 1984년 9월 20일 기사와 1993년에 발행된 <인천시사>의 중권, 제3장 공업 부문에도 1978년 이전에 인천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자료집>의 인천공장 가동시기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 5) <인천시사> 중권, p1007, 1993.
 - 6) 1987년 당시 물가. 라면은 100원, 소주 340원, 분유는 3,000원이었다.
 - 7) 나이프의 손잡이에 끼우는 칼날부분 용접된 곳을 말끔하게 다듬는 일.
 - 8) 고르게 배열하는 작업, 평탄작업. 현장에서는 나라시(ならし)라는 일본어를 사용했다.
 - 9) <87노동자대투쟁 -7,8월 인천지역사례> P321. 풀빛, 1988.
 - 10) 동구 송림동과 서구 가좌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1958년 1월에 완공되었다. 가좌동 일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자 1971년 확장공사를 했다. 1998년 주변 갯벌을 매립하면서 다리로서의 기능은 다하고 지명으로만 남아있다.
 - 11) 1984년~1985년에 만든 현장노동자들이 작성한 유인물에서 발췌.
<경동산업노동자투쟁사자료집.2008>
 - 12) 이종화 “87년 3월 초에 입사했는데 5,400원을 받았다.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3,500원 받는 친구들이 많았다. 소개를 받아 고향 친구들이랑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숙련공 임금을 준 것이다.”
 - 13) 정정에 “나한테 올 50원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래서 내가 뒤로 데리고 가서 모가지를 붙잡아 찼지. 그 다음 달부터 50원 제대로 받았다.”
 - 14) 업무 중 다친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15) 조선일보 1994.8.20.

도움을 주신 분

이중화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1987년 초 고향친구들과 함께 인천에 와서 경동에 입사. 연마실에서 일함.

1989년 경동산업 내 풍물패 ‘디딤돌’에서 활동하며 민주노조운동에 참여.

이후 민주노조활동으로 구속되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1년 (주)키친아트에서 품질관리 담당.

2021년 (주)키친아트 이사로 선출됨.

정정예

1949년 충북 서천 출생.

1977년 경동 입사, 퇴사.

1985년 경동 재입사하여 회사 폐업 때까지 3연마실에서 일함.

2001년 현재 (주)키친아트 주주.

심순재

1947년 경남 부산 출생.

1987년 경동 입사, 회사 폐업 때까지 3연마실에서 일함.

2001년 현재 (주)키친아트 주주.



동양 최대의 세라믹 공장을 꿈꾼 극동요업

- 1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자리한 극동요업
- 2 30년간 극동요업과 함께한 소성화 상무
- 3 글을 맺으며

홍명진 (소설가)

V. 동양 최대의 세라믹 공장을 꿈꾼 극동요업¹⁾

1.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자리한 극동요업

인천시 서구 경서동 245번지, 현 LG전자인천캠퍼스가 들어선 일대는 지난 30여 년간 인천 서구 산업의 역사적인 지분을 가진 극동요업이 자리했던 곳이다.



| LG전자인천캠퍼스(구 극동요업 부지, 2021)

극동요업은 1973년 9월 28일에 문을 연 타일 전문 생산업체였다. 극동건설의 자회사로, 설립 당시 대왕화성 주식회사에서 1980년대 초 극동요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모회사인 극동건설의 창업주 김용산은 일본 오사카에서 공고를 졸업한 인물로 1947년 대영건설을 설립했고, 1953년에 극동건설(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극동건설은 이후 남대문시장 신축공사, 서울시민회관, 명동에 소재한 21층짜리 대연각 호텔 등을 지었고, 1969년에 경

부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1970년대에는 아산방조제, 서울지하철 1호선 등 정부가 발주한 굵직굵직한 공사를 잇따라 파내면서 국내 건설업체 5위 안에 들었던 대기업이었다.²⁾

극동건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1970년대 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던 1980년대 해외건설 현장에서 활약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일조했다. 당시 극동건설에서 파견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식자재 공급을 담당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식료품 전문 업체가 아닌 극동요업이다. 극동요업에서 전권을 받아 식자재를 구매해서 수출하고, 결제는 극동건설에서 받았다. 그리 오래 식료품 공급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100프로 모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자회사이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극동요업이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자리 잡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 있었다. 당시 경서동 일대는 제방을 쌓아 간척한 땅으로 토지 구입비가 저렴했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생산품을 수출하려면 수송비가 싸게 먹힐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김용산 회장은 당시 수출 보국만이 살길이라 생각했다. 극동건설이 토목공사 전문이니 토목공사로 건설 실적도 올리면서 항만건설까지 할 계획이었다. 더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이었다. 항만건설이 무산되더라도 근거리에 인천항이 위치해 있어 내륙 운송비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타일을 주요 생산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건설이 호황인 시절이었고, 극동건설이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로 한창 뻗어나갈 시기였기 때문이다. 건설에 필요한 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생산해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까지 할 생각이었다. 또한 당시는 인건비가 싸고 노동 인력이 넘쳐나던 시절이라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김용산은 동양 최대의 종합 세라믹 공장을 건설하는 꿈을 안고 경서동 일대에 25만 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공장 건물이 있던 LG전자

인천캠퍼스와 주물공단이 입주한 자리, 대원철강이 있던 자리, 현재 서부산업공단 일대가 극동요업 부지였다. 극동요업의 실제 사용 부지가 3만여 평에 불과한 것에 비해 25만 평이나 되는 거대 부지가 필요했던 이유다.



| 극동요업 일대 항공사진 1 (1987)³⁾

1)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흔히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심하게 변함을 일컬어 상전벽해라고 한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몰라보게 변한 곳이 극동요업이 있던 서구 일대다. 인천시 서구는 서해안의 공유수면과 갯벌, 꽃과 섬을 매립하는 형태로 도시의 지경(地境)을 넓혀왔다.



| 극동요업 일대 항공사진 2 (2002)

2015년에 인천광역시에서 편찬한 인천광역시사『인천의 지명(上)』「서구의 탄생」편을 보면 “서곶은 길게 해안을 끼고 있는 터라 연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중략) 그러나 이 섬들은 갯벌 매립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1차로 원창동과 석남동 앞바다가 매립되어 울도와 소염도가 사라졌으며, 2차로 백석동, 검암동, 연희동 앞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청라매립지(동아매립지라고도 함)에 포함되면서 호도와 세어도를 제외한 청라도, 일도, 장도 등 거의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고 되어 있다.

1970년대 초 극동요업이 서구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경서동 일대는 해안 쪽으로 빨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극동요업 외곽으로 긴둑이 있었다. 극동요업 부지는 바로 그 간척지에 제방을 쌓아 만든 땅이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사이에 조성된 해안간척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경서동에서 장도를 거쳐 울도까지 이어지는 7.3킬로미터의 둑이 만들어진 건 1971년 말경이다.⁴⁾

청라 쪽에서 수로를 타고 들어온 바닷물이 극동요업 앞까지 들어왔

다. 바닷가 쪽으론 군인 초소가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있었다. 2차로 진행된 동아매립지(당시 동아건설에서 매립공사를 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는 그보다 훨씬 뒤인 1980년대에 진행되었다. 동아매립지는 현재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청라지구가 포함된 대공사였다. 1차 매립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경서동 일대에는 바다와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원주민들의 삶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말이면 동네 사람들이 망둥이 낚시를 하러 극동요업 부지에 모여들었다고 소성화는 말한다.

“1979년도인가 백중사리 때 독이 터졌어요.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삼시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당해낼 수가 없죠. 오죽하면 여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는 얘기가 나왔을라고요.”

극동요업 직원들은 전부 포대 자루에 모래를 담아서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로 터진 독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공장 안까지 물이 차서 포장을 하기 위해 쌓아둔 종이박스들이 전부 물에 젖었다. 기계는 췌덩어리라 피해가 없었지만, 그때 인명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서울이 본가인 소성화는 1975년 극동요업에 입사한 당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통도 변변치 않은 거리를 출퇴근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시골 냄새 물씬 풍기는 외진 데까지 그나마 출퇴근할 수 있었던 것도 통근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 전역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니 통근버스도 운행했다.

그 당시엔 국제CC(인천국제컨트리클럽) 앞으로 난 길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버스가 다녔고, 가정동에서 넘어오는 싱아고개(싱아라는 풀이 많이 있던 골짜기를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 승학고개를 말함)를 거

쳐서 용의머리⁵⁾ 부근 동탱크가 있던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딱 두 군데밖에 없었다. 서구청 앞에서 강화로 가는 길이 생긴 건 한참 후의 일이다.

동탱크는 현 연희공원 서쪽 끝자락, 청라지구가 보이는 용의머리 쪽의 바닷가에 있던 분뇨처리장을 말한다. 인천 시내의 분뇨를 처리 하던 곳으로 냄새가 지독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동탱크라고 불렀다. 비가 오는 날엔 용의머리 쪽의 바닷물에다 분뇨를 무단방류하기도 했다.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는 버스도 경서동 입구까지 오는 것밖에 없어서 불편한 시절이었다.

그 당시엔 극동요업 주변에 변변한 상가나 식당도 없었다. 회식 때면 직원들은 멀리 시내(인천 원도심)로 나가거나 심곡동 유원지로 놀러가곤 했다. 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이 자리한 곳이 유원지였는데 그 근처 딸기밭들이 유명했다. 소성화도 아내와 데이트할 때 심곡동 유원지로 놀러 가곤 했다. 6월이면 주말마다 심곡동 유원지에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개울도 흐르고, 식당도 있어서 사람들이 놀기 좋았다. 회사 근처에는 볼거리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 극동요업 일대 항공사진 3 (2007)

2) 여자들은 국제CC로, 남자들은 극동요업으로 보내라

197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시 서구지역엔 이렇다 할 기업이 없었다. 울도 입구에 있던 경인에너지(1969년 설립. 현 SK인천석유화학), 인천국제컨트리클럽(1970년 개장), 극동요업 세 곳이 그나마 지역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체였다.



| 1979년 극동요업 사무실 모습



| 창립기념일 행사

요업계 회사들은 그 규모나 형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초창기와 달리 이후에도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타일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화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벽돌을 출시한 회사로 유명했고, 인천에서는 진흥요업이 꽤 이름을 갖고 있었다. 1959년에 창립된 건설업체 진흥기업의 자회사인 진흥요업은 인천시 남구 주안에 사업장이 있었다. 위생도기(욕조, 세면기, 변기 등), 법랑, 식기, 컵, 접시 세트 등 각종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규모가 꽤 컸다.

극동요업보다 뒤늦게 문을 연 김포요업은 생산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극동요업과 쌍벽을 이루었다. 검단이 인천시 서구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김포요업은 김종희가 창업주인 한국화약(한화그룹) 자회사로 규모는 극동요업과 비슷했다. 김

포요업은 일찌감치 대림통상과 연계해 건축자재를 납품하며 성장했다. 1976년에 금구공장 최초로 KS 표시 허가를 획득한 대림통상은 수전금구(수도꼭지)뿐만 아니라 욕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꽤 유명한 회사였다.

이후에 한양대학교 요업과(무기재료공학과로 바뀜) 출신의 기술자들이 타일 재료 회사나 요업회사를 차렸고, 당시에 도자기협동조합이라고 부르던 요업기술원이 구로동 쪽에 생기기도 했다.

초기의 요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요업계에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터널식 가마(Tunnel Kiln)를 사용했고, 공정마다 수작업을 해야 하는 단순 노동이 많이 필요했다.

당시 경서동은 외진 데여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다. 주택 분포도 지금처럼 밀도가 높지 않았고, 극동요업 일대엔 별다른 건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극동요업은 생산직 노동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집했다. 회사 부대 시설로 기숙사와 직원 식당이 갖춰져 있었다. 전라도·경상도 등지의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기도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직원이 가장 많았던 초창기에는 전체 직원이 600여 명에 달했다. 관리자와 노동자의 비율은 십 대 일 정도였다. 관리직은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옛날엔 경서동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선 딸을 낳게 되면 국제CC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극동요업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소성화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극동요업이 서구에 위치한 관계로 연희동, 경서동, 가정동 일대 서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극동요업 현장 노동자들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4 대 6 정도로 여성이 더 많았다. 단순한 노동직이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거친 일이었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기혼이었다.

‘딸을 낳으면 국제CC로, 아들을 낳으면 극동요업으로 보낸다’라는 소성화의 말은 상대적으로 극동요업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당시 인천시 서구지역에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다는 얘기다.

3) 모자이크타일과 내장타일

(1) 초기 설비

극동요업은 설립 초기 영국 기업인 FNCB에서 250만 불의 차관을 받아 독일 회사에서 설비를 도입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빠른 성장 가도를 달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 극동요업 또한 이 대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공장의 주요 설비는 제토공정(Jaw Crucher, Ball Mill, Spray Dryer), 성형공정(Press, Hopper), 시유공정(시유기), 선별공정, 포장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정은 벨트컨베이어나 롤러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다. 롤러컨베이어는 자동화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바뀐 것이다.

타일은 흡수율에 따라 도기질과 자기질로 나뉜다. 도기질은 흡수율 10프로 정도로 유약을 칠해 주로 내장의 벽에 사용하는 벽타일이다. 자기질은 흡수율이 3프로에 가까워 바닥에 까는 내장재로 적합하다.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등은 흡수율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질로 굽는다. 건물 외벽에 마감재로 사용하는 외장타일도 자기질

이다. 흡수율이 높으면 동파가 나기 때문에 도기질은 사용할 수 없다. 보통 도기질은 1,150도에 굽고, 자기질은 1,250도에 굽는다.

초창기 극동요업의 주력 상품은 내장타일과 모자이크타일이었다.

터널가마를 사용하던 초창기 내장타일은 제토→성형→1차소성→시유→2차소성→선별→포장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내장타일은 108×108mm로 규격화되어 있었다. 고령토에 도자기, 타일 원료 등 여러 가지를 적절한 양으로 배합해 성형을 한 다음 1차 소성을 하면 비스킷처럼 딱딱해진다. 1차 소성 후에 시유를 해야 딱딱해진 타일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 시유 후 2차 소성까지 거쳐야 하는 내장타일은 에너지 소모율이 엄청났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연료비가 문제였다. 처음엔 병커C유로 소성을 했고 차츰 경유, 석유 버너를 사용하다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열효율이 높은 가스버너로 전부 교체했다.

외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공정은 제토→성형→시유→압조→소성→내화압해체→선별→포장으로 이루어진다.

모자이크타일은 특히나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었다. 선별 후 지침 과정이 추가된다. 사방 1, 2인치짜리 타일에 본드를 칠해 종이에다가 일일이 붙여 시공하기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연 건조를 시켜야 하는 품이 많이 드는 공정이었다. 손이 빠르고 기술이 좋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모자이크타일은 외국에서는 생산 기피 대상 품목이었고, 우리나라보다 타일 생산량과 기술이 앞서 있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기술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뛰어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이 먹혀들었던 것도 값싼 임금에 노동력을 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노동집약적 생산방식

타일 생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재료인 질 좋은 고평토를 구하는 것이다. 오래전 인천 서구지역에서 녹청자를 구웠던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가까운 데서 고평토를 구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극동요업에서는 주로 전라도 무안에서 구해왔다. 한 번에 구해오는 양이 1, 2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 인천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타일 생산에서 가장 힘든 공정은 1차적으로 고평토를 가공하는 제토과정이다. 한겨울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고평토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변한다. 포클레인이나 페이로더로 떼어내는 작업은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했다. 그런 다음 크러셔(Jaw Crusher)라고 하는 돌방아에 넣고 뺀다. 잘게 부순 다음 25mm짜리 볼 밀(Ball Mill)에 넣어 12시간 돌린다. 볼 밀에서 곤죽이 된 걸 시럽이라고 하는데 저장 탱크에 집어넣고 밀으로 빼내는 과정을 거쳐 점도를 높인다. 그다음 내부 온도가 600도 되는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를 하면 이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수증기는 날아가고 수분 함량 6프로 정도의 알갱이가 된다. 컨베이어를 통해 사일로에 저장된 정제된 고평토가 타일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이다.

프레스로 성형한 타일을 가마에 넣기 위해 내화갑을 만들고 속에 내용물을 채우는 갑조 작업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자동화 설비가 되기 전에는 규격별로 성형한 타일을 내화갑에 쌓을 때 책받침으로 떠서 집어넣었다. 줄을 맞춰 착착 쌓는 것도 숙련된 기술자들이나 할 수 있었다. 내화갑을 바퀴 달린 대차(밀차)에 올려놓으면 레일을 타고 가마 속으로 넣는데 중량이 무거워 유압으로 밀어 넣어야 했다. 소성이

끝나고 꼬집어내는 작업은 남자, 한 번 사용한 내화갑을 해체하는 작업은 여성들의 일이었다.

제토과정부터 완성품을 포장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강도 높은 노동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품의 질과 수율이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양했다. 유약이 벗겨지거나 모서리가 깨지기도 하고, 요철이 있는 타일의 경우에 오목하다든가, 볼록하다든가 휘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율이 있다. 광물 한 가지만 사용하면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토, 도석, 납석, 백토 등 타일의 형태를 구성하거나 강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재료의 비율을 연구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기본 재료인 고령토는 전국에 있는 좋은 고령토를 수소문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원료를 수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최종 수율은 75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제조원가를 싸게 투입하더라도 생산 수율이 떨어지니까 제품 판매 단가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외면받기 십상이었다. 수율을 높여보기 위해 유약을 입히지 않고 고령토로만 만든 크랭 커타일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실패로 돌아갔다.

모자이크타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양화되고 있었다.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작업방식에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옮겨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건 모자이크타일이었다. 모자이크타일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는 수출로 반짝 재미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수출이 막히고 내수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모자이크타일은 영원히 타일업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108×108㎜로 규격화되었던 내장타일은 80년대 들어서서 그 규격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외장타일의 규격도 커졌다. 외장타일의 경

우 최소 60×100mm 이상이 되어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설비한 독일제 300톤 프레스로는 강도가 나오지 않아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없었다. 타일 규격이 달라지면서 600톤 일본산 니케이 프레스로 전부 교체했다.

(3) 꺼지지 않는 가마의 불

1970년대 공단의 불빛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깊은 밤까지 잔업과 철야가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인천의 주요 공단은 물론 서구의 작은 작업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구나 요업 현장은 작업의 특성상 12시간 맞교대가 불가피했다. 소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요업은 일단 가마에 불을 지피면 끝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마를 켜서 온도를 끌어올리는 데 연료비가 많이 드는 데다 작업공정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24시간 불을 땔 수밖에 없다. 가마가 무너지기 전에는 임시방편으로 땀질을 해가면서도 가마의 불이 꺼지는 일은 없었다. 가마 수리는 휴가 때 몰아서 손을 봤다.

12시간 맞교대는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집약적으로 대변한다. 박봉에 잔업과 야근 수당이 더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한여름엔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목구멍을 막는 먼지는 감당할 수 없다. 겨울에는 그나마 조금 견디기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업 강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 번 불을 켜면 끝 수 없는 가마처럼 현장 노동자들도 12시간으로 맞물려 밤낮없이 돌아갔다.

극동요업에 노조가 설립된 건 1980년대 후반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지기 전에는 극동요업에 노

조는 없었다. 모자이크타일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뀐 뒤부터 현장 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극동요업의 경우 3분의 1로 줄어들어 200여 명 수준이었다.

극동요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이었다. 극동요업에 노조가 설립된 후 노동자들은 100프로 노조에 가입했다. 최소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성화는 노조가 생기고부터 퇴임할 때까지 해마다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사측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서로 타협해서 회사가 발전하게끔 만드는 게 그의 임무였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좋죠. 단체협약이 결렬되면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불량만 늘어나는데 직원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죠. 기업만 배를 불리면 안 되잖아요. 줄 때 줘야 신명이 나죠. 신명이 나야 일을 잘하죠. 사람 사는 데 필요한 힘을 줘야죠.”

하지만 소성화는 협상 때마다 매번 힘들었다고 한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 조건이 늘어날수록 조율은 쉽지 않았다.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며 살아가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밖엔 없었다.

작업장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요업공장은 약품 처리를 위해 대량의 물을 사용한다. 초창기엔 오염수를 그냥 방류했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된 뒤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었다. 비산 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물 기준도 지켜야 했다. 요업뿐만 아니라 서귀지역의 공단 사정은 거의 비슷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의 사업장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형편이다.

4) 극동요업의 고유 브랜드 파스텔타일 출시

1980년대 중반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면서 요업계는 노동집약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롤러가마(Roller Kiln)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선보였다. 기존의 터널가마(Tunnel kiln)는 성형품을 적재해서 대차로 직접 밀어 넣어 굽는 방식이었는데 롤러가마는 성형에서부터 소성까지 롤러컨베이어로 연결되는 자동화시스템이었다.



| 일본 요업 공장 견학
왼쪽 첫 번째가 소성화

롤러가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국내 10여 개 업체들도 이탈리아의 POPPL, CITI 사에서 나온 롤러가마로 설비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설비를 교체한 업체와 기존 설비를 교체하지 못한 업체의 생산량과 제품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설비의 자동화 정도에 따라 원가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누가 더 싸게 적기에 질 좋은 제품의 납품이 가능한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롤러가마가 도입되면서 일어난 소성로의 현대화는 모든 공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일대 혁신이었다. 터널식 가마는 불 속에 들어

가 있는 시간이 길고 고르지 못한 상하 온도 차이에 의해 소성 과정에서 제품에 영향을 미쳐 불량률이 높았다. 롤러식 가마는 소성 과정의 온도 차이 없이 균일한 상태로 불이 들어가고, 외부의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수율이 높아졌다.

내장타일의 경우 롤러가마는 유약을 분사해서 도포하는 게 아니라 타일 표면에 아예 인쇄(프린팅)한 것을 곧바로 롤러를 타고 보내면 소성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1차 소성만으로도 제품의 질이 보장된다.

무엇보다 타일 규격이 크고 다양화되면서 가마의 폭도 대폭 커졌다. 내장타일은 규격화된 108×108mm가 250×400mm, 300×600mm로 변했고 바닥타일도 150×150mm에서 300×300mm, 450×450mm, 600×600mm로 커지기 시작했다. 타일 규격에 따라 프레스가 1,200톤에서 2,000톤까지 대형화되었다. 프레스 톤수가 올라갈수록 타일 두께가 10mm에서 7, 8mm로 얇아지면서 강도는 세졌다. 타일이 대형화된 것은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공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했던 외장타일은 건축물의 외장재가 대리석 등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고 규격이 큰 바닥타일, 벽타일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롤러가마가 도입된 후 생산라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율 자체가 좋아지고 고급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업계에 디자이너가 등장한다. 타일 제품에 색상을 넣고 사방무늬나 마블링을 넣어 대리석 질감을 얻으려면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했다. 디자이너가 설계한 무늬를 컴퓨터로 작업해 스크린 프린터로 찍워서 타임을 눌러 밀어주면 소성까지 자동으로 구워져 나온다.

일명 씨드타일이라고 하는 띠타일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사방무늬만 붙이면 심심하니까 악센트를 주기 위해 띠타일을

만들었다. 완제품에다 프린팅을 하고 소성 후 커팅을 하는 방식으로 한때 실내 인테리어에 유행했다.

극동요업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후 고유 브랜드로 파스텔타일을 선보였다.

파스텔타일은 극동요업이 시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 끝에 내놓은 신상품이었다. 경쟁력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신상품 개발뿐이었다.

파스텔타일은 제토 후 성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혼합과정을 거쳤다. 혼합과정은 원하는 색상을 얻기 위한 안료의 배합이 관건이었다. 시유과정 없이 혼합에서 성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자동화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디자이너가 혼합과정에서 프린팅한 후 성형을 하고 곧바로 소성으로 들어갔다.

색상이 층층이 퍼지는 파스텔타일은 출시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앞뒷면까지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료의 원가가 비싸다는 게 단점이었다.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계속했다.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싱(연마)작업을 병행했다. 연마를 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면 미끄러워서 바닥타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파스텔타일은 정제된 국산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초기에는 잘 팔려나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역시나 가격에서의 경쟁력이었다. 타일을 이원화시켜 윗부분 3mm 정도만 파스텔 안료를 넣고 밑에는 색상을 넣지 않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제품 생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반 타일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 결국엔 시장 경쟁력에서 밀려 파스텔타일은 사라진다.

5) IMF 위기를 넘지 못하다

극동요업의 연 매출은 300억 원 남짓이었다. 국내 타일 회사 전체의 1년 생산 및 판매량은 3,000억 원 정도로 극동요업은 타일 시장에서 10프로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각 업체의 규모도 대동소이했다. 뛰어나게 큰 회사도 없었고,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도 초창기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식기, 벽돌, 범랑, 위생도기(욕조, 세면기, 변기 등) 및 금구 관련 시장은 몇 배나 규모가 더 컸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 들어와 타일 시장의 50프로를 잠식했다. 당시 분당과 일산·부천·평촌·산본 5개 신도시의 건설 붐은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정책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내 타일은 중국산 제품에 밀리기 시작했다. 요업계는 수입산 타일을 포함해 전체 시장 매출액을 6,000억 원 정도로 가정하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국산이 수요를 되찾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투자비를 들여 설비를 바꿔놓으면 중국은 저만큼 달아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한 발씩 기술력이 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 1993년 중국에 공장 설비 이전을 위한 관계자 회의

초창기에는 노동집약적이었다가 자동화시스템 도입 이후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업회사들은 설비 투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행 대출금이 늘어나 이자가 부담되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닥치자 전국적으로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단 대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설비를 교체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던 극동요업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극동요업의 부지 25만 평 중 실제로 사용한 부지는 3만여 평에 불과했으므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다. 현 주물공단이 들어선 자리며 몇 군데 땅을 매각한 후에도 담보력이 있어서 자금의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100프로 투자를 받고 있던 모기업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발목을 잡혔다.

극동건설은 당시 건설회사 순위 4위 정도의 대기업이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제그룹이 해체될 때 계열사였던 국제건설과 동서증권을 인수하면서 금융업계에도 진출했다.

‘왕자표 고무신’과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로 더 잘 알려진 국제그룹은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중의 하나였다.⁶⁾ 국제그룹을 이끌던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 정권에게 정치자금 헌납을 거절하고 정권의 눈 밖에 나서 해체되었다는 비화는 거의 기정사실이였다. 비단 국제그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극동건설이 굴지의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타일상회들은 대부분 영세 업체였다. 현금 거래 없이 거의 99프로가 어음 거래였다.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타일상회들은 납품한 돈을 못 받고, 요업회사에 결제를 못한다. 그러니 줄줄이 연쇄반응이 일어나 줄도산을 하게 된다.

극동요업의 주 거래처는 을지로에 있었다. 지금은 강남 논현동 쪽

으로 많이 옮겨 갔지만 예전엔 을지로에 타일 도매상들이 몰려 있었다. 인천지역에서 소비되는 거래는 없었고, 주요 거래처는 전부 서울이었다.

진흥요업도 모회사인 진흥건설이 부도나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다. 극동요업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컸고 각종 생활 도기 생산으로 인천에선 꽤 이름난 회사였다. 정신없이 우르르 무너질 때였다. 현대 계열인 동서산업도 넘어가고, 수원에 있던 대보산업, 한보산업, 부천에 있던 대도산업도 무너졌다.

국가 부도가 코앞에 닥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구제금융의 시절,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겠다고 전 국민이 장롱 속에 모아뒀던 금붙이를 들고 나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암울한 터널을 지나오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가정은 파탄 났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채무 관계를 청산한 2001년까지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IMF 세대라고 한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질기게도 따라붙었다.

극동요업이 IMF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문을 닫은 건 2007년이다. 무리한 투자와 인수한 회사들의 잇따른 부도로 경영난에 빠진 극동그룹이 론스타로 넘어간 해였다. 1995년에 설립된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는 IMF 사태 때 한국에 자본을 투자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그룹으로 유명하다.

이후 론스타는 극동그룹을 웅진홀딩스로 넘겼고, 웅진홀딩스도 부도가 나면서 극동요업은 사라졌다. 30여 년간 한자리에서 인천 서구 지역의 산업에 일조하며 동양 최대의 종합 세라믹 공장을 목표로 출발한 창업주의 꿈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30년간 극동요업과 함께한 소성화 상무

1) 입사

올해 70세인 소성화는 1975년 2월 1일에 극동요업에 입사했다. 군 제대 후 잠시 다녔던 직장 상사가 극동건설로 자리를 옮겨 계리부 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경리부를 일본식으로 계리부라고 불렀다. 소성화가 우연히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너 아직 쉬고 있으면 여기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 하고 극동요업을 추천한 게 인연이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입사해서 2005년 5월 1일에 퇴사했으니까 만 30년을 일했죠.”

소성화는 극동요업에서 생산관리, 경리, 기계 업무를 주로 했고, 영업에도 관여했다. 20대에 입사해 일생의 거의 반을 극동요업에서 보낸 셈이다.



| 1990년도 후반 극동요업 사무실에서



| 공장장, 공무과장과 함께

소성화는 30년 동안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극동요업의 주요 업무를 책임져왔다. 그가 극동요업에서 일한 30년은 인천시 서구지역 요업의 30년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동요업이 서구에 자리를 잡았던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였다. 주안염전이 있던 자리를 매립하여 1973년에 주안공단이 들어섰고⁷⁾, 서구지역엔 국제CC클럽과 경인에너지 외에 이렇다 할 산업체가 없을 때였다.

2) 해방촌에서 인천으로

소성화는 1951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평양이 고향인 실향민으로 일사 후퇴 전에 남으로 내려왔다. 서울 남산 아래 첫 동네인 해방촌에 자리를 잡은 그의 아버지는 한전에서 일했다. 전기 계량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 업무를 담당했던 그의 아버지는 평양 숭실고등학교를 다닌 엘리트였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피난민들의 판잣집 일색인 해방촌에서 그의 집이 제일 컸다. 가장 먼저 축대를 쌓고 블록으로 담을 친 집에서 살았다. 해방촌 집엔 당시에는 보기 드문 보일러를 갖춘 목욕탕과 연못도 있었다.

해방촌 집엔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매년 명절날엔 아버지의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 잔칫집처럼 떠들썩했다. 그때만 해도 1월 1일 신정을 설 때였는데 새해가 되면 아버지의 고향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그의 집에 모여 정종을 마시면서 새해를 보냈다.

“명절만 되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부모 친지들 다 고향에 두고 저희 부모님만 내려왔으니까. 그 때 문인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소성화는 말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그리움을 달랠 길 없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것 없이, 온 가족이 풍족하게 살았던 시절은 잠시였다. 그가

11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마흔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어머니는 서른아홉 살이었다.

“신정에 집으로 찾아온 친구들과 술을 드시고 그다음 날에 뇌출혈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죠. 저는 어렸을 때니까.”

젊은 나이에 7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어머니는 집을 줄여가기 시작했다. 70여 평이나 되는 큰 집을 반으로, 거기서 또 반으로 줄이고, 양키 물건을 떼어다 보따리 장사를 해가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옛날엔 양키 물건을 떼어다 팔려면 숨어서 팔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험한 일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었겠죠.”

그는 살아볼수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외가 쪽은 성직자들이 많았다. 홀로 된 어머니를 지탱해준 힘은 바로 기도였다. 그의 손위 누나가 수녀가 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소성화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의 7남매는 모두 삼광국민학교를 나왔다. 남자 형제들은 용산고등학교, 여자 형제들은 수도여고를 나왔다. 그의 형이 60년대 후반 월남전에 참전해 부쳐오는 월급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보냈다.

극동요업에 입사한 후 소성화는 서울 본가에서 인천으로 출퇴근을 했다. 회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당시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하기 힘들었다. 더구나 극동요업이 자리한 경서동은 공장까지 닿는 버스도 없었다.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었던 그는 본가에서 나와 회사와 가까운 경서동에서 하숙을 시작했다. 그 덕분에 경서동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부인도 극동요업에 잠시 일한 이력이 있다. 회사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사내 커플들이 꽤 있었다. 그와 아내는 극동요업의 사내 결혼 1호 커플이다.

1977년도에 결혼한 소성화는 경인에너지가 있는 울도 입구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패물은 장만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결혼식을 치렀고, 패물 대신 조그만 집을 먼저 장만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해방촌 집은 오래전에 없어졌다. 그의 형제들은 해방촌을 떠나 서울 각지에서 살지만 그만 떨어져 인천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에겐 처가가 있는 경서동이 제2의 고향이고, 극동요업이 본격적인 삶의 무대였다.

3) 해외 출장

회사 전반의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소성화는 세계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녔다. 특히 타일 기술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1990년부터 일본, 대만, 이탈리아, 중국, 홍콩 등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설비 증설 및 신공장 설립을 위해 각국의 요업공장과 설비 제작 회사들을 수차례 방문했다.



| 1990년 공장 증설을 위한 검토회의



| 1990년 이탈리아 위생도기 공장방문

우리나라에서 400×400mm, 600×600mm 타일을 생산할 때 중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쪽에서는 900×1800mm 합판만 한 대형 타일을 생산하고 있었다. 소성화는 퇴임하기 전인 2004년에 중국 신천으로 출장을 갔을 때 박람회장에서 세라믹 쇼를 관람하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직접 가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위기감이 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1만 톤짜리 프레스를 만들어서 찍고 있더라 말입니다.”

소성화는 회사 앞날이 걱정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박 3일간의 인천 출장은 안료회사인 한일화학 회장도 동행했다. 소성화는 한일화학 회장에게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암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타일은 가격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졌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하면 그만큼의 시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국 타일이 이미 시장의 반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시장에 거의 국산이 없어요. 벽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는 거 다 중국 거예요. 가격 싸지, 모양 좋지, 규격이 딱딱 맞아서 시공하는 데 불편 없지. 그러니까 재료비니 뭐니 원가 계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소성화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을 줄이고 품질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늘 고민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원가절감에 대해 연구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연구 분야도 아니고 관리 전반의 총괄을 맡은 관리직인데도 불구하고 ‘타일의 생애’를 손수 그려보기까지 했다. 레이아웃을 그려 아흔 군데가 넘는 불량 현상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작업공정에서 최대한 수율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죠. 최대한의 수율을 내는 게 관건이었으니까요.”

소성화는 극동요업에서 근무한 30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기업이 살아야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소성화는 요업회사들에서 자신이 개발한 원가 계산법을 사용해서 등가지수를 맞추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4) 퇴임

소성화는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청력이 미약해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 귀가 어두워진 건 IMF로 인해 회사가 한창 어렵던 시절이었다.

회사가 부도날 때 소성화는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회사 안팎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때 그는 술하게 골머리를 앓았다. 하루는 귀에서 농이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고막에 천공이 났다고 했다. 오른쪽 귀는 그때부터 들리지 않게 되었다.

“부도설이 나오니까 납품업자들이 회사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때 채권단을 모아놓고 제가 한 첫 마디가 여태까지 우리 회사가 당신들한테 기여를 했으니깐,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 지금은 회사가 어렵다. 그 대신 모든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프로씩 할인해서 동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업체별로 지급 기준일을 정해놓고 약속한 날짜에 철저히 이행해나갔다.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나마 약속을 지킨 곳은 극동요업밖에 없었다고 한다. 소성화를 믿고 거래를 해준 사람들 사이에선 지금도 그 일이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어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회사도 많았는데 그는 회사를 대표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소성화는 2005년에 정년 퇴임했다. 극동요업이 론스타에 매각되고 나서였다. 임원이었던 소성화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퇴임 절차를 밟았다. 론스타 사람들에게 그는 눈엣가시였다.

“론스타 사람들은 극동요업을 없애려고만 했죠. 론스타 아시아 담당이 하버드대를 나온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짜놓은 각

본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기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문만 남기고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소성화는 극동요업이 없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대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오너도 아니고 그걸 말릴 수는 없었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잘됐으면 괜찮은데 결국엔 없어졌으니까요.”

소성화는 퇴직할 때 아쉬움이 많았다. 평생직장이란 말이 사라진 요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30년간 몸담았던 회사가 매각되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역 사회에서 극동요업이라는 타일 생산업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퇴사하며 자신을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소회를 남겼다.

5) 제2의 삶

극동요업에서 퇴사한 소성화는 운수회사 명진특수화물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지 벌써 16년째다.



| 소성화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인터뷰를 진행한 명진특수화물 사무실이 있는 경명대로는 예전 극동요업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사무실 앞도 1970년대 당시에는 길조차 없던 뽕밭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상전벽해,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도 서부공단을 드나드는 화물 트럭들이 뽕뽕 달린다.

“아시다시피 운수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운송단가는 20년 전이나 똑같은데 기름값이나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퇴직하고 난 후에 운전으로 먹고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운임은 예전과 똑같아서 턱없이 저렴하니 운수 회사들은 다 영세할 수밖에 없죠.”

소성화는 최근 같이 일하던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경리, 영업 반을 관리하고 있다. 일하는 틈틈이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뒤늦게 공부하게 된 계기는 친구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만든 새로운 도전이다.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뒤늦게 방통대 영문학과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요.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만 못 갔어요. 형편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소성화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입학원서 낼 돈이 없어 대학 입학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 젊은 날의 열망이 뒤늦게나마 그를 일깨웠을지도 모른다. 경제학과를 선택한 건 그 분야에 대한 남다른 경력과 경험이 있어서였다. 극동요업에서 일한 이력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만큼 생산, 관리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회사가 넘어간다는 게 가슴이 많이 아팠죠, 결국은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극동요업에서 보였던 그의 노력과 관심은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점점 좋아져 이번 학기는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고 뿌듯해했다.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소성화는 말한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어린 손녀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웃음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손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절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일상들이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건 그만큼의 시간을 견뎌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도 신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온갖 소리들을 다 듣지 않아도 되고요.”

극동요업에 재직할 당시에 얻은 병으로 그는 오랫동안 한쪽의 청력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다. 그마저도 삶의 순리로 받아들인다는 소성화는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본다고 했다.

3. 글을 맺으며

1970년대 초 인천시 서구에 자리를 잡았던 극동요업은 역사의 페이지 속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곧 그 지역 산업의 역사이기도 한데, 지금에야 돌아보게 된 건 너무 늦었다는 감도 든다. 건설업계 5위 안에 들었던 대기업 극동그룹의 역사는 온라인 포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자회사였던 극동요업에 대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극동요업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번듯한 LG전자인천캠퍼스 건물을 보면서 극동요업이 있던 풍경을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뽕밭을 메워 지경을 넓히고 그곳에 공장을 세웠던 지난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다. 극동요업의 전경, 터널가마와 롤러가마가 돌아가던 시절의 작업장 풍경, 노동자들의 생활상 등 다양한 이야기와 자료를 담지 못함을 아쉬움으로 남겨둔다.

극동그룹이 거느렸던 수많은 자회사들 중에 극동요업은 창업주가 거대한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인천 서구지역의 산업적 임지를 기반으로 세라믹 종합 공장의 꿈을 키울 만큼의 저력도 있었다. 30여 년을 버텨온 극동요업은 지역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해왔던 중요한 기초산업이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자료를 축적해가는 일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내일을 위해서도 유의미한 일이다.

극동요업이 인천 서구지역에 자리 잡았던 역사적인 의의를 생각하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진 게 못내 아쉽다고 말한 소성화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게 와닿았다. 지난 30년 동안 극동요업에서 근무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1) 이 글은 2021년 6월 24일, 7월 13일 두 번에 걸쳐 소성화를 취재·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집필했음을 밝힌다. 1951년생인 소성화는 1975년 극동요업에 입사해 2005년에 상무로 정년 퇴임했다.
- 2) 위키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A%B7%B9%EB%8F%99%EA%B1%B4%EC%84%A4>
- 3) 극동요업 일대 항공사진 3장은 인천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publicity/sub/sky_major.jsp
서구청 홈페이지는 인천 서구와 관련한 다양한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 4) 위키백과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
- 5) 『인천지명 上』참조.
용의머리[龍頭山] : 연희동 본말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간 땅의 모습이 용과 같고 바다에 이르, 마치 용의 머리 같은 곳에 취락이 있어 그렇게 붙여졌다.
- 6) 위키백과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A%B7%B8%EB%A3%B9>
- 7)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746>



에필로그

epilogue

송수연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인천 서구는 목하 눈부신 변신 중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은 근현대의 격동을 거친 대한민국의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인천 서구의 어제와 오늘날은 그 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도 드물다. 서구는 수많은 섬과 바다가 사라지고 그곳을 메운 땅에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 곳이다. 바다뿐 아니다. 산을 깎고 강을 메워, 집을 짓고 공장을 지었다. 간척된 땅들은 일부 농토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목재단지나 주물단지, 공업단지, 화력발전소, 정유공장 등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축소(縮圖)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향토지 20권은 2020년 ‘인천 서구의 산업’이라는 주제로 새로 문을 연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의 인천 서구를 담고자 했다.

1장 『가좌지구 폐염전의 질적 변화 :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는 현 서구 가좌동 일대에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5.6공단)의 탄생 배경과 조성과정을 면밀하게 살핀 글이다. 필자는 이 산업단지들이 국가의 강한 리더십과 행정관료의 합리적 판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각종 사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산업단지를 포함, 1960~70년대 부평지구와 주안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6개의 산업단지는 인천의 산업화 1세대가 주도하여 조성한 산물이다. 애초 민간산업단지로 출발한 6개의 산업단지들은 이후 국가산업단지로의 강제 통합, 민간산업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 국가만이 아닌 지역 단위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욕구와 행위가 반영되어 있음을 이 글은 잘 보여주고 있다.

2장 『서구목재산업단지와 동화기업』은 동화기업을 비롯한 크고 작

은 목재 기업들이 인천 서구민들의 삶과 어떻게 섞이면서 서구의 일부가 되어 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간 글이다. 동화기업 같은 큰 규모의 목재 사업장은 서구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변화해가는 길목에 동화기업이 있었다. 산업의 형태와 규모의 변화는 단순히 산업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동화기업은 목재 산업의 규모화를 통해 목재 산업단지가 생기고 합판, 가구, 악기 등 여타의 목재 산업이 서구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타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어 서구는 보다 큰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3장 『은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 영창악기와 인천』은 인천 가좌동에 위치,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영창악기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다. 서울 명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영창악기의 ‘인천시대’는 1978년 서구 가좌동에 제1공장을 세우고 악기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영창악기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제2, 제3공장을 세우고, 절정에 이른다. ‘석남동과 가좌동 일대의 상권은 영창악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창악기는 큰 규모의 제조기업으로 성장, 삼익악기와 더불어 국내 악기 시장을 확고하게 점유했다. 그러나 이 글은 한 시대를 풍미한 과거 영창악기의 빛나는 시절을 상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 아침 출근해 밤 늦게까지 기계를 돌리고 노동하던 사람들에 주목한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쉽게 잊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셈이다. 그렇게 영창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의 일상과 생각으로 들어간 이 글은 영창악기가 영화로운 시대를 마감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장 『경동산업의 어제와 오늘 - 국내 최초의 양식기 제조업 ‘경동산업’에서 노동자자주회사 ‘키친아트’까지』도 서구 산업화의 은성한 시기의 주역이던 경동산업의 발자취를 좇되, 이를 경동산업의 역사를 일군 노동자들의 삶 중심으로 구성한다. ‘일주일에 3~4일은 철야를 하고,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졸면서도 물건이 수출되는 것을 보면 뿌듯했다’는 인터뷰이들의 목소리는 경동산업이라는 한 기업의 성장과 명암(明暗)을 동시에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웃음, 땀과 열정으로 다져진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이 한 편의 글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5장 『동양 최대의 세라믹 공장을 꿈꾼 극동요업』은 서구 경서동의 대표적 기업인 타일 전문 생산업체, 극동요업을 추적한 글이다. 극동요업은 한 때 국내 건설업체 5위 안에 들었던 극동건설의 자회사로 극동건설 창업주 김용산이 ‘동양 최대의 세라믹 공장을 건설’하려는 꿈을 안고 시작한 회사이다. 포부만큼이나 큰 부지에서 시작한 극동요업은 ‘여자들은 국제CC로 남자들은 극동요업으로 보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한 회사였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이후 모기업인 극동건설이 IMF 위기를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발목을 잡힌다.

현재 극동요업이 있던 자리에는 크고 번듯한 LG전자인천캠퍼스 건물이 있다. 그곳에서 있으면 ‘장화가 없으면 걸을 수 없었다’는 시절을 쉬이 떠올리기 어렵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목재산업으로 시작한 동화기업은 어느새 자동차 애프터마켓 엠파크로 변모,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해가고 있다. 영창약기 역시 각종 파고를 맞아 2004년 부도, 2012년 (주)영창뮤직, 2018년 (주)HDC영창으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동산업은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를 이겨내지 못하고 1993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경동산업은 노동자자주회사 (주)키친아트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 서구의 산업화 시기를 견인했던 기업들은 30~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사라진 회사도 있고, 규모가 줄어든 회사도 있으며,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서구의 바탕에는 산업화 시기를 담당했던 노동자들과 기업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충분히 자지 못해도, 일 할 수 있음이 기뻛고 수출되는 물품들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인천 서구의 산업 2

서구산업의 발전과 성숙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20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기획 | 서덕현 (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송수연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필진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박인옥 (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허우범 (인천서구문화원 이사)
김경은 (소설가)
김희주 (인천역사교육연구소장)
홍명진 (소설가)
송수연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편집 | 송수연

인쇄 | 영진종합인쇄 (032-425-2199)

ISBN 979-11-977029-0-7

ISBN 979-11-952675-8-3(세트)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